



2016 梁氏宗會報 目次



▣ 양씨종헌(梁氏宗憲)	3
▣ 양씨종기(梁氏宗旗)	
종회본부기, 청년회기, 종기의 의미	4
▣ 화보(사진)	
건승원	6
사직공파 묘역: 기세조추원단	10
천호공파 묘역: 기세조추원단	11
중랑장공파 묘역: 송조추모원	12
한라군 묘역	13
문양공 묘역	14
▣ 행사(사진)	
2015년 건승원 대제	15
2015년 삼성사 대제	17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창립총회	21
2015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22
건승원 표지석 제막식	23
사직공파 단합대회	24
천호공파 단합대회	25
애월읍증친회 한마음축제	26
한림읍청년회 창립총회	27
▣ 종회 관련 명단	
양씨종회 역대회장	28
양씨종회 임원명단	29
역대 파 종친회장 명단	36
역대 삼성사재단 헌관 명단	38
역대 건승원 헌관 명단	40
삼성사재단 장학생 명단	42
건승원 대제 헌성자 명단	43



▣ 발간사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양정보	46
▣ 축 사	양씨중앙종친회 회장 양석승	47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 부만근	48
▣ 선조의 역사	1. 최초로 몽고와 접촉한 탐라왕자	50
	2. 탐라왕자묘	53
	3. 조선시대 제주목사	55
	4. 효자와 열녀	63
	5. 의인, 기인, 명인	65
	6. 애국선열	75
	7. 역대 인물	78
	8. 고전소설속의 주인공	98
	9. 조선 최고의 정원사	102
	10. 중국 대륙의 梁씨	106
▣ 제주도 양씨유적 순례코스		109
▣ 양(梁)씨 세계도(世系圖)		110
▣ 승선의 길	광덕전 대제, 영경사 제례 홀기	116
	(재)고·양·부삼성사재단 소개	127
▣ 회무보고		130
▣ 집성촌 탐방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4
▣ 특집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 (결과보고, 설립취지문, 모금운동)	136
▣ 梁門을 빛낸 인물		144
▣ 梁門 문학		149
▣ 회칙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정관	155
	양씨종회총본부 회칙	168
▣ 도움을 주신 분들		176

梁氏宗憲

一. 숭선(崇先)

우리는 탐라국을 개국하신 양을나 시조를 비롯한 역대 선조의 훌륭한 업적과 그 유덕을 영원히 빛내기 위하여 선조에 대한 추모와 공경에 힘쓴다.

一. 애족(愛族)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내려온 혈족이다.
서로 협력과 우애로서 더욱 종의를 굳건히 다진다.

一. 유후(裕後)

우리는 선조의 개척정신과 진취의 기상을 이어받아 훌륭한 후손을 양육하여 국가의 발전과 종문의 번영을 기약한다.



양씨 종기(宗旗)

□ 종회본부기



□ 청년회기



□ 종기(宗旗)의 의미

중심을 이루는
무궁화꽃은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곧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중앙을 에워싸고
있는 원은 우리
양문의 단결을
의미한다.



원에서 5개의 새싹모양이 뻗어
나온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향한 전진 발전을
의미한다.

글자와 술은
평화와 우정, 맑고
깨끗한 생활, 썩지 않는
완성을 의미한다.

건승원(乾承原)

□ 건승원 전경

- 소재지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8길 60
- 부지기증자 : 성주공 31세손 양성후(세기건설 회장) 기증
- 면 적 : 22,920㎡(6,933평) □조성일 : 1999년 10월 11일



□ 건승문(乾承門)



□ 광덕전(廣德殿)



탐라국주(耽羅國主) 휘(諱) 탕(宕) 조(祖)의 위패(位牌)를 모신 곳

□ 영경사(永慶祠)



성주공(星主公) 휘(諱) 구미(具美) 이하 15위(位) 위패(位牌)를 모신 곳

□ 건승원 조성기



□ 헌성비(獻誠碑)



□ 건승원 표지석



사직공파(司直公派) 묘역 : 와룡원(臥龍員)

- 위치 : 제주시 도남동 1159
- 봉향일 :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



중랑장공파(中郎將公派) 묘역 : 송조추모원

-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753-1
- 봉향일 : 매년 4월 넷째 주 일요일



한라군 묘역

- 제주양씨 서두봉관공파 제단



- 위치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541-7



- 위치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원리 100-2

문양공 묘역

□ 수안사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208



□ 신도비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제주지역 외의 육지부 묘역은 계속적으로 자료수집하여 소개할 예정.

2015년 건승원(乾承原) 대제(大祭)

□ 광덕전(廣德殿) - 2015년 4월 11일 오전 10시



■ 헌관 : 초헌관 양해권(梁海權) 前양씨대구종친회장
아헌관 양학렬(梁學烈) 대한민국풍수지리연합회장
종헌관 양승보(梁勝普) 애월읍종친회장

□ 영경사(永慶祠) - 2015년 4월 11일 오전 11시



■ 헌관 : 초헌관 양봉진(梁奉進) 광명철재 대표
아헌관 양완순(梁完淳) 삼양전자 대표
종헌관 양원호(梁元好) 종회총본부 부회장

2015년 삼성사 대제(三姓祠 大祭)

□ 춘기대제(春期大祭) 2015년 4월 10일 오전 10시



종헌관 : 양구하(梁龜河)

□ 삼을나비벽랑국삼공주추원제(三乙那妃碧浪國三公主追遠祭)
2015년 6월 10일 오전11시



종헌관 : 양달빈 (梁達彬)

□ 추기대제(秋期大祭) 2015년 10월 10일 오전10시



아헌관 : 양치복(梁致福)

□ 건시대제(乾始大祭) 2015년 12월 10일 오전11시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창립총회

□ 2014년 2월 8일 오후1시



2015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 2015년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건승원 표지석 제막식

□ 2015년 4월 10일



사직공파 단합대회

□ 2015년 8월 23일



천호공파 단합대회

□ 2015년 10월 11일



애월읍중친회 한마음축제

□ 2014년 7월 13일



한림읍청년회 창립총회

□ 2015년 10월 3일 오후 5시



양씨 종회(梁氏 宗會) 역대 회장(歷代 會長)



初代 양홍기(梁洪基)
1967~1968 (2년)



2~3대 양부창(梁富昌)
1969~1973 (5년)



4대 양자윤(梁子允)
1974~1976 (3년)



5~6대 양치종(梁致鍾)
1976~1979 (4년)



7~11, 13~14, 16~18대
양태일(梁太一)
1980~1989 (10년)
1991~1993 (3년)
1995~2000 (5년)



12대 양성후(梁性厚)
1990~1990 (1년)



15대 양용해(梁龍海)
1994~1995 (1년)



19~21대 양중해(梁重海)
2000~2007 (8년)



22대 양상린(梁相麟)
2007~2007 (1년)



23대 양문화(梁文華)
2008~2009 (1년)



24대 양봉해(梁鳳海)
2009~2011 (2년)



25대 양봉규(梁奉圭)
2011~2013 (2년)



26대 양우철(梁宇喆)
2013~2015 (2년)

양씨 종회(梁氏宗會) 임원명단(任員名單)

□ 顧問

姓名	主要經歷	住 所	電話番號	備考
梁 守 政	在日 實業人	日本 東京都 台東區 上野櫻木 2-12-1	3832-8863	
梁 正 美	在日事業家	日本國 福岡縣 飯塚市 大字立岩 915-1		
梁 直 基	宝基商社(株) 社 長	日本 東京都 新宿區 歌舞枝町 2-7-12	3775-0010	
梁 斗 平	在日 實業人	日本 大阪市 生野區 桃谷 3-12-21	6731-9527	
梁 宇 濟	"	日本 大阪市 西成區 橋 2-9-15	090-2122-6666	
梁 性 圭	"	日本 大阪市 生野區 巽中 2-12-23	6757-5706 6754-5526	
梁 顯 圭	"	日本 岡山縣 倉敷市 連島中央 11-6-3	086-444-6837	
양 봉 규	前종회총본부 회 장	제주시 용담1동 256-19	753-3469 010-9118-3469	사직공
양 두 생	前종회총본부 상임고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899-3	764-1063 011-692-3547	"
양 용 해	前종회총본부 상임고문	제주시 삼도1동 305-33	751-0303 010-3264-5000	천호공
양 금 석	前종회총본부 상임고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298길 3-3 (신례리)	767-1882 010-8664-2889	증량장공
양 성 언	前교육감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16	010-7280-0025	"
양 영 식	前통일부차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산16-1 솔내마을 현대홈타운 112/701	(031)287-6697 018-222-6469	천호공
양 문 화	前종회총본부 회 장	제주시 삼도1동 523-8	722-3403 011-693-3403	증량장공
양 완 호	신례리주유소 대 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9-3	767-2488 767-3001	"
양 재 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261	748-2944	"
양 창 규	자영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15-2	796-2103 010-6694-2103	천호공
양 동 진		제주시 연동 313-35	746-2456 010-2693-2456	증량장공
양 찬 희	前 사직공파 종친회장	제주시 이도1동 1702-3	758-9049 010-9838-9049	사직공
양 태 관	前 천호공파 종친회장	제주시 중앙로 22길 21 (삼도2동)	722-4903 010-3699-4905	천호공

□ 諮問委員

姓名	主要經歷	住 所	電話番號	備考
양 승 주	前 제주산업정보 대학 교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2-2	784-4338 784-8998	천호공
양 진 건	제주대교수	제주시 연동 1541-1 지오빌 101호	759-1269 010-2788-8678	중량장공
양 동 익	前 삼성재단이사	제주시 삼도2동 941 믿음밀레니엄㉠ 206	758-7317	"
양 경 희	前 중앙중친회 부 회장	제주시 연동 제원A 7/105	010-5370-1417	사직공
양 영 철	제주대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제주시 이도1동 1650-4 장원월드컵A 103/802	753-0212	천호공
양 창 은	대동출판사 대 표	제주시 삼도2동 1147	722-5624 010-2888-5621	사직공
양 신 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99-4	794-7674	천호공
양 재 박	前 중회총본부 부 회장	제주시 귀아랑길 23	742-6565 010-3698-6565	사직공
양 문 희	前 사직공파회장	서귀포시 중문동 1789 푸른마을㉠ 114-106	738-0793 010-3314-0793	"
양 관 수	前 교육장	제주시 애월읍 광명1리 1264	747-6711 011-698-6167	"
양 영 식	前 제주개발 공사 본부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1009 (제주시 노형동 세기7차㉠ 811호)	010-2439-3447	중량장공

□ 常任顧問

姓名	住 所	電話番號	備考
양 영 종	제주시 노형로 359 (노형동)	010-2686-1320	사직공
양 봉 해	제주시 서사로 106 (삼도1동)	756-4300 010-4699-4301	천호공
양 우 철	제주시 노형동 1272-2 삼다빌라트 803호	758-6600 010-3691-0606	"
양 성 흥	제주시 도남동 79-7	722-5052 011-691-4052	중량장공
양 영 조	제주시 만덕로3길 26, 105/705 (건입동, 현대㉠)	010-8660-1139	사직공
양 원 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09, 7층호 (논현동)	(02)547-0805 011-9910-7613	천호공
양 대 성	제주시 노형동 부영A 505/103	742-6512 010-2698-6512	사직공

□ 會長團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備 考
회 장	양 정 보	제주시 연오로 11, A/103 (오라3동, 신광파인힐)	010-3697-0006	천호공
수 석 부회장	양 구 하	제주시 관덕로 8길 3-1	722-0034 010-5222-2402	"
부회장	양 팔 진	제주시 제원4길 21, 601호 (연동)	010-9757-4120	증량장공
"	양 송 남	제주시 용화로 10길 30	010-9838-3386	사직공
"	양 창 현	제주시 노형동 1288-5 노형타워4층 404호	010-2693-1111	"
"	양 용 창	제주시 아라1동 882-3	010-4690-3040	"
"	양 형 직	제주시 삼성로 106-8 (일도2동)	011-631-9314	"
"	양 보 현	제주시 중앙로 26길 25 102/1002 (삼도이동, 미듬아뜨리에)	010-6540-8048	"
"	양 원 호	제주시 노형동 911-2	010-3481-4631	"
"	양 영 호	제주시 애월읍 상가중길 9-4	010-6389-2346	"
"	양 재 순	제주시 연동 1951-1, 3층 (광명건설)	010-3691-9194	"
"	양 광 호	제주시 기와5길 159-8 (영평동)	010-6771-7878	"
"	양 진 숙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512-5	010-2690-0875	"
"	양 석 후	제주시 월랑북3길 9 (노형동)	010-8660-0077	"
"	양 병 택	제주시 남녕로 54 위더스빌 604호	753-8943 010-3698-8943	천호공
"	양 사 순	제주시 고마로 5길 24-12	722-1560 010-6798-1318	"
"	양 성 흥	제주시 신광로6길 25 (연동) 제원A B/503	746-7745 010-3691-5553	"
"	양 구 해	제주시 정촌13길 23 (노형동) 영진1차A 701호	746-3249 010-2125-3249	"
"	양 한 진	제주시 광평중길 65-1, 703/102 (노형동, 프레모아7차)	010-4692-7252	"
"	양 영 보	제주시 삼동길 44-6	010-3699-3792	"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備 考
부회장	양 계 신	제주시 용담로5길 5 (용담2동) 용두암 현대④ 201/603	010-4692-0336	천호공
〃	양 치 석	제주시 에월읍 하귀3길 35	010-8664-6429	〃
〃	양 순 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76-3	762-0128 017-693-0128	증량장공
〃	양 완 순	제주시 용담2동 696-10	742-8898 010-3699-4000	〃
〃	양 치 복	제주시 조천읍 외흘리 943 선양목장	011-699-0746	〃
〃	양 조 훈	제주시 오라로 80 (오라2동)	010-4602-5660	〃
〃 (청년회장)	양 상 택	서귀포시 안덕면 임중로 15-4 (화순리)	010-5293-9396	〃

□ 監 事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備 考
감 사	양 경 수	제주시 삼도2동 1177-2	757-6562 010-6693-6522	사직공
〃	양 성 범	제주시 고마로 11길 4-8 (일도2동)	756-0910 010-3643-8888	천호공
〃	양 태 조	제주시 동광로 9길 35-25	722-5130 010-8660-5130	증량장공

□ 擔 當 理 事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備 考
총무이사	양 태 엽	제주시 신성마을길 31	010-6692-7146	천호공
사업이사				
조직이사				
의전이사	양 달 빈	제주시 서광로19길 41	758-9148 010-2682-9148	천호공
의제이사	양 명 일	제주시 용문로17길 29-3	010-2689-6356	사직공
홍보이사	양 기 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90	010-3692-0459	〃

□ 理事

職位	姓名	住所	電話番號	備考
이 사	양 영 부	제주시 삼도2동 941 밀레니엄A 501호	722-1737 010-8662-1737	사직공
"	양 방 규	제주시 중앙로 359, 602호 (이도2동 1987-5, 신해빌딩)	010-3699-0504	"
"	양 승 만	제주시 남녕로 4길 28-3	010-9038-8225	"
"	양 성 립	제주시 노형동 923-17 한솔어린이집	010-3694-6208	"
"	양 상 철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	010-3697-3501	"
"	양 계 원	제주시 연동 323-10	010-3639-1577	"
"	양 수 현	제주시 성화로 27-1, 7/201 남양주택	010-2691-0848	"
"	양 동 진	서귀포시 서귀동 272-19	011-697-4948	"
"	양 대 영	제주시 연동 252-68 경성빌라 302호	010-3698-0889	"
"	양 호 선	제주시 노형동 2525-6, 3층	010-4692-9977	"
"	양 성 우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6길 16	799-3115 010-2695-3115	천호공
"	양 창 길	제주시 대원길 13 (아라동) 영도그린힐 101/304	702-1253 010-2093-5418	"
"	양 순 봉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길 6	799-1493 010-5438-1492	"
"	양 흥 범	제주시 도남로 59-4	757-4247 010-3693-0047	"
"	양 창 언	서귀포시 남원체육관로 40길 6 (위미리)	764-0753 010-3698-0753	"
"	양 평 구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1차 103/303	758-9015 010-3639-3454	"
"	양 광 수	제주시 광양6길 12-1 (이도1동)	724-8330 010-2649-4777	"
"	양 정 희	제주시 도남로 15길 25 (도남동) 그린빌라 502호	756- 010-3077-5200	"
"	양 창 선	제주시 연삼로 405 (이도2동)	757-0687 010-4691-0687	"
"	양 상 추	제주시 고마로1길 29 (일도2동)	722-8628 010-4690-8628	"
"	양 봉 생	제주시 봉개4길 6 (봉개동)	721-1762 010-5668-1762	"
"	양 계 립	제주시 광양6길 21 (이도1동) 청우빌딩 503호	758-9230 010-8866-9230	"
"	양 정 하	제주시 삼무로 15 태흥누리안3차A 1403호	711-3636 010-3696-6633	"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備 考
이 사	양 영 일	제주시 한천로 72	723-3895 010-4699-2233	천호공
"	양 군 효	제주시 조천읍 곶은달길 22-4 (대흘2리)	010-2698-7189	"
"	양 방 옥	서귀포시 서귀동 284-17	762-3528 010-6485-6605	중앙장공
"	양 용 식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268-2 (신례리)	767-0121 010-3639-0121	"
"	양 상 집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033-1	010-3693-2590	"
"	양 세 효	서귀포시 토평동 1484-5	010-9661-5093	중앙장공
"	양 창 행	제주시 노형동 2524-2 셋방㉠가/206	010-6691-1670	"
"	양 동 섭	제주시 서광로 20길 7 (삼도1동)	010-3699-8810	"
"	양 창 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204-2	748-3588 010-3699-5666	"
"	양 대 옥	제주시 삼성로18길 28 (일도2동) 신산미화㉠라/510	010-8661-6060	"
"	양 군 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81-15	796-7898 010-3698-2169	"
"	양 응 권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172	773-1990 010-3694-1990	"
"	양 영 보	제주시 노형동 2536-6	742-5488 010-4449-5488	"
"	양 만 식	제주시 서광로 22길 32 도남2차 e편한세상 204/301	723-3724 010-6552-3724	"
"	양 태 영	제주시 삼도1동 507-2 (감초당약국)	756-8578 010-2691-4370	"
"	양 희 준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17길 12	796-0510 010-3639-3802	"
"	양 호 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53	010-6638-5569	"
"	양 동 석	제주시 황사평 6길 139 (영평동)	010-9198-9155	"
"	양 진 용	제주시 일도2동 113-36 우성2차㉠ 201/407	010-6798-7800	용

□ 市·邑·面 地域宗親會長

地 域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제주시	양태영	제주시 삼도1동 507-2 감초당약국	722-4370 010-2691-4370
애월읍	양승보	제주시 애월읍 수산서3길 15-8	010-9974-8808
한림읍	양우용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88	011-690-2175
한경면	양응순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26	773-0391 010-9487-0391
조천읍	양치복	제주시 이도2동 403-15	724-1027 011-699-0746
서귀포시	양민웅	서귀포시 보목동 659	733-3987 010-7179-3987
대정읍	양우택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18-3	794-2285
안덕면	양석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77	794-8696 010-9664-8696
남원읍	양용식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268-2 (신례리)	767-0121 010-3639-0121
성산읍	양명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433	782-2690 010-9458-2690
표선면	양대석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010-3438-1209

□ 青年會長

青年會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청년회 총본부	양상택	서귀포시 안덕면 임중로 15-4 (화순리)	010-5293-9396
사직공	양문혁	제주시 도남동 923-13 성환A 306	010-8244-1855
천호공	양성훈	제주시 용담3동 934 남양빌라 301호	712-7720 010-4599-0014
중량장공	양상택	서귀포시 안덕면 임중로 15-4 (화순리)	010-5293-9396
애월읍	양경택	제주시 노형동 920-14 청원꽃집	010-3691-6269
한림읍	양유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61 꿈의 바다	010-3691-1669
남원읍	양희철	서귀포시 남원읍 대화로 16길 5 (위미리)	011-696-3481
보 목	양남호	서귀포시 보목동 720	010-3697-8701
화 순	양상택	서귀포시 안덕면 임중로 15-4 (화순리)	010-5293-9396

역대 파 종친회장 명단

□ 사직공파

代數	姓名	任期	代數	姓名	任期
初代	梁南躔	1958~1961	15代	梁彰珍	1990~1991
2代	梁成洙	1962~1965	16代	梁斗生	1992~1993
3代	梁成洙	1966~1969	17代	梁斗吉	1994~1995
4代	梁弼	1970~1970	18代	梁斗吉	1996~1996
5代	梁在九	1971~1971	19代	梁燦熹	1997~1997
6代	梁成洙	1972~1973	20代	梁燦熹	1998~1999
7代	梁重海	1974~1975	21代	梁斗吉	2000~2001
8代	梁重海	1976~1977	22代	梁映鍾	2002~2003
9代	梁重海	1978~1979	23代	梁映鍾	2004~2006
10代	梁重海	1980~1981	24代	梁奉圭	2007~2008
11代	梁重海	1982~1983	25代	梁文熙	2009~2010
12代	梁東柱	1984~1985	26代	梁昌完	2011~2012
13代	梁東柱	1986~1987	27代	梁永祚	2013~2014
14代	梁彰珍	1988~1989	28代	梁松男	2015~현재

□ 천호공파

代數	姓名	任期	代數	姓名	任期
初代	梁 洪 基	1967.2.~1968.1.	11代	梁 錫 珍	2000.9.~2002.1.
2代	梁 富 昌	1968.2.~1969.1.	12代	梁 宇 喆	2002.2.~2004.1.
3代	梁 富 昌	1969.2.~1979.1.	13代	梁 錫 珍	2004.2.~2006.1.
4代	梁 錫 秋	1979.2.~1988.1.	14代	梁 鳳 海	2006.2.~2008.1.
5代	梁 龍 海	1988.2.~1992.1.	15代	梁 鳳 海	2008.2.~2009.1.
6代	梁 成 八	1992.2.~1994.1.	16代	梁 吉 淵	2009.2.~2010.1.
7代	梁 宰 熏	1994.2.~1996.1.	17代	梁 達 彬	2010.2.~2012.1.
8代	梁 成 八	1996.2.~1998.1.	18代	梁 正 秀	2012.2.~2014.1.
9代	梁 太 官	1998.2.~2000.1.	19代	梁 政 寶	2014.2.~2015.1.
10代	梁 太 官	2000.2.~2000.6.	20代	梁 龜 河	2015.2.~현재

□ 중랑장공파

代數	姓名	任期	代數	姓名	任期
初代	梁 常 鍾	1986.~1987.5.	9代	梁 文 華	2003.4.~2005.4.
2代	梁 贊 英	1987.5.~1989.4.	10代	梁 文 華	2005.4.~2007.4.
3代	梁 贊 英	1989.4.~1991.4.	11代	梁 城 洪	2007.4.~2009.4.
4代	梁 贊 英	1991.4.~1995.8.	12代	梁 城 洪	2009.4.~2011.4.
5代	梁 相 麟	1995.8.~1997.4.	13代	梁 城 洪	2011.4.~2013.4.
6代	梁 相 麟	1997.4.~1999.4.	14代	梁 八 珍	2013.4.~2015.4.
7代	梁 正 寶	1999.4.~2001.4.	15代	梁 八 珍	2015.4.~현재
8代	梁 正 寶	2001.4.~2003.4.			

역대 삼성사재단 헌관 명단

• 초 : 초헌관 아 : 아헌관 종 : 종헌관

연도	춘기대제	추기대제	건시대제	연도	춘기대제	추기대제	건시대제
1921			종 梁應祥	1976	종 梁升勳	아 梁箕祥	
1937		아 梁致謙		1977	초 梁龍大	종 梁相休	
1938	초 梁應祥	아 梁龜淵		1978	아 梁鶴兒	초 梁正圭	
1939	아 梁彦祥	초 梁鍾祥	초 梁翔龍	1979	종 梁八桂	아 梁奎玉	
1940	종 梁洙炳	아 梁泓箕	아 梁彦祥	1980	초 梁聖弼	종 梁昌宇	
1941	초 梁致謙	아 梁秉豪		1981	아 梁玄淑	초 梁達呂	
1942	아 梁達燁	초 梁秉豪		1982	종 梁性柱	아 梁致亨	
1943	아 梁瑞河	종 梁基殷		1983	초 梁在港	종 梁榮化	
1944	초 梁聖廈	아 梁漢鐘	초 梁景熙	1984	아 梁柄鉉	초 梁致鍾	
1945	아 梁信彬 종 梁翼濟	초 梁翔龍		1985	종 梁重允	아 梁京休	종 梁慶滿
1946	아 梁斗樞	종 梁達海		1986	초 梁學植	종 梁京贊	
1947	초 梁致謙	아 梁成浩	아 梁基殷 종 梁重培	1987	아 梁辛玉	초 梁榮竣	
1948	아 梁奉洽	초 梁龜淵		1988	종 梁志橋	아 梁性柱	
1949	아 梁翼濟	아 梁在淳		1989	초 梁在奉	종 梁昌成	
1950	초 梁翼濟	종 梁君錫		1990	아 梁柱淳	초 梁義錫	
1951	아 梁瀛鵬		아 梁瀛鵬	1991	종 梁基龍	아 梁昌豪	
1952	종 梁達海	아 梁奎烈	종 梁重培	1992	초 梁學承	종 梁相範	
1953	초 梁翼濟	종 梁重培		1993	아 梁會根	초 梁昌豪	
1954	아 梁從備	초 梁達胤		1994	종 梁柄龜	아 梁卯生	

• 초 : 초헌관 아 : 아헌관 종 : 종헌관

연도	춘기대제	추기대제	건시대제	연도	춘기대제	추기대제	건시대제
1955	종 梁聖弼	아 梁燦休	초 梁致謙	1995	초 梁東潤	종 梁在守	
1956	초 梁性弼	종 梁致澤		1996	아 梁炯彬	초 梁斗京	
1958	종 梁重敎	아 梁成弘		1998	초 梁性奎	종 梁炳淵	
1959	초 梁瀛鵬	종 梁峯熙		1999	아 梁性奎	초 梁承好	
1960	아 梁重燮	초 梁圭烈		2000	종 梁奉鎰	아 梁東鎭	
1961	종 梁致澤	아 梁成洙		2001	초 梁元哲	종 梁倫碩	
1962	초 梁重培	종 梁京眞		2002	아 梁完湖	초 梁性厚	
1963	아 梁性心	초 梁性卓		2003	종 梁致允	아 梁炳翊	종 梁行九
1964	종 梁恂植	아 梁重敎	종 梁致澤	2004	초 梁徽錫	종 梁映鍾	
1965	초 梁漢鍾	종 梁達孝		2005	아 梁燦熹	초 梁榮植	
1966	아 梁錫秋	초 梁成洙		2006	종 梁太官	아 梁文華	
1967	종 梁恒衍	아 梁贊玉		2007	초 梁炳基	종 梁奉進	종 梁文熙
1968	초 梁亨涉	종 梁達祐		2008	아 梁鉉萬	초 梁成彦	
1969	아 梁恒議	초 梁富昌		2009	종 梁致福	아 梁昌憲	
1970	종 梁昌旭	아 梁燦休		2010	초 梁奎明	종 梁乙勳	
1971	초 梁俊模	종 梁致淵		2011	아 梁永宗	초 梁萬基	
1972	아 梁晶河	초 梁重敎		2012	종 梁學良	아 梁民雄	종 梁龍昌
1973	종 梁致鍾	아 梁鍾熙		2013	초 梁惠錫	종 梁龍熙	
1974	초 梁致澤	종 梁應哲		2014	아 梁鄭權	초 梁東舜	
1975	아 梁鍾錫	초 梁會卿		2015	종 梁龜河	아 梁致福	

역대 진승원 헌관 명단

연도	헌관	성명	
		광덕전	영경사
1999	초헌관	梁斗平	梁重海
	아헌관	梁會文	梁宰熏
	종헌관	梁常吉	梁昌成
2000	초헌관	梁承好	梁基龍
	아헌관	梁福萬	梁淳鎬
	종헌관	梁漢鐸	梁京贊
2001	초헌관	梁 柁	梁常鍾
	아헌관	梁會伯	梁燦熹
	종헌관	梁仁龍	梁桂沃
2002	초헌관	梁性奎	梁昌豪
	아헌관	梁章淵	梁奉鎰
	종헌관	梁在榮	梁文華
2003	초헌관	梁正美	梁元球
	아헌관	梁在協	梁致福
	종헌관	梁昌男	梁容奎
2004	초헌관	梁東浩	梁東鎭
	아헌관	梁斗生	梁文熙
	종헌관	梁景昊	梁奉進
2005	초헌관	梁惠錫	梁相範
	아헌관	梁鍾矩	梁德河
	종헌관	梁城洪	梁健弘
2006	초헌관	梁東院	梁泰鳳
	아헌관	梁基赫	梁聖杓
	종헌관	梁榮吉	梁恒淳
2007	초헌관	梁一雄	梁性河
	아헌관	梁金錫	梁在植
	종헌관	梁鳳海	梁尙秋

연도	헌관	성명	
		광덕전	영경사
2008	초헌관	梁正培	梁龍熙
	아헌관	梁鉉成	梁鳳海
	종헌관	梁鄭權	梁虎男
2009	초헌관	梁在協	梁吉淵
	아헌관	梁大柱	梁性孝
	종헌관	梁泰鳳	梁龍錫
2010	초헌관	梁東河	梁完湖
	아헌관	梁漢俊	梁永祚
	종헌관	梁淳明	梁達彬
2011	초헌관	梁在吉	梁斗吉
	아헌관	梁映鍾	梁泰秀
	종헌관	梁城洪	梁八珍
2012	초헌관	梁會安	梁乙勳
	아헌관	梁在瑚	梁汝錫
	종헌관	梁達彬	梁仲根
2013	초헌관	梁承晁	梁八珍
	아헌관	梁亨模	梁在八
	종헌관	梁魯鎭	梁永旭
2014	초헌관	梁碩承	梁東震
	아헌관	梁甲容	梁性弘
	종헌관	梁致福	梁仁必
2015	초헌관	梁海權	梁奉進
	아헌관	梁學烈	梁完淳
	종헌관	梁勝普	梁元好

삼성사재단 장학생 명단

▣ 2015년도 삼성사재단 장학생 명단

연번	성명	학교 및 학년	주소	전화번호
1	양미래	제주한라대 3학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3길 6	010-8427-7878
2	양혜정	경희대 2학년	제주시 용담11길 5	010-9690-2481
3	양나은	제주대 3학년	제주시 도남동 성환 [㉠] 306호	010-2255-9908
4	양지원	한라대 2학년	서귀포시 서문로 38길 18-9	010-5060-3256
5	양경현	제주대 2학년	제주시 광평중길 9 퍼스트빌1차 301호	010-2656-6617
6	양현서	울산대 3학년	서귀포시 안덕면 임중로 7길 24-4	010-4581-8877
7	양윤정	제주대 2학년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143길 71-38	010-4042-2874
8	양제현	경희대 4학년	제주시 아라1동 아라아이파크 106/404	010-2714-9170
9	양휘철	한양대 4학년	제주시 노형동 수덕로 44 뜨란채 [㉠] 205/705	010-6707-5303
10	양준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82-3 화신오피스텔 503호	010-2734-1987

건승원 대제 헌성자 명단

▣ 2015년도 헌성자 명단

순위	헌성자	금액	주소	비고
1	양 해 권	1,000,000	대구시 중구 대봉동 147-18	광덕전 초헌관
2	양 봉 진	1,000,000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6길 36-7	영경사 초헌관
3	양 석 승	500,000	경북 경산시 옥산동 793 양지요양병원	중앙종친회장
4	양 학 렬	500,000	제주시 이도2동 376	광덕전 아헌관
5	양 승 보	300,000	애월읍 수선서 3길 15-8	광덕전 종헌관
6	양 완 순	300,000	제주시 용담2동 696-10	영경사 아헌관
7	양 원 호	200,000	제주시 노형동 911-4	영경사 종헌관
8	양 회 정	200,000	광주시 서구 쌍학로 47, 101/1111	한라군 대총회장
9	양 성 언	200,000	남원읍 의귀리 416	前 교육감
10	양 인 용	200,000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146	인천종친회장
11	남원읍종친회	200,000	남원읍 신례로 268-2	(회장 양용식)
12	서귀포시종친회	200,000	서귀포시 보목동 1488	(회장 양민웅)
13	양 봉 규	100,000	제주시 용남2길 24-1	前종회총본부 회 장
14	증량장공파종친회	100,000	제주시 제원4길 21, 601호	(회장 양팔진)
15	남원읍청년회	100,000	남원읍 대화호 16길 5	(회장 양희철)
16	수익부위공계	100,000	제주시 고마로 11길 4-8	(회장 양성범)
17	양 봉 해	100,000	제주시 서사로 106	前종회총본부 회 장
18	양 석 후	100,000	제주시 월랑북 3길 9	종회총본부 부회장
19	양 종 구	100,000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5, 23/115	예성군파 대총회장

순위	헌성자	금액	주소	비고
20	양 영 조	100,000	제주시 만덕로 3길 26, 105/705	종회총본부 상임고문
21	사직공파종친회	100,000	제주시 용화로 10길 30	(회장 송남)
22	양씨여성종친회	100,000	제주시 연화로 25, 대림2차㉔ 204/601	(순강회장 외 종친일동)
23	양 용 해	100,000	제주시 삼도1동 305-33	종회총본부 고 문
24	양 용 수	100,000	제주시 외도1동 643-5	한단이계 이 사
25	양씨여수변영회	100,000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61, 104/1002	(회장 양창승)
26	천호공파종친회	100,000	제주시 관덕로 8길 3-1	(회장 양구하)
27	양 창 종	100,000	애월읍 광령리 1204-2	종회총본부 이 사
28	양 창 헌	100,000	제주시 노형동 1288-5	종회총본부 부회장
29	양 우 철	100,000	제주시 노형동 1272-2 삼다빌라트 803호	前종회총본부 회 장
30	양 만 식	100,000	제주시 서광로 22길 32	종회총본부 이 사
31	애월읍청년회	100,000	제주시 노형동 920-14	(경택회장 외 청년일동)
32	양 방 육	100,000	서귀포시 서귀동 284-17	종회총본부 이 사
33	예촌계종친회	100,000	남원읍 태위로 793	(순명회장 외 종친일동)
34	양 조 훈	100,000	제주시 오라로 80	前환경부지사
35	애월읍종친회	100,000	애월읍 수선서 3길 15-8	(회장 양승보)
36	양 판 우	100,000	애월읍 소길리 23	前종회총본부 감 사
37	양 병 우	100,000	서귀포시 강정동 125-2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38	양 진 혁	100,000	애월읍 수산서 3길 15-11	법무사
39	양 대 성	100,000	제주시 노형동 부영㉔ 505/103	종회총본부 상임고문
40	양 중 선	100,000	애월읍 하귀 7길 30-6	
41	한림읍종친회	100,000	한림읍 한림리 988	(회장 양우용)
42	삼성사재단	100,000	(이사장 부만근)	
43	제주부씨대종회	100,000	(회장 부삼환)	
44	고씨종문회총본부	100,000	(회장 고시홍)	
45	와룡계종친회	50,000	제주시 용문로 17길 29-3	(회장 양명일)
46	좌면계문중회	50,000	제주시 고마로 5길 24-12	(회장 양사순)
47	양 동 현	50,000	제주시 노형동 1049-1 일품다세대 301호	삼성사재단 업무부장
48	양 영 부	50,000	제주시 삼도2동 941 밀레니엄㉔ 501호	종회총본부 이 사

순위	헌성자	금액	주소	비고
49	양 방 규	50,000	제주시 중앙로 359, 602호	총회총본부 이 사
50	양 경 목	50,000	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삼호마을	제주양씨 유격공계
51	양 군 효	50,000	조천읍 곱은달길 22-4 (대흘2리)	총회총본부 이 사
52	양 용 식	50,00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50	대구총친회장
53	양 회 안	50,0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28	중앙총친회 자문위원
54	양 정 성	50,0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중앙총친회 자문위원
55	양 금 석	50,000	남원읍 신례로 298길 3-3	총회총본부 고문
56	중량장공파	50,000	한림읍 금능1길 4	금능총친회 (회장 영재)
57	양 석 봉	50,000	남원읍 태위로 101	
58	의귀총친회	50,000	(회장 승철)	
59	양 동 진	50,000	서귀포시 서귀동 272-19	총회총본부 이 사
60	화북문중회	50,000	제주시 서광로 26길 8-15	(회장 양윤수)
61	양 태 관	50,000	제주시 중앙로 22길 21	총회총본부 고문
62	양 광 호	50,000	제주시 사라봉 7길 6 로얄빌라 501호	총회총본부 부회장
63	양 여 석	50,000	제주시 삼도1동 791-10	前총회총본부 부회장
64	양 길 종	50,000	제주시 동성길 76-8, 202호	
65	한단이계총친회	50,000	제주시 정존 13길 23, 영진1차㉔ 201호	(회장 양구해)
66	양 동 진	50,000	제주시 연동 313-35	총회총본부 고문
67	양 봉 관	50,000	애월읍 광령1리 9길 4	천호공파 이사
68	양 태 성	50,000	애월읍 광령리 (광령1리 이장)	광령1리 이장
69	양 정 하	50,000	제주시 노형 7길 10	총회총본부 이 사
70	양 재 순	50,000	제주시 연동 1951-1, 3층	총회총본부 부회장
71	양 창 길	50,000	제주시 대원길 13 (아라1동)	천호공파 이사
72	남지당계문중회	50,000	제주시 남녕로 54, 604호	(회장 양병택)
73	주한라산소주	소주 5상자	(대표 현재웅)	
74	주제주막걸리	3상자	(이사 정동심)	
75	주제주개발공사	삼다수50상자	(사장 김영철)	
76	만월도량	술, 빵 1상자		
합계	76명	9,400,000원, 소주8상자, 삼다수 50상자, 술, 빵 1상자		



양씨종회총본부회장
양 정보
(梁 政 寶)

崇先 愛族 裕後의 情神을 살리자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양문은 탐라를 개국하신 양을라 성왕의 후예로서 현재까지 50만에 이르는 후손들이 번창하여 선조님들의 숭고한 위업과 유덕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종친들이 崇先, 愛族, 裕後를 실현함으로써 사회 각지에서 나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양문으로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연적 유대보다 더 숭고하고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孝와 忠 그리고 愛族의 근본은 이러한 崇先 愛族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보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협력하여, 혈연적 유대와 함께 정서적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여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裕後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이어받아 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종문의 번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탐라양씨 건승원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되어 양문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예절을 숭상하면서 희망이 가득한 사회의 건설에 앞장서며, 국가발전에 주역이 될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 이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합심하여, 종문의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양문(梁門)이 갖는 자긍심(自矜心)

2016년 병신(丙申) 새해를 맞아 양씨종회총본부에서 송조(崇祖) 추원(追遠)의 보본(報本)인 양씨종회보(梁氏宗會報)를 발간하게 됨을 양문(梁門)의 후예로서 전국의 종친들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행하는 종회보가 전국의 양문들이 양문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매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양문(梁門)이 어떤 가문입니까? 탐라국을 개국하신 양을나(良乙那) 성왕의 후예들입니다. 양을나(良乙那) 성왕이 발현하신 곳, 삼성혈(三姓穴)에 뿌리를 내리고 단군기원과 연대를 같이하는 5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명문(名門)입니다. 그럼으로 양을나(良乙那) 성왕의 후예 곧 왕손이라는 사실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곧 양문이면 모두가 가져야 할 자랑스러운 자긍심(自矜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양문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뿌리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오신 선조님의 훌륭한 삶을 추적해 보고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뿌리교육이고 종헌(宗憲)의 숭선(崇先)을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양문(梁門)의 본향(本鄉)인 제주도 건승원(乾承原)에 탐라 문화재단(耽羅文化財團)의 설립을 보게 되어 이곳이 뿌리교육의 요람으로 활용됨으로써 양문의 후예들에게 양문이 지녀야 할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장이 마련되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양문들은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耽羅梁氏乾承原文化財團)이 후손들에게 양문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심은 물론 삼성혈(三姓穴)과 건승원(乾承原)을 찾는 일이 뿌리교육을 위해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지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상의 훌륭한 업적을 기림은 양문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는 길이며, 높은 자긍심은 애족(愛族)으로 이어져 양문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후손을 명문의 후예로 훌륭하게 육성하겠다는 유후(裕後)의 정신으로 승화되어 양문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명문으로 더욱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문은 양을나(良乙那) 성왕의 후예인 왕손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숭선(崇先), 애족(愛族), 유후(裕後)의 종헌을 실현하는 일에 정진합시다.

끝으로 종회보 발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양씨중앙종친회장
양 석 승
(梁 碩 承)

축·사



고·양·부
삼성사재단이사장
부만근
(夫萬根)

양문(梁門)의 결속을 위한 광장(廣場)이 되기를

양씨종회총본부가 2016년도 종회지(宗會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양문(梁門)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명문으로서, 종회총본부가 구심점이 되어 종헌이 표방하고 있는 숭선(崇先), 애족(愛族), 유후(裕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건승원 대제의 봉행을 비롯한 선조에 대한 추모와 공경, 종친들의 단합과 협력, 후세를 위한 육영, 어려운 종친에 대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어 다른 종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씨종회총본부에서 종회지를 꾸준히 발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종회지는 단순한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종친들의 화합·단결과 함께 종사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발간된 종회지가 종회의 사업들과 종친들의 근황을 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종친들이 종회발전을 위해 서로 토론하면서 새로운 구상과 사업을 창출하고 종문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 광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삼성사재단에서는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우리의 성조(聖祖)이며 탐라를 개국하신 삼을나(三乙那)님의 위업을 기리고 고·양·부 삼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존숭봉사(尊崇奉祀), 사적지 보호, 장학금 지급, 탐라문화상 시상을 비롯한 공익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혈 성역화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지방비를 포함한 8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관람로 박석교체 1차 공사, 건물단청 공사를 이미 마쳤으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홍보용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사재단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신 양정보 회장을 비롯한 양씨종회총본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성사재단은 올해에도 국비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관람로 박석교체 2차 공사, 돌담 보수공사, 주차장 정비공사 등이 추진됩니다. 이들 공사가 끝나면 1단계 삼성혈 성역화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사업과 함께 올해 삼성사재단에서는 삼성(三姓)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축제형식의 행사를 3월쯤에 개최하기로 하여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삼성 모든 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성조(聖祖) 삼을나(三乙那)님의 후손이라는 뿌리의식 아래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형제애를 다지면서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삼중문회의 후원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삼중문회 산하 청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는데, 보람 있고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계획은 삼중문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시키겠습니다.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이 행사에 양씨종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양씨종회총본부의 종회보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양씨종회총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양씨종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선조의 역사

1. 최초로 몽고와 접촉한 탐라왕자

■ 양호(梁浩)

삼별초가 제주에 입성하기 4년 전 탐라인으로는 최초로 몽고에 입조(入朝)하여 몽고의 왕을 알현하고 돌아온 인물로 여러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몽고에서 돌아와 문행노(文幸奴)가 일으킨 민란을 진압하였다고 전한다. 이 외에 양호에 관한 행적은 전하는 것이 없다. 심재 김석익은 「탐라인물고」에 다음과 같이 양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양호는 탐라의 왕자이다. 처음 양을나(良乙那)가 탐라의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나서 섬에 살 곳을 정하였고, 그 후손인 탕(宕)이 처음으로 신라와 왕래하여 양(良)을 양(梁)으로 고쳤으니 자손들은 왕자의 작위를 세습하였다. 고려 천수(天授 : 고려 태조 때의 연호) 초에 왕자 양구미(梁具美)가 있었는데 양호는 그 후손이다. 고려 원종 7년(1266) 겨울 12월에 (고려의 사신으로) 몽고에 입조(入朝)하니, 몽고의 왕이 후하게 대우하여 화려한 옷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다음 해에) 탐라에 돌아옴에 이르러 초적(草賊 : 줌도둑) 문행노(文幸奴)가 난을 일으켜 장평(長坪 : 현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에 진(陳)을 치니 양호가 부사(副使) 최탁(崔托)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하여 평정했다.” (『심재집2』 393쪽)

여기에서 양호가 성주(星主)였는지 왕자(王子)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문종 때 완성된 『고려사』와 중종 때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주로, 효종 때 쓰여진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왕자로 기록되어 있다. 심재는 이원진의 『탐라지』를 인용하여 양호를 왕자라 하였다.

몽고가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1231년으로 1257년까지 7차례나 있었다. 당시 고려는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여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항정하였으나 1258년 항복을 결의하니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탐라와 몽고와의 접촉은 1266년 성주 양호가 고려왕을 찾아 뵈었을 때 몽고에 다녀오라고 한 기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원세조가 남송 및 일본 정벌에 탐라를 전략상 요충지로 생각하여 고려를 통해 탐라 사신의 입조를 중용했던 것으로, 이듬해에 성주가 입조하자 원세조는 탐라주변의 해로 및 지형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1년 뒤에 원세조는 두 차례나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여 탐라와 흑산도의 지형을 조사하였으며 고려에는 군사 1만 명의 징발과 선박 1천 척을 만들게하고 탐라에는 1백 척을 따로 만들게 하였다. 1280년 원은 전선 9백여척에 군사 3만3천 명을 동원하여 1차 일본 정벌에 나섰으나 태풍을 만나 실패하였다. 이듬해에는 제주 장병들을 강압적으로 징발하여 전선 4천5백 척에 14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제2차 일본 정벌에 나섰으나, 때마침 강한 태풍의 내습으로 전선이 모조리 침몰되어 겨우 1천7백여 명이 돌아오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일본인들은 이 바람을 호국신평이라고 한다.

탐라와 몽골의 접촉은 고려 원종 8년(1267) 정월에 처음 이뤄졌다. 중국문헌인 ‘원사(元史)’에 ‘백제가 양호를 보내 알현하자 아름다운 비단옷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양호가 원종대의 탐라의 성주라는 사실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 있다.

‘탐라가 남송과 일본의 요충이기에 주목했다.’는 당시 몽골황제 세조(쿠빌라이)가 탐라의 성주 입조를 고려에 명하고 이에 따라 알현이 이뤄졌다. 일본, 남송에 대한 회유와 함께 세조는 탐라의 성주를 불러들여 주변정세를 미리 파악해 두고자 하는 뜻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의 삼별초 대몽항쟁이 막을 내리게 되자 몽골은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라는 관부를 설치했다. 탐라를 일본과 남송정벌의 전초·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직할령으로 삼은 몽골은 한편으로는 목마장을 설치해 몽골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키우는 등 제주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 차례의 일본 정벌이 실패하고, 이에 집착하던 황제 쿠빌라이가 충렬왕 20년(1294) 세상을 뜨자 이때부터 80여 년간 제주는 고려와 몽골을 수 차례 오가며 귀속됐다. 제주가 양국에 이중 귀속되는 미증유의 처지에 빠져든 가운데, 탐라 국립목장에서 산출되는 말·소·쇠고기·버터류 등의 방물을 거둬가는 몽골의 경영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주사회의 주도권은 공민왕대(1352~1374년)에 이르러서는 ‘하치’라고 불린 목호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탐라 국립목장에 배속돼 말과 소 등의 사육을 관할하던 몽골족이었던 이들 ‘하치’들은 100여

년 간 제주가 몽골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가운데 제주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몽골이 제주에 설치한 국립목장은 역사상 단일국가로서 최대의 판도를 형성한 몽골의 세계정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마(戰馬)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제주에서의 목축산업이 성공을 거두자 몽골은 충렬왕 26년(1300) 무렵에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했으며 ‘하치’를 더욱 많이 파견하게 되고, 이들이 제주의 목호세력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 이전의 제주 마을은 해안지대를 끼고 형성됐다. 농경만으로는 생활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반농반어(半農半漁) 형태의 생업활동을 통해 먹거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제주의 생활형태는 14세기 초 무렵 탐라목장이 몽골의 국립목장이 될만큼 번성하면서 중산간지대에도 마을이 형성되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중산간 마을의 형성은 이곳에서 방목되던 우마의 사육을 위한 몽골족의 입도(入道)에 의한 것으로 몽골이 제주에 대해 어떠한 지배정책을 전개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몽골의 직할령화가 이뤄졌던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착세력을 통해 이뤄졌으나 제주는 몽골이 직접 사람을 보내 지배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김일우 박사는 “제주에 대한 몽골의 직접 지배는 제주가 그들이 필요로 하던 전마(戰馬)를 생산하고, 일본과 남송을 정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활용성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제주에 들어온 상당수의 몽골족과 제주 여인과의 혼인 등을 통해 늘어난 인구가 주 생활터전인 제주 중산간을 중심으로 모여 살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성년이 되면 하급 ‘하치’ 또는 관리직으로 국립목장 운영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려는 원의 직할령이던 제주가 환속되는 충렬왕 20년(1294)부터 지배력 강화의 조치를 취해 ‘탐라’라는 칭호를 버리고 ‘제주’라는 명칭을 복구시키며 제주목으로 개편한다. 목(牧)은 경(京)과 도호부(都護府)의 격을 지닌 행정단위로 최상의 독자적·개별적 행정단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제주목으로 개편된 이후부터는 오늘날의 도와 같은 위상을 지닌 고려의 최상급 지방행정단위가 된 것이다.

2. 탐라왕자묘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대정군읍지』와 김약익의 『심재집』 등 문헌 기록과 지역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탐라 왕자의 무덤이라 한다. 그러나 무덤은 3기이며, 형태로 보아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제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돌덧널무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돌덧널무덤(方形石槨墓)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유력집단의 묘제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형분은 모두 능선상에 입지하며 부부묘역이거나 집단묘역을 이룬다. 먼저 지형을 평평하게 깎은 뒤 판석을 사용하여 장방형으로 석곽(石槨)을 돌려 축조하고 정 중앙에 북향으로 목관을 안치하는 외석곽(外石槨) 내목관(內木槨)의 장방형 석곽목곽분 형태이다.

하원동 탐라왕자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21번지 외 2필지에 자리한다.



묘역은 해발 224m의 나지막한 능선상에 자리하며 이 곳 지명을 '웃간장'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묘역이 있는 곳을 가래천 변의 '왕자묘[골]'라 부른다. 분묘가 자리한 위치가 한눈에 보아도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맨 상단의 묘가 가장 좋은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2000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서 탐라사(耽羅史)를 정립하려는 일환으로 학술 발굴조사로 실시되었다.

3기의 분묘가 자리한 능선을 보면 3호분이 가장 중심 지형에 있다. 그리고 1호분의 지형이 가장 가파르다. 1호분의 조성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곽의 구조와 각종 석물[비석좌대, 등잔, 문인석]과 계단시설, 축대등으로 미루어 3기의 분묘 중 가장 세력이 있을 때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호분의 남쪽 테두리 돌담이 1호분의 북쪽 테두리돌담[曲牆]에 상부로 지나가면서 1호분의 석열을 다소 파괴하였다. 즉 1호분과 2호분의 테두리 돌담[護石]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1호분과 2호분의 피장자는 서로 강한 연관이 있다.

3호분은 능선의 균형적인 배치상태로 보아 가장 선행하는 묘제로 보인다. 3호분에서 소옥과 관정, 청동그릇편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석곽상부는 미석렬(楣石列)이 있다.

따라서 동분묘군의 서열은 3호분이 먼저 축조되고 다음으로 1호분이, 마지막으로 2호분이 축조되었다. 3호분은 유물로 보아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해당하고 1호분과 2호분은 조선 초기로 판단된다. 『국박유리원판』[140100번] ‘가래천변 장군총 출토유물’이 확실하다면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초에 2호분을 축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원동 탐라왕자묘는 지경 100m 안에 능선을 따라 나란히 3기가 배치되어 있다. 맨 위에 축조된 묘는 단독으로, 중간과 맨 하단의 묘는 2기가 겹쳐있다. 맨 상단의 묘는 북동으로 20도 정도 틀어져 있고 그 밑에 위치한 묘 2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능선 맨 아래쪽의 묘를 2m 높이의 축대를 만들어, 밖에서 보면 상당히 거대한 묘역을 연상하게 한다. 특히 3단 구성의 축대와 곡장형태의 돌담을 만들어 성역화하였다. 이 묘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단식 석곽분이다.

이 묘제에서 출토된 유물은 1914년과 1999년 수습 유물로 나뉜다. 먼저 1914년 출토 유물은 백자병·백자대접·백자접시·청동사발·대접·청동가위 등이다. 1999년 유물은 3호분 출토유물로 청동제사발·소형구슬·철제관정 등이다. 석물로는 1호분 전면 우측에



문인석이 마주보고 서 있으며 두부(頭部)가 소실되어 있다. 좌측의 문인석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전되어 보관 중이다. 1호분 전면에서 소형 비좌(碑座)와 옥개석(屋蓋石), 각 등잔 등이 확인되었다. 이 묘제는 제주시 화북동 거로마을에 위치한 화북동

거로능동산묘와 비교된다. 특히 화북동 능동산 1호 묘는 하원동 2호 묘와 축조방법이 같으며 화북동 2호 묘와 하원동 1, 3호 묘의 축조방법과 장법, 묘제의 형태가 동일하다. 1호분에서 출토된 초기백자편은 『국박유리원판』에 소개된 1914년 수습 하원동분묘 도자기 유물세트와 같은 시기유물이다. 따라서 하원동 탐라왕자묘는 고려 말~조선 초기 도내 유력집단의 묘제로 제주 돌덧널무덤(方形石槨墓)의 대표적인 자료이다.

3. 조선시대 제주목사

■ 양찬(梁讚)

▪ 재임 기간 : 1478년(성종 9) 10월 ~ 1481년(성종 12) 7월

양찬(1443년~1496년)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자는 여옥(汝玉), 호는 남포(蘭浦)이다. 증조부는 양석용(梁碩隆)이고, 조부는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낸 양구주(梁九疇)이며, 부친은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이다. 1465년(세조 10)에 무과에 급제했다. 1468년(예종 1)에 임금이 표신(標信)을 지니지 못한 장수들도 차비문(差備門) 안에 불러서 술을 마시게 했는데, 당시 부장(部將)이었던 양찬이 표신이 없으면 선소(宣召)가 아니라고 하여 홀로 나가지 아니하자 임금이 가사히 여겨 특별히 활 1장(張)과 안구(鞍具), 말 1필을 내려주고 당상관으로 제수하였다.

1474년(성종 5)에 웅천현감(熊川縣監)을 거쳐 제주목사(濟州牧使),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영해부사(寧海府使), 포도장(捕盜將) 등을 역임한 후 1496년(연산군 2)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묘는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다. 아들 양숙(梁淑)은 정주목사(定州牧使)를 지냈다.

■ 양사영(梁思瑩)

▪ 재임 기간 : 1586년(선조 19) 11월 ~ 1589년(선조 22) 10월

조선조의 무신. 선조 때의 제주목사.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재임 중 1586년(선조 19) 11월. 임응룡(任應龍)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입하고 1589년 10월에 떠났다. 함께 재임한 제주관관은 전인복(田仁福)이며 정의현감은 이방좌(李邦左)이고 대정현감은 남응선(南應善)과 최천보(崔天寶) 등이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1587년 2월에 대마도주 종의조(宗義調)가 특별히 보낸 제주 표류인 4명을 우리나라로 송환했다. 조정에서 지시하기를 대마도주가 우리나라 사람을 후대하여

호송하였으니 그 충직한 정성에 대해 좋게 여기며 그 사신에게 관직을 주라 하였다. 동시에 표류인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라오도록 하였다, 한편 1589년 8월 우승지 이유인이 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즉 일본에서 보낸 공작(孔雀)을 해당 조(曹)에 지시하여 처리하게 하여 이웃나라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1409년(태종 9)에 일본에서 코끼리 두마리를 보내 와 태종이 받은 바 있고, 또 1468년(세조 14)에는 원숭이 한 마리와 말 한마리를 보낸 것을 세조가 받은 전례가 있다. 이에 조정에서 지시하기를 "해당 관청에 보낼 수는 없으니 일본의 손님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제주에 가져다가 놓아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 양호(梁護)

▪ 재임 기간 : 1619년(광해 11) 10월 ~ 1622년 10월(광해 14)

광해군 때에 이이첨(李爾瞻) 등과 결탁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1618년(광해군 10) 해상을 방어하고자 삼남(三南) 및 황해도의 전함을 모아 주사도감(舟師都監)이 새로이 설치되자 중군(中軍)에 발탁되었다.

이듬해 제주목사에 임명되자 탐학이 극도로 심하여 여러 차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국왕의 비호로 무마되었다. 그의 탐학상은 제주부가 설치된 이래 가장 심하여 백성들은 호랑이를 대하듯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으며, 특히 당시 제주에 귀양가 있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어머니를 혹독하게 다루었다. 1623년 반정이 일어나 인조가 즉위하자 곧 바로 효수당하였다

■ 양세현(梁世絢)

▪ 재임 기간 : 1771년(영조 47) 1월 ~ 1773년(영조 49)

양세현은 1771년(영조 47)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2년 동안 재임하였다. 재임하는 동안

1772년(영조 48) 제주 삼성혈에 바깥담을 쌓고 소나무를 심었으며 제주 삼성혈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또한 홍화각(弘化閣)을 중수하고 전사청(典祀廳)을 건립하였으며, 우암송시열적려유허비(尤庵宋時烈謫廬遺墟碑)를 세웠다. 이에 양세현의 공적을 기려 1911년 6월에 양세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경기도 남양부사 재임 중인 1771년(영조 47) 2월에 안종규(安宗奎)의 후임으로 제주목사로 부임하였고, 1773년(영조 49) 3월에 죄인을 두둔하였다 하여 체포되었다. 또한 제전(祭田)을 제주목사의 자문 기관인 유향소(留鄕所)에서 사용하도록 배려하여 혈제(穴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숙종 때 유배된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이 생활하던 산저동(山底洞)에 우암 유허비를 세웠다. 당시 제주에 유배와 있던 권진응(權震應 : ?~1775)이 특별 사면을 받아 돌아갈 때 제주 유림에게 세우도록 권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비는 제주특별시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오현단(五賢壇)으로 옮겨져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현의 관리 강시한(康時漢)의 첩 송천향(宋千香)을 열녀로 정표(旌表)하였다. 삼성사에 전사청(典祀廳)을 개건할 때 쓴 「모흥혈단전사청개건기(毛興穴壇典祀廳改建記)」가 전한다.

제주유배인 권진응의 잡저 중 「제주삼성묘절목(濟州三姓廟節目)」과 「단절목(壇節目)」은 제주의 삼성묘(三姓廟) 및 그 제단의 사례(祠禮) 일반에 관한 절목(節目)을 정한 것으로, 목사 양세현(梁世絢)의 부탁으로 지은 것이다

현재 삼성혈은 그 주위가 성역화 되어 있다. 그것은 1526년(중종 21)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그 주위에 돌 울타리를 쌓고 혈(穴) 북쪽에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워 삼성의 후예로 하여금 춘추제를 모시게 하고, 매년 11월 상정일(上丁日)에 도민으로 하여금 혈제(穴祭)를 모시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 뒤 1698년(숙종 24) 유한명(柳漢明) 절제사가 혈(穴) 동쪽에 삼을나묘(三乙那廟, 지금의 三聖殿)를 세우게 하고, 1827년(순조 27) 이행교(李行教) 방어사가 전사청(奠祀廳)을 창건하고, 1849년(헌종 15) 장인식(張寅植) 방어사가 숭보당(崇報堂)을 세워 오늘의 규모가 갖추어졌던 것이다.

※ 양세현목사 관련 비석

▶ 사상양세현기념비(使相梁世絢紀念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삼성로 22)에 있는 제주 삼성혈 경내에 1911년 6월에 세워졌다. 비석의 높이는 77cm, 너비는 28.5cm, 옆폭은 12.5cm이다.

앞쪽 가운데 ‘사상양세현기념비(使相梁世絢紀念碑)’, 앞쪽 오른쪽에 ‘사면장립(四面牆立) 영호초목(永護樵牧)’, 앞쪽 왼쪽에 ‘송림완연(松林宛然) 흠송상전(歆送相傳)’, 뒷면에는 ‘신해(辛亥) 6월 일’이라 음각되어 있다.



■ 양헌수(梁憲洙)

▪ 재임 기간 : 1864년 3월(고종 1) ~ 1866년 8월(고종 3)

1816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자는 경보(敬甫)이다. 부친은 부사정을 지낸 양종임(梁鍾任)이며 모친은 파평 윤씨이다. 그의 조부는 제주목사를 지낸 양세현(梁世絢)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제주목사를 지낸 것이다.

그는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 학문을 익혔으며 이때 최익현(崔益鉉) 등과 교류하였다. 이후 학문보다는 무예에 뜻을 두고 익혔으며, 1848년(헌종 14)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이후 철종 때 참상(參上)에 승진하였다가 평안도 희천군수로 부임하였다. 1859년(철종 10)에는 함경도 갑산부사로 부임하였다.

1865년(고종 2)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관리로서 탐욕을 부린 전판관(前判官) 백기호(白基虎)를 징계하여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들었고, 태풍으로 제주에 심각한 흉년이 들자 구휼미를 풀어 주민구제에 나섰다. 이듬 해 정족산성(鼎足山城) 수성장(守城將)으로 부임하였다. 1866년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 해 프랑스 로즈(Roze) 제독이 7척의 전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는 병인양요가 발생하였다. 양헌수는 공격 선발대 500명의 포수를 이끌고 강화도 정족산성으로 잠입하였다. 11월 6일 프랑스 로즈제독은 조선군이 강화도로 잠입한 사실을 알고 해군 대령 올리비에(Ollibier) 부대 160명을 정족산성을 공격하였고 양헌수 부대는 이들과 전투에서 적군 6명을 사살하고 수십명의 부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고 적의 병기를 다수 노획하였다. 프랑스군은 조선군이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철수하였다.

이 전투는 프랑스 군이 패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공으로 흥선대원군의 신임을 받았으며 한성부 우윤(右尹)에 임명되었다. 좌승지·어영청 중군 등을 거쳐 1869년 황해 병사로 부임하였다. 1873년에는 어영대장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좌포도대장·금위대장 등을 거쳐 1875년에는 형조판서에 올랐다. 1876년 강화도조약 당시 개항을 반대하는 척화론을 주장하였고,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는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에 임명되었다가 1884년 공조판서를 거쳐 1887년(고종 24) 독련사(督鍊使)에 천거되었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와 전투에서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직접 체험하며, 앞선 기술문명을 접했지만 보수적인 척화론자로서 한계를 보였다. 1888년 11월 7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양헌수는 1864년(고종 1) 2월 14일 제주목사에 임명되어 3월 정기원(鄭岐源)의 후임으로 제주에 부임하였다. 제주목사로 있을 때 『훈민편(訓民篇)』을 저술하여 제주도민을 계도하였고, 1864년 북촌리 김여빈(金汝彬)의 처 정녀(貞女) 고씨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으며, 삼성사에 제전(祭田)을 특별히 내렸다.

전 제주관관 백기호(白基虎)의 탐학을 엄하게 다스려 제주도민의 칭송을 받았다. 1865년(고종 2) 가을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고 조정에 쌀 1천 석을 요청하여 제주도민을 진휼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한 해를 더 재직하게 되었다. 1866년(고종 3) 8월에 승지에 임명되어 이임하였다.

1866년 어영청의 천총(千摠)으로 있을 때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1873년(고종 10) 어영대장에 임명되었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 조약 당시에 개국을 반대하는 척화론을 끝까지 주장하였다. 1884년(고종 21)에 공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1887년(고종 24) 독립사가 되었다.

양헌수 목사와 관련된 비석이 제주도에는 많이 있는데 1867년(고종 4)에 세워진 사상양헌수영세불망비(使相梁憲洙永世不忘碑)가 목관아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에 있다. 1870년(고종 7)에 세워진 목사양공헌수제폐비(牧使梁公憲洙除弊碑)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455-1번지에 있다. 1911년 6월에 세워진 사상양헌수기념비(使相梁憲洙紀念碑)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13번지(삼성로 22)에 있는 제주 삼성혈에 있다.

또한 건립 연대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양헌수 기념비가 두 개 있다. 사상 양공헌수 청덕홀민비(使相梁公憲洙淸德恤民碑)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에, 사상 양공헌수 선정비(使相梁公憲洙善政碑)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에 있다.

※ 양헌수목사 관련 비석

▶ 양헌수 영세불망비(梁憲洙 永世不忘碑)

양헌수는 백성들을 가르쳤고 1865년(고종 2)에 발생한 흉년 때에는 기민 구제에도 힘썼다. 양헌수는 정사를 명백 공평(明白公平)하게 행하였으며, 효열(孝烈)을 현창(顯彰)하고 폐막(弊瘼)을 일소하였다. 양헌수가 제주도를 떠날 때 사녀(士女)들이 길을 메우고 슬퍼하였다. 양헌수의 은공을 기리기 위하여 백성들이 양헌수 영세불망비를 세웠다.

귀부태석(龜趺台石)에 갓돌 없이 세워진 양헌수 영세불망비는 비신(碑身)의 높이가 171cm이고, 너비 윗부분이 70.5cm, 아랫부분이 65cm, 두께가 29cm이다. 귀부는 높이 19cm, 앞길이 106cm, 옆길이 140cm로 총 높이는 190cm에 달한다. 동헌지(東軒址)에 있는 비 가운데에서 이최응비(李最應碑) 다음으로 큰 비석이다.

앞면에는 ‘사상양공헌수영세불망비(使相梁公憲洙永世不忘碑)’라 새겨져 있고, 왼쪽 측면에는 ‘동치 육년삼월일 영목향장리급각청(同治 六年三月日 營牧鄉將吏及各廳)’이라 새겨져 있다. 동치(同治) 6년은 1867년(고종 4)에 해당되므로 그 해 3월 목부(牧府)와 각 관아가 합동으로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양헌수 선정비(梁憲洙 善政碑) : 양헌수는 부임하던 해에 『훈민편(訓民篇)』을 저술하여 백성을 가르쳤고, 다음해 7월에는 큰 비바람으로 모든 곡식이 절종(絶種) 상태에 이르자 성(城)을 돌아보면서 통곡하였다고 한다. 삼성사(三姓祠)의 제전(祭田)을 별도로 설치해 주었고, 효열(孝烈)을 포상하고 폐막을 혁파하는 등 정사가 명백하고 공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여 비를 세웠다.

비신의 너비는 39cm, 두께는 15.5cm, 높이는 74cm로 비의 앞쪽 가운데에는 '사상양공헌수선정비(使相梁公憲洙善政碑)', 앞쪽 좌우로는 '교화가 깊으니 계당나무아래서 쉬고 은택은 곡식을 옮기는 데까지 미쳤다네(化深憩棠 澤及移粟)'이라 적혀져 있다.

▶양헌수 기념비(梁憲洙 紀念碑) : 삼성사(三性祠)의 제전(祭田)을 별도로 설치해 주었고, 효열(孝烈)을 포상하고 폐막을 혁파하는 등 정사가 명백하고 공평하여 비가 세워졌다.

비신(碑身) 너비는 28.5cm, 두께는 12.5cm, 높이는 77cm로 비의 가운데에는 '사상양헌수기념비(使相梁憲洙紀念碑)', 앞쪽 좌우로는 '두터운 덕을 멀리 추모하니 선조의 업적을 계승함이 마땅하다네. 사당 문에 밭을 두니 전보다 빛이 난다네.(追遠厚德 繩武來宜 廟門置田 有光于前)'라고 쓰여져 있고, 뒤쪽에는 '신해 육월 일(辛亥 六月 日)'이라 적혀 있다.



▶ 양헌수 청덕흠민비(梁憲洙 淸德恤民碑) : 부임한 해에 『훈민편(訓民篇)』을 저술하여 백성을 가르쳤다. 삼성사(三性祠)의 제전(祭田)을 별도로 설치해 주었고, 효열(孝烈)을 포상하고 폐막을 혁파하는 등 정사가 명백하고 공평하였다. 이 비석은 입장면과 상귀리 두 마을에 세워졌다.

비신(碑身)의 너비는 33.5cm, 두께는 10cm, 높이는 64cm로 비의 앞쪽 가운데에는 '사상양공헌수청덕흠민비(使相梁公憲洙淸德恤民碑)'라 적혀있고, 앞쪽 좌우로는 '부족한 환곡을

면제해준 계책은 녹봉을 정지시켜 빈궁한 이들에게 대여한 것이었다네. 삼년 동안의 교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변됨을 붙잡았다네.(減耗除策 停捧賑窮 三載宣化 一心秉公)이라 새겨져
있다. 비 뒤쪽에는 왼쪽에 ‘엄장면(嚴壯面)’, 오른쪽에 ‘상귀리(上貴理)’라 적혀 있다.

▶ 목사양공헌수제폐비(牧使梁公憲洙除弊碑) : 비에는 ‘필채(이속이 필사한 샅으로
주민들에게 받는 돈)를 면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호적을 작성할 때와 환곡을 수납할 때의 폐단을
막았다.’고 새겨져 있다. 1870년(고종 7) 대정군 중면의 창천리를 비롯한 인근 8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웠다.

※ 양헌수목사 치적

『조선 왕조실록』,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9월 12일(갑술) 1번째기사
: 제주 목사 양헌수가 비바람으로 재난당한 참상을 보고하다 .

제주목사(濟州牧使) 양헌수(梁憲洙)가, ‘7월 21일에 갑자기 동남풍이 크게 일면서 비까지
퍼붓는 바람에 기왓장이 날아가고 돌이 구르고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뽑혔습니다. 좀 오래된
관아 건물은 기울어져 무너지고 낡은 민가들은 떠내려갔으며, 곡식도 온통 결판이 나서 온 섬이
그만 허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리에는 호곡 소리가 서로 이어지고 들판에는 참혹한 기색만
떠돌아 구제하는 일을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이 이곳 수령으로 있으면서
이런 혹심한 재해를 당하여 수십 만의 인구가 굶어 죽어 시체가 구렁을 메우는 탄식을 면치 못할
듯하기에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라고 아뢰니, 방금 자전(慈殿)께서 전교를 내리셨으니
대죄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十二日 濟州牧使梁憲洙以‘七月二十一日, 忽有東南風, 挾雨大作, 飛瓦走石, 折木拔屋,
公廨稍舊者傾頽, 民屋已老者飄沒, 穀物摧剝, 全島便赤. 閭閻號哭之聲相連, 田野慘絕之色無分,
設賑一款, 勢不可待到開春. 而臣職在守土, 值此酷災, 十數萬人口, 將不免填壑之歎, 惶恐待罪’啓
教以‘方有慈教, 勿待罪’)

4. 효자와 열녀

■ 효자 : 양심(梁深)

『조선왕조실록』 1413년(태종 13) 6월 11일(무오) 4번째 기사를 보면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윤임(尹臨)이 '효자와 절부(節婦)로 포상(褒賞)할 만 한 자를 아뢰기를 특히 효자로 전 직장(直長) 문방귀(文邦貴), 제공(提控) 양심(梁深), 생원(生員) 고득종(高得宗) 등은 부친상을 당하여 묘소 곁에다 여막(廬幕)을 짓고, 처음으로 3년의 복제(服制)를 행하여 한 고을이 감모(感慕)하였다'고 했다. (濟州都安撫使尹臨, 啓孝子節婦可褒賞者: '一, 前直長文邦貴, 提控梁深, 生員高得宗等, 丁親喪, 廬墓側, 始行三年之制, 一州感慕')

이로써 보건대 제주도 효자 양심의 당시 직책은 '제공(提控)'이었다. 제공은 본래 원나라에서 서(署)·국(局) 등 말단 행정기관에 두어졌던 하급관직으로, 고려에 이 관직이 설치된 것은 원나라 관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1300년(충렬왕 26)부터 1307년 사이에 순마소(巡馬所)가 순군만호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그 최하위 관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품계와 정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뒤 1369년(공민왕 18)에 순군만호부가 폐지되고 대신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가 설치되면서 두어지지 않았으며,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가 복치 되었지만 그 직제로 부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1313년(충선왕 5)에는 신설된 연경궁제거사의 관직으로 두어졌는데, 이 때 품계는 정7품으로 정원은 2인이었다. 그러나 그 뒤의 연혁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제공(提控)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친왕자에게 준 작호(爵號)이기도 했다. 고려 초기에 사용하다가, 현종 때는 사용하지 않고, 충렬왕 이후 다시 사용하였다. 조선 왕조가 창건된 뒤 얼마동안 고려 충렬왕 이후의 법제를 그대로 사용, 구(舊) 고려 종실(宗室)에 있던 제공(提控)을 부원대군이라 하여 대접하였다. 얼마 뒤 대군으로 대치, 종래의 호칭은 폐지되었다.

■ 열녀 : 전형원의 아내 제주양씨

순조 34년(1834)에 한응호(韓應浩) 겸방어사의 명을 받아 김영락(金英樂)이 참한 《孝烈錄》 '烈女條'에는 “양씨는 본주 我羅好里 儒生전형원의 아내이다. 시집가는 해부터 남편의 병이



▲양씨열녀비

위독하자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였고 밤낮으로 하늘에 축원하며 자기 몸으로 남편의 병을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다음해에 이르러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게 되니 겨우 성복(成服)이 지나서 집안에만 있으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돌아눕지도 못하였다. 남편을 장사지내기 전에 조용히 죽음을

택하여 남편과 함께 같은 무덤에 묻히었다. 갑술(甲戌)년(1841)에 암행어사 이재수(李在秀)가 조정에 아뢰어 정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열녀비인 열녀양씨지려(烈女處士田亨元妻孺人濟州梁氏之間)는 현재 제주시 아라1동 650번지에 있다. 높이 64.5cm, 너비 37.5cm, 두께 10.5cm로 비문 앞에는 '烈女處士田亨元妻孺人濟州梁氏之間'이라고 두 줄로 쓰여 있으며, 앞쪽 오른쪽에 '純廟丙子七月日 命旌', 왼쪽 면에는 '後七十九年 甲午 正月 日 改之于石'이라고 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연상의 남편과 백년해로의 언약으로 약혼을 하였으나 바로 그 해에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열녀 양씨는 남편을 가매장하고 사후혼례식을 올린 다음 계속 남편의 정을 못이겨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 출입을 하지 않다가 한 달 후에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자, 양씨의 열녀상(烈女像)이 세상에 알려져 남편과 합장하고 이 열녀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제주시 아라1동 631 ~ 제주시 아라1동 735-8 구간인 약 0.8km를 “열녀길”이라고 명명되었다.

5. 의인(義人), 기인(奇人), 명인(名人)

■ 의인 양제해(梁濟海)

양제해(1770년 : 영조 46 ~ 1814년 : 순조 14)는 그동안 민란의 수괴로 오인되기도 했고 제주자치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괴나 선각자라기보다는 당대의 제주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했던 의인이었음이 드러났다.

과거의 관찬 기록을 보면 그는 제주도 중면(中面) 유향소(留鄕所)에서 풍헌(風憲)을 지낸 부호(富豪)이자 토착세력가로 제주 백성들이 과다한 세금 징수와 온갖 부역에 시달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자, 큰아들 양일회(梁日會)와 고덕호(高德好), 김익강(金益剛) 등과 함께 1813년(순조 13) 12월에 민란을 도모하기로 모의한다.

그러나 거사 며칠 전 윤광종(尹光宗)의 밀고로 그는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에게 일행들과 함께 붙잡혀 곤장에 맞아 죽었는데 이 일로 오랜 동안 제주 자주 국가 건립을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역모죄로 죽은 민란의 수괴로 남게 된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제주도의 선각적 자치운동의 흐름으로까지 확대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산의 제자 이강희의 기록인 「상찬계시말」의 공개로 사실은 그의 죽음이 제주 아전의 상찬계 조직의 치밀한 조작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었음이 밝혀졌다.



▲제주시 아라동 속칭 '갈머리'에 위치한 양제해의 묘

양제해는 제주섬의 향관(鄕管)이었다. 1770년에 태어났고, 1813년 음력 11월 1일, 모변사건으로 생을 마쳤으니, 그의 나이 44세 때다. <양제해전>에 의하면, 집안이 가난하여 문장을 배우거나 글자를 익히지는 못했지만, 사람됨이 공평함을 선호하고 애민정신이 지극했다. 그는 제주목의 중면(中面) 거마촌(巨馬村, 지금의 아라동 갈머리)사람이었다.

그는 1813년(순조 13) 음력 10월 30일, 풍헌인 양제해가 공식적으로 고지하여 소집한

취회(聚會)에 30여 명의 백성들이 제주읍 중면 거마촌에 모인다. 현장(憲長)으로서 민생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다. 이 모임에서, 극을 더해가는 '상찬계(相贊契) 아전들의 민폐'에 대한 백성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상찬계(相贊契)란 관아에서 일을 보는 중인계층의 토착민으로 이루어진 제주섬의 아전(衙前)들의 친목계를 말하는데, 상찬이란 말 그대로 '같은 부류들끼리 모여 서로 힘을 보태는 계(契)모임'이다. 서로를 돕는다는 이들 계조직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돈[錢]을 '신(神)'으로 부르며, 돈만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 이를 추구하는 동류집단인 것이다.

당시 '상찬계의 폐단'을 열거해 보면, 목장전의 경작 허가, 미역 산지의 세금 징수, 소의 밀도살이나 투전(馬用)을 하다 걸린 죄를 벌금으로 내는 일, 술주정을 법으로 금하는 일, 산 소송[山訟], 땅 소송[地訟], 군역 징집, 목자(牧者, 테우리)의 역(役)을 충원하는 일, 불효자, 불목자(不睦者) 등은 양민에서 사회적 지위를 강등시켜 제주의 노역 가운데 가장 비천한 것으로 여긴 테우리로 강등시켜 끝내는 뇌물을 바치게 하였고, 2현 9진(鎭)에 소속돼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 지방관부의 공사, 민원처리에 따른 부채, 비리의 소송, 현과 진에서 벌어지는 잘못을 집어내어 트집 잡는 일, 풍헌과 약정(約正, 향약단체의 임원)을 공갈(恐喝)해 뇌물을 갈취하는 것 또한 상찬계가 취하는 기본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민폐에 대해 양제해는 "백성들을 위해 한 목숨을 바치겠노라."라며 결연히 장두(狀頭)로 나설 것을 약속하고, '등소'(等訴 : 백성들이 연명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아에 올려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일)할 것을 결의한다. 하지만, 당장 언제 일을 도모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그러나 양제해의 친구였던 윤광종(尹光宗)이 이 사실을 그의 상전이자 상찬계의 핵심이었던 김재검(金載儉)에게 밀고하자, 회합이 있던 그날 밤 양제해를 잡아들인다. 뒤이어 양제해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상찬계의 계원들인 아전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최고의 대역죄인 이른바 '모변(謨變)'이라는 '반역죄'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상찬계의 아전들은 '양제해'가 동지들과 제주, 정의, 대정 세 고을의 수령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였고, ‘연륙선(連陸船)’을 막아 재화를 가로채고, 육지와 연결을 막아 ‘별국(別國)’을 건설하기 위해 어리석은 백성들을 피어 변란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사건은 결국 상찬계의 의도대로 ‘양제해 모변’이라는 이름으로 200년간을 대물려 왔던 것이다.

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관아에 ‘등소’하자고 약조한 일이 나라를 뒤집어엎고, 별국(別國) 건설 음모로까지 발전하게 된 근본적 배경은 당시 중앙정부의 사정에 기인한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조정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홍경래난’의 여파 때문이다.

《정감록(鄭鑑錄)》의 사상으로 무장한 민란의 주도세력들이 조선 왕조체제의 전복을 꿈꾼 대반란이었던 ‘홍경래의 난’은 조선 사회의 신분 차별과 지역 소외(서북인 차별)를 혁파하고, 백성(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뚜렷한 정치적 목표가 있었고, 1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워 일으킨 민중들의 조직적인 봉기였다.

그런데 그 난이 진압된 지 겨우 한 해가 지났을 시기에, 이번에는 실재는 ‘무고’였지만, 남해의 절도에서 별국 건설까지 하겠다고 난이 일어나다니, 모의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정부는 이에 과민반응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목사와 나졸들까지 한 몸으로 사건을 ‘모변’으로 조작해내니, 물 건너 조정에서야 ‘자라 보고 놀란 마음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처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 정치상황적 배경과 상찬계 아전들의 기민하고 치밀한 계획이 맞물려, 어처구니없게도 18세기 이 변방의 섬에서 조선왕조를 뒤흔들 정도의 반란을 모의하다 발각된 사건이 터진 셈이다.

양제해는 네 번이나 ‘향감(鄕監)’을 역임했는데, 향감이란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두었던 향청(鄕廳: 留鄕所)의 우두머리이다. 향청이란 조선시대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민들의 자치기관을 말하는데, 향청에는 좌수(座首)와 별감(別監) 등을 두었다. 이들은 지방의 향사(鄕士)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위엄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향사가 천거하여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였다.

“나라의 홍문관 관리가 되는 것에 비길 만하다(상찬계시말).”라고 했을 정도로 청렴하고 덕망이 있어야만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찰방헌리(察訪憲吏)’를 두 번이나 역임했다.

찰방헌리(察訪憲吏)는 방헌(訪憲)을 말하며, 헌장(憲長) 또는 풍헌(風憲)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면(面)이나 리(里)의 한 직임으로, 마을의 풍기(風氣)를 바로잡고, 관리의 정사청탁(正邪淸濁)을 감찰 규탄하는 직임으로 방헌들의 대표자를 말한다. 방헌(防憲)은 한 동리의 수장이며, 현소가 있어, 헌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큰 사건은 부로 송달하고, 작은 사건은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이었다. 양제해 또한 한때 상찬계에 속하였으나, 다른 계원들이 그를 존경하면서도 경계했다.

즉, 양제해는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청렴하고 덕망을 인정받던 자였다. 그런 그가 상찬계의 가렴주구를 견디다 못한 관할마을 백성들의 요구에 헌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등소장두’를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 한번 죽을 수 있다.”라는 그의 말은 그의 애민 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된 찰리사 이재수는 섬을 떠나기 앞서서 제주, 정의, 대정의 도민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해는 본래 역적이 아니다. 왜 그의 성(姓)을 떼어버리는가? 大民은 성을 붙여 불러주며, 小民은 梁憲(양제해 풍헌)이라 칭하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된다.” (〈상찬계시말〉, ‘이찰리전’)

이는 당시 모변으로 확정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그를 역적으로 취급하여, 양반이나 세족들은 대역죄인을 호칭할 때처럼 성을 떼어 부르고, 일반 백성과 천민들이 그의 품관을 떼어 함부로 부르는 것을 보고, 그는 역적이 아니므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예전처럼 예를 갖춰 부를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찰리가 이 사건의 전모를 살핀 결과, 양제해가 역적이

아니라, 애민정신에 투철한 의인임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다.

양제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다산의 제자이자 지방 유학자인 운곡 이강희의 <상찬계시말>이 2008년에 이르러 세상에 드러나면서 비로소 이 사건의 전모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양제해 사건의 시말을 보면서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는 세간의 정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양제해에 대한 모든 역사적 평가는 왕조실록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왕조시대의 한계라는 점도 있었지만 지방사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학문적 과제를 다시 한 번 던져 준 사건으로도 기록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양제해는 다시 재탕 삼 탕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혀 후세에 전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 기인 양장의(梁掌議)

제주도에서 임기응변이 가장 능한 사람으로서 가령 양장의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육지부에 가서 생활하면서 서울 양반들이나 장사치들을 말로써 골탕먹인 사람이라고 했다. (1981. 1. 23. 현용준, 현길언 조사)

가령 양장의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제주도 가령 마을 사람으로 글에도 능하였을 뿐 아니라 기지도 뛰어났다. 그는 서울 출입을 자주 하였는데, 서울 사람들에게서 섬사람이라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보복을 하곤 하였다.

그는 성균관에서 글공부를 하였는데, 글로나 말로나 여러 서울 선비들을 앞질렀기 때문에 서울 선비들에게는 그가 아니꼬운 존재였다.

어느 날 양장의가 없을 때에 여러 선비들이 의논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똑똑한 척하는 섬놈을 골탕 먹일까 궁리하다가 묘안을 짜냈다. 그들은 양장의가 늘 앉는 자리의 마루를 떼어 내고 그 위에 방석만 덮어 두어 그를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였다.

밖에 나갔던 양장익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는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러자 폴썩 하니 자리에서 빠져 마루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모여 앉아 그 광경을 보던 여러 선비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대었다. 그때였다.

“제 아버지를 장사지내면서 상제들은 울지도 않고 웃기만 하는 거냐?”

마루 밑으로 빠진 그는 웃는 여러 선비를 향해 크게 꾸짖는 것이었다. 선비들은 웃음을 그치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희 놈들은 명색이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부친을 묻는 예의도 모르느냐? 서울 놈들은 다 그렇게 예의도 모르느냐? 서울 놈들은 다 그렇게 예의범절에 어두우냐?”

어리둥절하고 있는 선비들을 향해 그는 다시 꾸짖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 무덤에 묻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상제로서 마땅히 곡을 하여야 할 게 아니냐?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인 것이야.”

그제야 선비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양장익을 골려 주려 했던 그들이 모두 양장익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선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이놈들아, 어서 곡소리를 내어라.”

마루 구덩이에서 다시 양장익은 큰소리로 선비들을 꾸짖었다. 선비들은 더 할말이 없었다. 결국 놀려 주려던 그들은 모두 양장익의 아들이 되고 말았다.

양장익이 어느 해에 서울에 갔다 돌아오다가 전라 감영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을 만났다. 고향 사람이라 반가운 김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던 중에 양장익은 그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때에는 나라에 물건을 진상하는 일이 어려웠다. 제주도에서는 소나 말을 전라 감영을 통해서 서울로 진상했다. 진상물품을 모으는 일도 그랬지만, 물건을 바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그는 바로 검은 소를 상감에게 진상하러 온 사람이었다. 며칠 전에 왔으면서도 진상이 잘 안 되어 지금껏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자는 다 떨어져서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 진상이 잘 안된다는 거요?”

얘기를 듣고 양장의가 그 연유를 묻자

“무슨 큰 이유도 없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 하면서 받아 주질 않으니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갖다 줄텐데, 이제 노잣돈도 없으니 소라도 팔아먹고 죽든지 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한탄하였다.

듣고 보니 딱하였다. 양장의도 진상하는 데 따른 관리들의 횡포를 약간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듣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었다. 생각하니 화가 났다. 어떻게 하면 진상도 원만하게 하고, 그 감사까지 꿀탕을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다.

“그저 죽은 척하고 내일 한 번만 더 가서 사정을 해보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소를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양장의는 우선 이렇게 위로하였다.

진상하러 온 사람은 다음날 다시 소들을 끌고 가서 간청하였다. 전라 감사는 비스듬히 자리에 기댄 채로, 아래 와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를 힐끗 내려다보는데

“지금 나리께서 바빠 받을 수 없으니 내일 와요.”

하고 호방이 호기 있게 말하였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연을 양장의에게 모두 말하였다.

다음날은 양장의가 직접 소를 몰고 감영으로 갔다.

“나라에서 쓸 소를 진상하러 제주에서 왔으니, 감사는 나와서 얼른 받으시오.”

양장의는 들어가면서 큰소리를 쳤다. 나졸들이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어제까지 매일 드나들던 자가 아니고 호령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어, 저 친구 봐라. 진상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큰소리까지 치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미칠 만도 하지. 이제 어떡할 거야. 소를 팔고 도망을 치든지 받을 팔아 뇌물을 쓰든지 해야지, 어떡하겠어?”

“진상을 한두 번 해봤나? 왜 다 알면서, 처음부터 좀 잘할 일이지.”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여댔다. 그러나 양장익은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 번 큰소리로 말했다.

“나라에 진상할 소를 대령하였으니 감사는 나와 받으시오.”

아닌 밤에 흥두께 식으로, 웬 초라한 선비가 나타나서 큰소리치는가 하고 감사가 내다봤다.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때였다.

“감사는 그 행태가 뭐요? 우리가 상감께 소를 진상하려 하는데, 그 물품을 받는 신하의 태도가 아니 되었소. 향을 피우고 의관을 정제한 후 받아야 된다는 건 어느 관리라도 아는 바요. 그게올바른 예의가 아니요? 어이 무엄도 하오.” 양장익은 감사를 넋지시 바라보며 한마디 하였다. 가사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얼굴빛이 싹 변하였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통으로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당신 같은 신하에게는 상감께 바칠 소를 대신 바칠 수 없소. 나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어야 하겠소.”

양장익은 소를 몰고 나오려 하였다.

“여보시오. 뭘 그리 하시요. 몰고 온 소는 그냥 두고 가시오.”

감사의 눈치를 살피던 호방이 달려 나와서 양장익에게 말했다.

“이놈, 어디서 하던 버릇. 아랫놈이 어디다 대고 상감께 바칠 물건에 대해 함부로 나불거리느냐? 감사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 될 일인데.”

양장익은 이렇게 꾸짖고 소를 몰고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자니 감영에서 전갈이 왔다. 지난번에는 분수를 모르는 아랫것들이 물리친 모양인데, 다시 갖고 오면 예를 갖추어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장익은 듣질 않았다.

“한 사흘만 기다리다가 바치도록 해요. 그때에도 늦지는 않으니 마음 폭 놓고 있으시오.”

양장익은 진상 소를 갖고 온 사람에게 여유 있게 말하였다.

아니나다를까 감영에서는 매일 사람을 보내어 소를 진상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돈까지 마련하여 사람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양장익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소를 진상하는 일이

쉬워져요.”

그러면서 사흘을 기다렸다. 그동안 매일 사람이 와서 간청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몰고 감영으로 갔다.

“나, 감사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냥 바치고 가지마는, 다음부터 이리하면 우리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상감께 사실대로 아뢰고 직접 바칠 생각이요.”

양장은 못 이기는 척하고 소를 바쳤다. 그리고 나오는데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호방이 엽전 꾸러미까지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그 엽전을 가지고 며칠을 푹 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 후부터는 전라 감영에 소를 진상하는 게 아주 쉬워졌다고 한다. (현길언)

〈가령로〉

동광로와 연삼로를 연결하는 가령로는 가령마을이라 불렀던 지명에서 딴 이름이다. 이 마을은 예전에 현감을 지냈던 '가령 양장의'가 살았었기 때문에 가령이라 불렀다고 한다. 가령로는 서쪽으로 동고산로와 이어진다. 이 길은 고산동산이라고 불리는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제주시청에서 남쪽으로는 언덕길이 동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곳을 예전에 고산동산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고산동산의 동쪽으로 연결된 길이라는 의미로 동고산로라 했다.



■ 명인 양유성(梁有成)

양유성(1684년~1761년)은 탐라4절(耽羅四節)의 한 사람으로 당당한 풍채와 명문장으로 명성을 떨친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지금의 제주시 화북동 출신이다. 경종조에 무과에 합격하고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양중욱(梁重郁)의 부이다. 풍채가 매우 준수하였는데 풍수(風水)의 고흥진(高弘進), 의술(醫術)의 진국태(秦國泰), 복서(卜筮)의 문영후(文榮後)와 더불어 '탐라사절(耽羅四節)'이라 불렸다.



▲양유성의 묘가 있는 제주시 연동 산110번지 거문오름

1712년(숙종 38) 무과에 합격하고 전라남도 보성(寶城) 군수(郡守)를 지냈다. 1760년(영조 36) 김우천(金羽遷), 김우달(金羽達), 김여강(金汝江) 등과 함께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을 만들었다. 내용은 서문, 절목,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1658년(효종 9)에 무술방(戊戌榜) : 과거 합격자로서 아직 임관되지 않은 사람 출신인 이기발이 썼고, 명단은 1558년(명종 13)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해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은 제주도 무형문화제 제12호로 지정되어 삼성사에 보존되어 있다. 양유성은 전라도 보성(寶城) 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양보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검은오름의 남동쪽에 묘가 있다.

6. 애국선열

애국선열은 우선 제주항일기념관에 모셔져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독립기념관 등 전국의 기념관에 모셔져 있는 양씨 애국선열들을 차례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 양남구(梁南求)

- 출신 : 제주 용담동
- 관련운동 : 법정사 항일운동
- 서훈 : 1990년 애족장, 1997년 대통령표창,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6월경 김연일(金蓮日), 강창규(姜昌奎), 방동화(房東華) 3인이 제주 산천단에서 형제의 의를 맺으면서 비롯되었다. 이 후 이들은 제주도 중문지역의 법정사를 중심으로 반일의를 고취시켜 나가다가 선도교(혹은 태을교, 보천교의 전신)의 제주 대표격인 박주석(朴周錫)과 함께 운동을 구체화 해 나갔다. 이들은 10월 4 ~ 5일 김연일 스님 등 30여 인에 의해 무장항일거사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제주에 거주하는 일본관리를 소탕하고 일본인을 추방하자'는 격문(檄文)을 만들어 각 마을 13개리(里) 구장을 통해 배포토록 하였다.

또한 10월 6 ~ 7일 이틀에 걸친 항일 항쟁에 참여한 자는 약 700명(일정기록 400명)에 이르렀으며, 일본 경찰관의 연락은 두절하기 위하여 전선(電線)을 절단하였다. 특히, 10월 7일 김연일부대는 제주경찰서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장 요시하라(吉原)를 포박하고 주재소를 방화·전소 시켰다.

이 운동으로 총 66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 전에 2명이 옥사하였고, 재판에서 31명이 징역형, 15명이 벌금형, 1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자 중에서 3명은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파급을 우려하여 운동의 주도세력을 흑세무민(感世誣民)의 유사(類似) 종교 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다.

이 운동은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이 항쟁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일투쟁이며 국권 회복 운동이었다.

이 운동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표자 10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양남구이다. 그는 1918년 9월 김영일 등 7명의 동지와 함께 남제주군 중문면의 주민들을 규합하여 일경을 축출하기 위한 시위를 펴고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피체되어 1919년 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목포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양두옥(梁斗玉)

- 출신 : 한경 신창리
- 관련운동 : 제주농업학교 학생운동, 제주농민조합운동
- 서훈 : 1993년 애족장

양두옥은 1931년 3월 9일 제주농업학교(濟州農業學校) 3학년에 재학 중 부당하게 유급(留級)당하자 학교를 습격하여 일본인 교장을 구타하고 학교기물을 파괴하다 피체되어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제주도(濟州島) 구우면(舊右面) 신창리(新昌里)에서 5인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민부(農民部)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5월 1일 서당학생 100여 명을 규합하여 시위행진을 하였다. 8월에는 신창리(新昌里) 등 4개 리(里) 부락민대회(部落民大會)에 참석하여 신창서당(新昌書堂)의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승격(昇格)을 통한 식민지교육에 항거하는 연설을 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면행정(面行政)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34년 일경에 피체된 그는 오랜 미결기간을 거쳐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양치삼(梁致三)

- 출신 : 한림 대림리
- 관련운동 : 제주농업학교 학생운동
- 서훈 : 1993년 건국포장

양치삼은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당시, 이른바 사상 불순(不純)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퇴학당한 동급생 김원요(金源堯)가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했다 하여 졸업식장에서 일경에 피체되고 또한 동급생 신창진(愼昌珍)·양두옥(梁斗玉)이 같은 이유로 졸업을 못하고 유급되자,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식민지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官舍)로 몰려가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다른 10명의 학생과 함께 피체되어, 동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제주항일기념관

7. 역대 인물

역대 인물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호에는 본관이 濟州인 인물들을 먼저 소개했으며, 다음 호부터 南原, 忠州 등을 중심으로 차례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 양거안(梁居安)

1652년(효종 3)~1731년(영조 7).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천백(遷伯), 호는 육화(六化). 아버지는 부호군(副護軍) 양우규(梁禹圭)이다. 박세당(朴世堂)과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였다. 1687년(숙종 13)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에 생원(生員) 3등 59위로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천태사(天台寺)와 쌍봉사(雙峯寺)에 들어가 학문에 열중했다. 만년에는 쌍봉동(雙峯洞)에 경학재(耕學齋)를 세우고 동지들과 더불어 선속계(善俗契)를 만들어 수선(修善)의 방법을 꾀했다. 《소학(小學)》, 사서(四書), 육경(六經), 《근사록(近思錄)》 등에 밝았다. 저서로 시문집 《육화집(六化集)》이 있다.

■ 양거웅(梁居雄)

1673년(현종 14)~1708년(숙종 34).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영숙(英叔), 호는 학포(學圃). 조부는 양지남(梁砥南)이고 아버지는 양우련(梁禹璉)이다. 사촌형제 양거안(梁居安)과 함께 박세당(朴世堂)과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경서와 역사서들을 섭렵하고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1705년(숙종 31) 을유(乙酉) 증광시(增廣試)에 생원(生員) 3등 4위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 양경천(梁擎天)

1732년(영조 8)~1794년(정조 18). 조선 후기 유생. 본관은 제주(濟州)이며, 제주 가량(加良: 현재의 이도2동) 출신이다. 아버지는 양우조(梁寓祚)이다. 양경천은 영조(英祖) 대에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상소문(上疏文)을 10여 차례 올렸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해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1785년(정조 9)에 귀양지 함경도 길주(吉州)에서 풀려나오는 길에 삼을나묘(三乙那廟: 삼성혈 경내에 있는 삼성사(三姓祠)의 별칭)에 사액(賜額)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 양계묵(梁啓默)

1882년(고종 19)~1941년. 조선 말기의 유학자. 자는 내심(乃心), 호는 심암(心庵)이며,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고조부는 양달신(梁達新)이고, 증조부는 양석구(梁錫龜), 조부는 양기영(梁紀永)이며, 부는 양상홍(梁相洪)이다. 1882년(고종 19) 8월 22일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스스로 자의(字意)를 깨우쳤다. 6세에 모친상을 당한 후, 《효경(孝經)》의 ‘효(孝)’자를 보고 매우 애통해 했다고 한다. 장성한 후에는 이미 학문이 깊어져서 공맹(孔孟: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물론,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과 성리학 서적에도 능통하여, 원근(遠近)의 선비들과 학문을 교유하였다. 1941년 8월 13일 졸(卒)하였으며, 문집으로 《심암선생문집(心菴先生文集)》이 전한다

■ 양계초(梁啓超)

애월읍 상가 출신으로 항일 종교운동가이며 일명 양계준, 제주양씨 사직공파, 양상원의 외아들로 1926년부터 근 4년 동안 보천교 신자로서 일본에 저항, 이후 양봉진으로부터 민족종교인 미륵교의 설교에 의해 1938년 신도가 되었다. 미륵불이 출현되면 이상국가가 실현되리라 믿었다. 이는 강일순이 창시한 증산교의 분형이며 석가상과 공자상을 받들고 그밖에 휴정, 유정, 이순신, 최제우, 전봉준 등을 숭배, ‘일망무지’라는 깃발을 들고 일본은 망하고 밝은 세상이 온다고 설교, 또한 종교적 기원제를 지냈다. 신도가 늘자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려던 차에 일제에 의해 중요 신도들과 함께 체포되어 1943년 2월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3사건 당시 계엄군에 의해 원동에서 총살당했다.

■ 양기현(梁琪鉉)

애월읍 봉성 출신으로 민족 종교운동가로서 제주양씨 성주공파, 양경원의 장남으로 봉성리 28번지에서 태어나 안덕면 동광리로 옮겨 1936년 11월 자택의 별채 가옥을 무극대도교 본부로 제주도 교주 강승태에게 대여, 이런 일로 신도가 되어 포교에 노력했다. 이 민족종교는 평양에 본부를 둔 천도교 계통의 신흥종교이다. 교세가 날로 늘어 1천 명에 이르자 1937년 12월 일제히 검거, 강승태 이하 67명을 광주지법으로 송치, 23명을 구속했다. 그는 1940년 12월 4일 광주지법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 양달사(梁達泗)

1518년(중종 13)~1555년(명종 10). 조선 중기 무신·의병장. 자는 도원(道源)이고 호는 남암(南岩)이며,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감역(監役) 양흥효(梁興孝)의 증손이며, 주부(主簿) 양승조(梁承祖)의 아들이다. 삼종숙(三從叔)인 양팽손(梁彭孫)의 문인이다. 1537년(중종 32)에 무과에 급제하고, 1546년(명종 1)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전라좌우우후(全羅左右虞侯)와 진해현감(鎭海縣監)을 역임하였다. 1553년(명종 8)에 남해현감(南海縣監)에 부임하여 있던 중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1555년(명종 10)에 을묘왜란(乙卯倭亂)이 일어났다. 이에 충효일체(忠孝一體)라 하여 의병을 모았다. 그리고는 잘생긴 젊은이들을 모아 화려한 옷을 입히고 연희(演희)를 벌여 왜군들이 참관하는 사이에 의병들과 관군들이 함께 공격하여 크게 왜군을 물리쳤다. 분격하는 왜군을 물이 없는 진흙 땅으로 유도하여 다시 한 번 크게 승리하였다. 그러나 상을 당한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간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는 관군에게 공을 돌리고 돌아와 시묘살이를 계속하다가 창독(瘡毒)으로 졸(卒)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555년(명종 10) 12월 2일조에, 어떤 사람이 전라도 장흥부(長興府) 원벽(院壁)에 써 붙였다고 하는 시에, “ 공을 세운 양달사는 어디로 갔나. 의리 없는 유충정이 강진에 부임했네 상과 벌이 불분명하니 공도(公道)가 망했구나. 실망하여 탄식하는 임금의 수치는 씻을 길 없네 ” 라고 하였는데, 혹자는 시인(詩人)이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이라고 하였다. 선조(宣祖) 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추증(追贈)되었다. 《호남절의록》〈을묘의적(乙卯義蹟)〉과 《전라도 읍지》에도 행적이 실려 있다.

■ 양덕하(梁德廈)

1714년(숙종 40)~1775년(영조 51). 조선 후기 문신. 자는 대비(大庇)이고 제주도 한림읍 명월리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양잠(梁岑)이고, 조부는 양수영(梁秀瀛)이며, 부는 양임노(梁壬老)이며, 처부는 변시익(邊是翼)이다. 1738년(영조 14)에 전시(展示)에 직부(直赴)되어, 26세 되던 1739년(영조 15) 기미(己未)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14위로 합격하였다. 1742년(영조 18) 1월에 학유(學諭)가 되었고 같은 해 4월에 학록(學錄)이 되었다.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을 거쳐 전라남도 장성(長城)의 청암찰방(靑巖察訪)을 역임하였고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에 이르렀다. 향공진사(鄉貢進士)였던 양부 양수영이 졸하자 왕명으로 향공진사에 정표(旌表)되었다.

■ 양두남(梁斗南)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득일(得一)이고, 호는 북애정(北涯亭)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현손(玄孫)인 양제용(梁濟容)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 36)에 등과하여 문학(文學)과 재행(才行)을 겸비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비변사낭청(備邊司郎廳)과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을 거쳐 1604년(선조 37)에는 언양현감(彦陽縣監)을, 1608년(선조 41)에는 비인현감(庇仁縣監)에 제수(除授)되었다. 안동대도호부판관(安東大都護府判官)이 되어 청백리(淸白吏)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삼종형(三從兄)인 양위남(梁渭南)과 의병을 모아 담양(潭陽)의 군병을 이끌고 성심을 다하여 싸우니 도백(道伯)이 포상을 청하는 계사(啓辭)를 올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622년(광해군 14) 6월 11일에, 언양현감(彦陽縣監)으로서 농사철에도 백성들을 부려 자신을 살찌우는 데만 힘써 백성들이 모두 유망(流亡)하였다며 사간원에서 탄핵한 기록이 있다.

■ 양득중(梁得中)

1665년(현종 6)~1742년(영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택부(擇夫), 호는 덕촌(德村). 영암(靈巖) 출신. 아버지는 우주(禹疇)이며,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이다. 기묘명현(己卯名賢) 팽손(彭孫)의 6대손이며, 안방준(安邦俊)의 외증손이다. 17세에 박태초(朴泰初)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뒤에는 윤증(尹拯)의 문인이 되었다. 이세필(李世弼)·신익상(申翼相)·박세채(朴世采) 등과 학문을 토론하였으며, 학자로서의 명망이 높았다. 1694년(숙종 20) 학행으로 천거받아 1697년 효릉참봉(孝陵參奉)이 되었다. 이어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공조좌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1703년 공주의 덕촌(德村)으로 이사하여 스승 윤증을 가까이 모시고 학문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1706년 회인현감에 임명되었고, 그뒤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익위(翊衛)·위수(衛率)·익찬(翊贊), 김제군수, 사헌부의 지평·장령·집의 등을 역임한 뒤 1734년(영조 10)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임명되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취체제(收取體制)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實學)을 역설하여 학문풍토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탕평책(蕩平策)의 시행으로 고질적인 당파싸움을 없애자고 하였으며, <명대의변 明大義辨> 등의 저술을 통하여 송시열(宋時烈)의 주장과 시책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성리학에도 밝았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이이규(李以圭)·이호(李灌) 등이 있다. 저서로는 《덕촌집》 10권 5책이 있으며, 유상(遺像)이 전한다.

■ 양만용(梁曼容)

1598년(선조 31)~1651년(효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장경(長卿), 호는 오재(梧齋). 아버지는 산축(山軸)이며, 어머니는 장흥고씨(長興高氏)로 예조좌랑 종후(從厚)의 딸이다. 강항(姜沆)·박동열(朴東說)의 문인이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장원한 뒤 시강원설서·예문관검열·예조좌랑을 역임하였고, 1636년 청나라가 침입하자 의병을 일으켰다. 검열로 있을 때 직언으로 인하여 권신(權臣) 김자점(金自點)의 비위에 거슬려 승진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군수·현감 등 외직과 수찬·집의·사간·응교 등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거치면서 정치제도 개선에 많은 공을 세웠다.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저서로는 《오재집》 2책이 있다.

■ 양산보(梁山甫)

1503년(연산군 9)~1557년(명종 12).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언진(彦鎭), 호는 소쇄옹(瀟灑翁). 조부는 부사직(副司直) 양윤신(梁允信)이고, 아버지는 창암(蒼暗) 양사원(梁泗源)이다. 어머니는 신평송씨(新平宋氏)이다. 정랑(正郎) 김후(金翹)의 딸인 광산김씨(光山金氏)와 결혼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어려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이후 성균관에 유학하였다. 1519년(중종 14) 증종이 친히 주관한 시험에서 17세의 나이로 합격하였으나, 대간(臺諫)들의 반대로 취소되고 이를 애석히 여긴 증종이 물품을 내려 위로하였다. 그 해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가 실각하자 전라남도 담양(潭陽)으로 내려와 소쇄원(瀟灑園)을 짓고, 자호를 소쇄옹(瀟灑翁)이라 하였다. 평소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과 교유하였다. 조광조 사후 하서와 함께 사림(士林)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병환이 있어 1557년(명종 12) 3월 20일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양산숙(梁山璠)

1561년(명종 16)~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의병장.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회원(會元). 기묘명현(己卯名賢) 팽손(彭孫)의 후손이며, 대사성 응정(應鼎)의 아들이다.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경서(經書)에만 전심하였다. 천문·지리·병학에도 뛰어났다. 동서분당시 서인으로 조헌(趙憲)과 함께 이이(李珣)·성혼을 지지하며 동인 이산해(李山海)·유성룡(柳成龍)을 배격하는 소를 올렸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산룡(山龍)과 함께 나주에서 창의(倡義)하여, 김천일(金千鎰)을 맹주(盟主)로 삼고 그는 부장이 되고 형은 운량장(運糧將)이 되었다. 향리에서 병을 모집, 군량을 조달하며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봉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뒤 김천일과 함께 북상하여 수원에 출진하여 활약하다가

강화도로 이진할 무렵, 곽현(郭賢)과 함께 주장의 밀서를 가지고 해로의 간도(間道)를 따라 의주 행궁(行宮)에 도착하여 선조에게 호남·영남의 정세와 창의활동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 공으로 공조좌랑에 제수되었다. 돌아올 때 영남·호남에 보내는 교서를 받아 남도에 조명(朝命)을 하달하였다. 적이 남도로 퇴각하자 김천일과 함께 남하하여 진주성에 들어갔으나 침공하려는 왜의 대군 앞에 군사 부족으로, 홍함(洪涵)과 함께 명나라 장군 유정(劉廷)의 군진에 가서 군원을 강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성에 다다르자 홍함마저 도피하여 단신 입성, 적과 끝까지 항전하다가 김천일과 함께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고 한다.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나주의 정렬사(旌烈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에 제향되었다.

■ 양수영(梁秀瀛)

1675년(숙종 1)~1698년(숙종 24).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제주도 제주시(濟州市) 한림읍(翰林邑) 명월리(明月里) 출신이다. 시조는 태초(太初)에 제주도 한라산(漢拏山)의 북록(北麓) 삼성혈(三姓穴)에서 탐라국(耽羅國)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양을나(梁乙那)이며, 부친은 양잠(梁岑)이다. 초시(初試)에 급제한 후 회시(會試)에 응시하려던 중 사망하자 숙종이 안타깝게 여겨 그의 시신을 제주도로 운구(運柩)하게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아들 양덕하(梁德廈: 1714~?)는 1739년(영조 15) 기미(己未) 정시(庭試) 병과(丙科) 14위로 문과 급제하여 전라남도 장성찰방(長城察訪)을 역임하였다.

■ 양신용(梁信容)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 유학자. 자는 경중(景仲)이고, 호는 장춘(長春)이다.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시조는 태초(太初)에 제주도 한라산(漢拏山)의 북록(北麓) 삼성혈(三姓穴)에서 탐라국(耽羅國)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양을나(梁乙那)이다.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의 증손이다. 천성이 강직하였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나이든 몸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지 못함을 한탄하다가 아들 양유남(梁有南)을 의병장 한림공(翰林公) 양만용(梁曼容: 1598~1651)에게 보내 싸우게 하였다.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順天市) 금곡동(金谷洞)에

양팽손과 양신용(梁信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용강서원(龍岡書院)이 있다.

■ 양원하(梁元河)

항일 종교운동가로 애월읍 상가리 출신으로 호는 월전암, 제주양씨 사직공파, 강일순이 창시한 증산교의 한 분파인 미륵교의 신자, 제주도 오라동 양봉진의 집에서 양계초, 변호찬 등과 함께 강증산 서거 기념 제사를 거행하던 중 일제 당국에 의해 1942년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1943년 2월 16일 판결이 있기 직전에 옥사, 역시 신도 변호찬도 옥사되고 나머지 신도들은 각기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였다. 신도 양봉진은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1945년 7월 16일 타계, 조국이 광복되기 바로 1개월 전의 일이었다.

■ 양위남(梁謂南)

1574년(선조 7)~1633년(인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훈련원침정 인용(仁容)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재기(才氣)가 남달랐고 궁마(弓馬)에도 능하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독서한 지 10여 년 만에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1610년(광해군 2)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이이첨(李爾瞻)이 그의 재행을 듣고 사람을 시켜 불렀으나, 권문(權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여 과업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안방준(安邦俊)과 더불어 강론하며 세월을 보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격문을 돌려 100여 명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고 여산(礪山)까지 나아갔으나 적병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북향재배한 뒤 돌아왔다. 뒤에 중부참봉(中部參奉)에 임명되지만 모친상을 당하여 상례를 극진히 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효행을 높이 평가하여 정려를 내렸다.

■ 양응정(梁應鼎)

1519년(중종 14)~1581년(선조 14)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공섭(公燮), 호는 송천(松川). 교리 팽손(彭孫)의 아들이며, 동래부사 응태(應台)의 아우이다. 1540년(중종 35)에 생원사에서 장원으로 급제하고, 1552년(명종 7)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공조좌랑으로 1556년 증시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그 이듬해 공조좌랑으로 있을 때 당시 권신이었던 윤원형(尹元衡)에 의하여 김홍도(金弘度)와 함께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였다가 1560년에 다시 복직되었다. 그뒤 수찬·진주목사를 거쳐 1574년(선조 7) 경주부윤으로 재직중 진주목사로 있을 당시 청렴하지 못하였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1578년에 공조참판으로 기용, 성절사로 명나라에 갔으나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시 파직되었다가 대사성에 복직되었다. 시문에 능하여 선조 때 8문장의 한 사람으로 뽑혔으며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졌다. 저서로는 《송천집》·《용성창수록 龍城唱酬錄》이 있다.

■ 양이하(梁以河)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유학자. 호는 수월당(睡月堂).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고려조의 유격장군(遊擊將軍) 양보숭(梁保崇)의 후손으로, 부는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양담(梁澗)이며, 송천(松川) 양응정(楊應鼎)은 그의 손자이다. 양이하는 당시의 세태를 개탄하여 학문을 흥성케하고 영재를 양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며,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등을 증직(贈職)으로 받았고, 1808년(순조 8) 월곡고리(月谷故里) 삼현사(三賢祠)에 배향되었다.

■ 양익표(梁益標)

1685년(숙종 11)~1722년(경종 2).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제주(濟州). 병사 우급(禹及)의 손자이다. 기질이 영준하고 성격이 호탕하여 거치는 것이 없었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당쟁으로 안정을 잃은 정치 때문에 중용되지 못하여 술과 잡기로 울분을 달래다가 그 고을의 군수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려 토호무단율(土豪武斷律)에 의하여 관서 지방에 유배되었다. 1717년(숙종 43)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건의로 왕명에 의하여 특사되었다. 이듬해 비변사낭청에 임명되었고, 1720년 숙종의 국상 때는 고부사(告訃使) 이이명(李頤命)의 무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구성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이몽인(李夢寅)과 함께 노론측 입장에서 왕세제(王世弟: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상소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천현에 유배되었다. 1722년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왔으나 노론 4대신의 처형과 동시에 해를 입었다. 1724년(영조 즉위) 노론 4대신의 복작과 동시에 신원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 양정훈(梁廷勳)

1806년(순조 6)~1865년(고종 2). 조선 후기의 무신. 호는 송계(松溪).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지금의 제주도 한림읍(翰林邑) 명월리(明月里)에서 출생하였다. 힘이 세어 주변에서 ‘호랑이’ 또는 ‘양호(梁虎)’라고 불렸다. 유향좌수(留鄕座首)를 지내고 현종 때에 무과에 합격하여, 1851년(철종 2)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주도 명월만호(明月萬戶)를 지냈다. 1840년(현종 6) 영국 군함이 가파도(加波島)에 침입하자 문정관(問情官)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여 영국 군함이 물러나게 만들었다. 1853년(철종 4) 4월 제주도 정의현성(旌義縣城)의 성첩(城堞)과 문루(門樓)가 무너져 보수할 때 감동역(監董役)을 맡았으며, 1856년(철종 7) 제주성(濟州城)의 문루 및 관청 건물의 보수 감독을 맡아 이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 양제박(梁濟博)

1886년(고종 23)~미상. 일제강점기 기업가, 현대 정치인·도지사.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한림읍(翰林邑) 대림리(大林里)에서 태어났다. 학력은 보성학교와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였다. 1913년에는 제주지방재판소의 서기로, 1920년에는 제주물산주식회사의 전무로, 1925년에는 조선기업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그 후 제주도를 떠나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겨가서 무역업을 하였다. 1927년 5월 9일에는 곽상훈(郭尙勳)·김헌식(金憲植)·나시극(羅時極) 등과 함께 계급 타파와 파벌을 없애기 위한 인천지역 유지들의 창립 단체인 신정회(新正會)를 발기하고 민족단일전선을 주장하며 강령을 발표하였다. 1945년에는 한국민주당 인천지부의 발기인이 되어 부위원장을 지냈다. 1946년 10월 25일에는 미군정이 정권 인도를 위해 설립한 입법기관에서 식량·물가대책을 담당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선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48년에 인천의 제헌의원과 1950년 5월 고향 제주에서 제2대 국회의원 북제주군 을구에서 출마했으나 두 번 다 낙선하고 말았다. 그 후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여파로 4·19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주도에 심한 소요가 있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권 시절 관직에 있지 않던 순수 재야인사를 기용한다는 방침 아래, 이승만 정권을 반대하는 노선을 걷고 있던 그를 74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제9대 제주도 도지사로 임명하였다. 제주도민들은 그가 부임해 오면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공무원의 숙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만을 크게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제주 청년들은 '양제박 추방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의 자질을 논하며 도지사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를 추방하기 위한 위원회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과거공직자, 교육계, 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당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산업국장이었던 김선옥을 총무국장으로, 제주대 서무과장이었던 부항석(夫恒錫)을 산업국장으로 발령하면서 사퇴설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직선제로 뽑힌 도지사의 부임으로 그는 부임 5개월 만인 1960년 10월 27일 퇴임하였다.

■ 양제하(梁濟廈)

1837년(현종 3)~1904년(광무 8). 조선 후기 무신. 지금의 제주도 제주시(濟州市) 도련동(道蓮洞)에서 태어났다. 1836년(철종 14) 무과 갑과에 급제한 후,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의 벽사찰방(碧沙察訪)과 장성군(長城郡)의 청암찰방(靑岩察訪)을 거쳐 경주영장(慶州營將), 수문장(守門將),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제주판관(濟州判官),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의 격포수군첨절제사(格浦水軍僉節制使) 등을 역임하였다. 1876년(고종 13) 8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재임할 당시 그는 밭벼 쌀 437섬을 조성하고, 자신의 녹봉까지 보태서 제주 백성들의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썼다. 이 일은 1879년(고종 16) 8월 제주목사(濟州牧使) 백낙연(白樂淵)이 올린 장계로 인해서 조정에 알려졌고, 이로써 그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1880년(고종 17)에 경주영장(慶州營將)에 제수(除授)되어, 하직 인사를 올리자 그에게 장궁 1장과 장전 1부, 편전

1부, 그리고 통아 1개를 내려 주었다. 그 후 부호군(副護軍)에 단부되었다. 1898년(광무 2)에는 전라도에 거주하던 방성질이 제주도로 들어와 살면서 지나친 세금 징수에 불만을 가진 화전민들과 함께 관아로 가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당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병휘(李秉輝)로부터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병휘가 약속을 이행하는 대신 방성질을 잡아들이려고 하자, 방성질은 강벽곡(姜辟穀)·정세마(鄭洗馬) 등과 함께 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이 민란에는 제주로 유배와 있던 최형순(崔亨淳)·김낙영(金洛榮) 등도 가담하였다. 방성질은 이 민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제주성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방성질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양제하(梁濟夏)는 제주에 살고 있었으며, 전 주사 김재용(金在鏞)과 함께 성(城)을 지켜낸 공으로 조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 양종창(梁宗昌)

1767년(영조 43)~1821년(순조 21). 조선 후기 문화 재보호가. 자는 창보(昌甫)이고, 호는 매포(梅圃)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오늘날 제주도 제주시(濟州市) 화북동(禾北洞)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재주가 남달랐고, 마음 씩씩이 또한 넓었다. 제주도에 삼사석(三射石)이 있다. 제주도의 시조 삼신인(三神人) 삼을나(三乙那)



▲삼사석

) 즉 양을나(楊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가 벽랑국(碧浪國)의 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후, 자신들이 살아갈 도움을 정하기 위해 한라산(漢拏山)의 쌀손장오리(矢射岳)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삼사석은 세 사람이 쏜 화살이 날아가 박힌 돌을 가리키는 것이다. 1735년(영조 11)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정(金政)이 그들의 활숨씨를 기리기 위해 제주시 화북1동 1830번지에 높이 113cm, 너비 43cm, 두께 18cm의 비석을 세웠다. 그 후 1813년(순조 13) 양을나의 후손인 양종창(梁宗昌)은 지름 55cm 크기의 현무암 2개로 되어 있는 삼사석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석실(石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높이 149cm, 가로 101cm, 세로 67cm의 석판을 세워 두었다. 현재의 모습은 1930년 고을나의 후손 고한룡(高漢龍)·고대길(高大吉)·고영경(高永旻)

등이 개보수를 한 것이다. 삼사석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제주도 기념물 제4호로까지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양종창의 공로가 크다. 자료에 따라 1735년(영조 11)에 그가 석실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그의 생년이 1767년(영조 43)이기 때문에 1813년(순조 13) 석실을 세웠다는 기록 쪽이 신빙성을 가진다.

■ 양주남(梁柱南)

1610년(광해군 2)~1656년(효종 7). 조선 중기 의병. 자는 자경(子擎), 호는 사송(四松)·매계(梅溪),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이양면(梨陽面) 쌍봉리(雙峯里)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봉사(奉事) 이산욱(李山旭)이고, 부친은 남주고사(南州高士) 이효용(李孝容)이다. 외조는 홍주송씨(洪州宋氏) 해광(海狂) 송제민(宋齊民)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머니 병이 깊어지자 단지(斷指)를 하여 피를 마시게 하니 나았다.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재주가 탁월하고 경전과 문사에 숙달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은봉선생이 의병을 일으키자, 휘하에 참여하여 순국(殉國)하기를 맹세하였으나, 의병이 호산(壺山)에 이르렀을 때 화의(和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북향하여 통곡하고 귀향하였다. 문집으로 《사송선생유집(四松先生遺集)》 2권이 있다.

■ 양주희(梁柱熙)

1856년(철종 7)~1901년(광무 5). 조선 말기 문장가·유학자. 자는 자인(子仁)이고, 호는 회곡(晦谷)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며, 경상남도 진주(晉州) 운곡리(雲谷里)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양명수(梁命洙)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문장(文章)에 재능이 뛰어났다. 진주(晉州) 지방의 팔대문장가(八大文章家)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부모를 섬김에 효를 다하였으며, 두 아우도 우애로써 대하였다. 관혼상제는 예법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인근 고을에 학식과 행실로 명망이 있었다. 문집으로 《회곡유집(晦谷遺集)》이 전한다.

■ 양진영(梁進永)

1788년(정조 12)~1860년(철종 1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제주(濟州). 능주(綾州) 출생. 자는 경원(景遠), 호는 만희(晩羲). 아버지는 윤주(潤周)이며, 어머니는 진주김씨(晉州金氏)로 시향(時香)의 딸이다.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여러 번 향시에 응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다가 1859년(철종 10) 그가 죽기 1년 전인 72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4세에 다른 사람이 글 읽는 것을 듣고 능히 해독하였다고 하며, 6세에는 8괘(八卦)와 6갑(六甲)을 외우고 9세에는 장자방(張子房)과 공명(孔明)의 우열을 논하는 글을 지었다고 한다. 제자백가(諸子百家)와 노불(老佛)의 학설을 섭렵하고, 특히 역(易)을 깊이 연구하여 <대연추책 大衍推策>을 지었다. 1857년에는 고을 선비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기묘명현(己卯名賢)인 양팽손(梁彭孫)의 시호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선비들과 향음례(鄉飲禮)를 많이 가졌으며 시작에도 매우 뛰어났다. 최익현(崔益鉉)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찬탄하여 ‘풍아명어좌해(風雅鳴於左海)’라고 평하였다. 저서로는 《만희집》이 있고, 편서로는 《경학지 經學志》가 있다.

■ 양창언(梁昌彦)

1888년(고종 25)~1970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다른 이름으로 양촌창언(梁村昌彦)이 있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제주도 남제주군(南濟州郡) 남원읍(南原邑) 신예리(新禮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한학(漢學)을 배웠으며, 1917년에는 차경석(車京石)이 1911년 전라북도 정읍시(井邑市) 입암면(立岩面) 대흥리(大興里)에서 창시한 증산교 계통의 신흥 민족종교인 보천교(普天教)를 믿었다. 1936년에는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教)의 신도가 되었는데, 무극대도교 역시 증산교 계통의 종교로서 제주도 중문(中文) 출신인 강승하(姜承河: 일명 姜昇泰)가 제주도 안덕면(安德面) 동광리(東廣里)에서 설파하기 시작한 종교이다. 그는 스스로 교주가 되어 일본은 곧 패망할 것이고 조선은 독립이 될 것이며 1940년이면 일본 소화(昭和)왕이 조선 민족에게 항복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신도들을 모집하고, ‘경천수도(敬天修道)’와 ‘성신양성(誠信養性)’과 ‘안심안신(安心安身)’의 교리를 내세웠다. 양창언(梁昌彦)은 무극대도교의 신도로서 교단의 포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무극대도교가 일본 패망을 단언하고 항일 의식을 드러내며 많은 신도들을 모아들이자 일본 경찰과 헌병들은 교단의 핵심 인물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도 함께 체포되었다.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54세의 나이로 광주지방법원에서 1940년 12월 4일 일본 천황에 대한 불경죄와 불온언동으로 치안을 해쳤다는 죄목 아래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관리번호: CJA0002016 문서번호: 775367 성명: 강분승하외 19인 쪽번호: 204~25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 서류에는 이름이 '양춘창언'으로 되어 있다.

■ 양천운(梁千運)

1568년(선조 1)~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사형(士亨), 호는 영주(瀛洲). 창평 출신. 현감 자징(子徵)의 아들이다. 성훈(成渾)의 문인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큰 뜻이 없어 대과를 치르지 않았다. 벼슬은 동몽교관(童蒙敎官)·감찰(監察) 등을 거쳐 사십시주부(司瞻寺主簿)에 그친 뒤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조헌(趙憲)과 같은 이는 그를 장래 촉망되는 인물로 보기도 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의 명에 따라 분연히 일어나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을 따르려 하였으나 두 형이 없음을 안 고경명이 큰 뜻은 이해하지만 부모의 봉양이 우선임을 들어 거절하였다. 한때 친구인 이이첨(李爾瞻)이 폐모론을 들고 나오자 그와 절교하는 의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교우하는 이름 있는 선비들이 많았는데, 특히 김상헌(金尙憲)과 교분이 두터웠다. 평소 자녀들에게도 엄하였으며 《소학》·《삼강행실록》 등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훈계하였다

■ 양철(梁鐵)

1565년(명종 20)~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 무신. 호는 절재(節齋)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남평(南平)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직장(直長)

양응신(梁應愼)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수백여 명의 장정(壯丁)들을 모아 난을 피해 평안북도 의주(義州)로 옮겨가는 선조의 어가(御駕)를 무사히 경호하였다. 그 후 비변랑(備邊郎)에 제수(除授)되어 일본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점령한 충청남도 금산성(錦山城)을 되찾기 위한 수복전(收復戰)에 참여하였다가 왜적의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순절하였다. 당시 금산 전투에 참여한 의병 700여 명이 모두 순절하였는데, 의병 전사자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 의병장 조헌(趙憲)의 문인 박정량(朴廷亮)이 합장하고 위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 금산군(錦山郡) 금성면(錦城面) 의총리(義總里) 52-1번지에 있는 칠백의총(七百義塚)이다. 사후에 임진왜란 당시 그의 행적을 인정받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과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다.

■ 양치남(梁致南)

1585년(선조 18)~미상.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기원(期遠).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경론(經論)을 탐구한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6세손이고, 부친은 학생(學生) 양예용(梁禮容)이다. 43세 때인 1627년(인조 5)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 32위로 합격하였다. 영암(靈巖) 땅에 거주하였고 기개가 있었다. 광해군(光海君)의 혼조(昏朝)를 당해 시골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모후(母后)의 유폐(幽閉) 소식을 듣고 발을 돌렸으며,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변란(變亂)에 향인(鄉人)과 일어나 병량(兵糧)을 모으다가 난이 평정되자 그쳤다는 일이 《모의록(募義錄)》에 자세히 기술되었다.

■ 양팽손(梁彭孫)

1488년(성종 19)~1545년(인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대춘(大椿), 호는 학포(學圃). 능성(綾城) 출신. 직장 사위(思渭)의 증손이며, 이하(以河)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최훈(崔渾)의 딸이다. 1510년(중종 5)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또 현량과(賢良科)에 발탁되었다. 이후 정언·전랑·수찬·교리 등의 직을 역임하였으며, 호당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하기도

하였다. 정언으로 재직시 이성언(李誠言)을 탄핵한 일로 인하여 대신들의 의계(議啓)로써 체직을 명받았지만, 조광조·김정(金淨) 등 신진사류들로부터는 언론을 부호(扶護)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1519년 10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김정 등을 위하여 소두(疏頭)로서 항소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삭직되어 고향인 능주로 돌아와 중조산(中條山) 아래 쌍봉리(雙鳳里)에 소실을 짓고 학포당(學圃堂)이라 이름하고 독서로 소일하였다. 이 무렵 그와 친교를 맺은 인물들은 기준(奇遵)·박세희(朴世熹)·최산두(崔山斗) 등의 기묘명현들이었다. 특히, 또 능주로 유배되어온 조광조와는 매일 경론을 탐구하며 지냈다. 1539년에 다시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다가 1544년 김안로(金安老)의 사사 후 용담현령(龍潭縣令)에 잠시 나아갔지만, 곧 사임하고 다음 해에 58세로 죽었다. 그는 13세 때 송흙(宋欽)에게 취학하여 송순(宋純)·나세찬(羅世贊) 등과 동문으로서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항상 《소학》·《근사록》 등으로 처신의 지침을 구하였고, 당시 신진사류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다. 한편, 그는 회화에도 일가견을 보여 안견(安堅)의 산수화풍을 계승하였다. 1630년(인조 8) 김장생(金長生) 등의 청으로 능주 죽수서원(竹樹書院)에 배향되었으며, 1818년(순조 18)에 순천의 용강서원(龍岡書院)에 추향되었다. 작품으로는 〈산수도〉 1점이 전하며, 저서로는 《학포유집》 2책이 전한다. 시호는 혜강(惠康)이다.

■ 양한묵(梁漢默)

1862년(철종 13)~1919년. 독립운동가.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길중(吉仲), 호는 지강(芝江). 전라남도 해남 출신. 상태(相泰)의 아들이다. 1894년(고종 31) 탁지부주사(度支部主事)가 되어 능주세무관(綾州稅務官)으로 근무하다가, 1897년 사직한 뒤 북경(北京) 등지를 유람하고, 이듬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국정과 세계대세를 살폈다. 1902년 일본 나라(奈良)에서 망명중인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의 권유로 동학(東學)에 입교하였다. 그뒤 진보회(進步會)를 결성하여 구국민중운동을 지도하던 중, 1905년 이용구(李容九) 등이 친일파로 변절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준(李儁)·윤효정(尹孝定)과 헌정연구회(憲政研究會)를 조직하였다. 이듬해 손병희·권동진·오세창 등이 귀국하여 서울에

천도교 중앙총부를 두고 대헌을 발표하여 제도와 기관을 설립하자 집강진리과장(執綱真理課長) · 우봉도(右奉道) · 법도사(法道師)를 지냈고, 또 윤효정 · 장지연(張志淵) 등과 헌정연구회의 후신인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를 조직하여 일진회와 적극 투쟁하였다. 1910년 일제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교육진흥을 위하여 서울에 사범강습소(師範講習所)를 개설하는 한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 보성중학교 · 동덕여학교(同德女學校)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1911년 직무도사(職務道師)에 취임하였고, 이듬해 교리강습소를 개설, 천도교인 500여 명을 수련시키면서 강습과 집회를 통하여 극렬한 배일사상을 고취, 함양시켰다. 교주 손병희를 보좌하여 국권회복을 꾀하면서 안으로는 자체의 실력을 양성하고 밖으로는 국제동향을 살피던 중 1919년 3·1운동을 일으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붙잡혀 서대문감옥에서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저서로는 《동경연의 東經演義》·《무체법경 無體法經》이 있다.

■ 양홍기(梁洪基)

1894년~1974년. 법률가. 본관은 제주(濟州). 제주 출신. 1916년 경성전수학교를 수료한 뒤, 1921년 판 ·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그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가 되었다. 1924년에는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광복 때까지 줄곧 불우한 동포의 인권옹호에 힘썼다. 1945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46년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으나, 1948년 다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52년에는 제주대학교수가 되었다. 퇴임 후 1962년 변호사로 계속 활동하였다.

■ 양회갑(梁會甲)

1884년(고종 21)~1961년. 일제강점기 유학자. 자는 원숙(元淑)이고, 호는 정재(定齋)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전라북도 화순군(和順郡) 이양면(梨陽面) 초방리(草坊里) 출신이다. 문장과 그림에 능하였으며 기묘사화로 사직당한 이후 은거한 명현(名賢)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후손이다. 조부는 소암(嘯巖) 양호묵(梁虎默)이고, 부친 현재(弦齋)

양재덕(梁在德)과 모친 죽산안씨(竹山安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외조부는 안평환(安平煥)이다. 어려서부터 1895년(고종 32) 세상을 뜬 조부에게서 수학하였다. 그 후 부친의 스승 연재(淵齋) 송병준(宋秉濬)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1903년(광무 7)에 향시에 합격하고, 제시(製試)에서는 장원을 하는 등 실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 제도도 변했고, 송병준이 1905년(광무 9) 을사늑약 때 자결을 하자, 더 이상 세상 영리(榮利)에 미련을 두지 않고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통 유학을 지키기 위해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다. 1916년 기우만마저 세상을 뜨자, 그는 기우만의 《송사집(松沙集)》과 선조 양팽손의 《학포집》간행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또 1934년에는 기우만을 기리기 위해 영당(影堂)을 지었지만 일본의 핍박으로 더 이상 스승을 기리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자 그 영당을 고강사(高岡祠)라 이름하고 제사를 지냈다. 자녀로는 아들 양찬승(梁燦承)이 있다. 유고로 《정재집(定齋集)》 16권 7책과 《풍천록(風泉錄)》·《성학원류(聖學源流)》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정재집》은 여창현(呂昌鉉)의 서문과 김규태(金奎泰)의 발문을 실어 1965년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주요 작품으로 고소대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첩비를 봉심한 〈고소대봉심충무공대첩비(姑蘇臺奉審忠武公大捷碑)〉와 명나라 말기 의인 9명을 찬양한 〈명말제의사찬(明末諸義士贊)〉과 산홍이라는 기생이 매국노들을 꾸짖고 잠자리를 거부하고 자결한 절개를 칭찬한 〈기산홍수죄매국적부허침자사(妓山紅數罪賣國賊不許寢自死)〉 등이 있다.

■ 양회일(梁會一)

미상~1908년. 한말의 의병장.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해심(海心), 호는 행사(杏史). 전라남도 능주 출신. 시문에 능하였으며, 충성심이 두드러진 유생으로서, 그 명성과 덕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가산을 털고 의병을 모아 1907년에 기병하여, 전라남도의 능주·화순·동북 등지를 중심으로 왜적과 싸웠다. 의병장으로서 1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그해 4월 22일 능주의 군아(郡衙)와 순사주재소를 공격하여 총 5자루를 빼앗았다. 이어 화순의 군아와 현병분파소를 격파하였다. 그러나 광주를 치러다가 해가 저물어, 화순과 동북의 경계에 주둔할 때 왜적의 습격을 받아 격전 끝에

잡히고,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 그해 12월에 풀려나자 재기를 하였으나, 1908년에 이르러 일본헌병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았다. 장흥에서 옥고를 치를 때 적을 크게 꾸짖고 단식 7일 만에 순국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이,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8. 古典小說의 주인공

■ 양산숙(梁山驍)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 본관은 제주(濟州)이며 자는 회원(會元). 기묘명현(己卯名賢) 양팽손(梁彭孫)의 후손이며, 대사성을 지낸 양응정(梁應鼎)의 아들이다.

1561(명종 16)에 태어나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경서(經書)에만 전심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끝까지 항전하다가 진주성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에서 창의(倡義)하여, 김천일(金千鎰)을 맹주(盟主)로 삼고 양산숙은 부장이 되었다. 그 뒤 김천일과 함께 북상하여 수원에 출진하여 활약하다가 강화도로 이진할 무렵, 곽현(郭賢)과 함께 주장의 밀서를 가지고 해로를 통해 의주 행궁(行宮)에 도착하여 선조에게 호남·영남의 정세와 창의활동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 공으로 공조좌랑에 제수되었다. 돌아올 때 호남·영남에 보내는 교서를 받아 남도에 조명(朝命)을 하달하였다. 적이 남도로 퇴각하자 김천일과 함께 남하하여 진주성에 들어갔으나 침공하려는 왜의 대군 앞에 군사가 부족하자 명나라 장군 유정(劉廷)의 군진에 가서 군원을 강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할 수 없이 단신으로 입성하여 적과 끝까지 항전하다가 김천일과 함께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성혼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천문·지리·병학에도 뛰어났다. 동서분당 때 서인으로 조헌(趙憲)과 함께 이이(李珥)·성혼을 지지하며 동인 이산해(李山海)·유성룡(柳成龍)을 배격하는 소를 올렸다.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나주의 정렬사(旌烈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에 제향되었다.

1) 고전소설 『양산숙전(梁山驍傳)』

『양산숙전』은 조선후기의 문신인 김조순(1765~1832)이 지은 전(傳) 작품으로, 그의 시문집 『풍고집』에 수록되어 있다. 김조순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인데 어린 순조를 도와 국구(國舅 : 임금의 장인)로서 30년간이나 보필한 공적이 컸다. 그가 양산숙을 주목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양산숙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아닌 김천일의 부장이면서 한낱 유생에 불과했다. 양산숙을 자결하게 만든 2차 진주성 싸움은 비극적인 전투였다. 그 당시 장렬히 죽어간 인물들도 많았으며 의병장이었던 김천일은 본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결했다. 그런데 양산숙의 죽음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의리라는 유교적 덕목을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마도 김조순 역시 여기에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천일은 의병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산숙은 다르다. 실제로 패할 것이 두려워 도망간 장수와 의병들도 많았다. 김조순이 허구적 상상력을 보태어 쓴 「양산숙전」의 결말이 실제 사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볼 때 김조순은 양산숙이 죽음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를 주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즐거리

양산숙은 제주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석굴에서 나서 단군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고 그 후 신라 때 왕으로부터 작위를 받았다. 산숙은 용모가 단정하고 글 읽기를 즐겨하였다. 소경왕 때 오랫동안 나라가 태평하더니 당인들이 생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산숙은 백 리 밖에 집을 짓고 매일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체력을 단련시켰다.

산숙은 왜왕이 수길에게 살해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산숙은 적이 겹으로는 화해를 구하지만 실은 침략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산숙은 분을 못이겨 형과 함께 항소하여 시국의 어려움을 논하였다. 왕이 노하여 산숙을 옥에 가둔 것을 이정규가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해주었다. 왕은 왜국의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아주 거만한 답장을 보냈다. 산숙은 조현과 함께 도끼를 들고 도보로 췌에 이르러 왜국의 사신을 죽일 것을 상소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이듬해 수길이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대거 침입해 들어오니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산숙은 6월에 나주서 봉기하고 곧 북으로 가서 적을 막기 위해 각 요해처를 지켰다. 산숙은 천일을 도와 각지에서 적을 물리쳤다. 적들이 합병하여 침노하니 천일은 결전하려 하나 산숙은 병사의 적음을 들어 강을 따라 진을 치게 했다.

산숙은 7월에 배를 타고 외주에 이르러 임금을 뵈었다. 산숙은 임금 앞에 올면서 남쪽의 정세를 아뢰었다. 왕이 말하기를, “오랫동안 남쪽의 소식을 몰랐는데 너를 보니 남쪽에 강토가 아직 남아 있음을 알겠구나”라고 했다. 산숙의 두 손이 다 갈라져 있음을 보고 왕이 울며 손에 약을 바르게 했다. 산숙이 적을 물리칠 대책을 상주하니 왕이 받아들여 국력을 회복하게 했다. 산숙이 결사대를 묶어 성안에 들어가 대의를 설명하니 백성들이 많이 투항하고 또 내응이 되어 여러 지역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산숙은 세 길로 나누어 배 400여 척을 타고 양화어구에 주둔하여 성안의 적과 대결하니 적들은 감히 성안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산숙은 성안과 내응되게 하여 적을 무수히 살상하고 또 권울을 도와 해주산성 싸움에서도 공을 세웠다.

명나라에서 이여송을 파견하여 서경을 파하고 경성을 취하려 하였다. 산숙의 군이 경성 주위의 적진을 격파하여 경성에 접근하니 이여송이 놀랐다. 왜적이 경성을 불지르고 물러가다. 산숙과 여러 장병들은 불탄 경성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조정에서는 쌀을 내어 백성을 구제했다. 관훈이 적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 산숙은 매우 분개했으며, 부모·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는데 왜 막느냐고 말했다. 적이 영남으로 향하자 산숙은 함안까지 추격했다. 왜장 청정이 수만 군대를 모아 가지고 다시 진주를 침범했다. 누가 성을 비울 것을 권하니 산숙이 천일에게 말하기를, 성을 비우는 것은 적을 돕는 것이니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하면서 진주를 고수하고 명군에게 구원을 청함이 좋겠다고 했다. 천일은 산숙의 말을 받아들여 진주성을 지키기로 했고 주위 각주, 각현의 의병장들이 성안으로 모여들었다. 산숙은 성을 한 번 돌아보고 여럿에게 말하기를, 이 성은 갈 데가 없어 그야말로 배수진이라고 했다. 여러 번 명나라 장군 유정에게 출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정은 산숙의 계책에 탄복만 할 뿐 왜적을 두려워하여 출병하지는 않았다. 산숙은 유정이 출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남강을 헤엄쳐 성안에 들어오니 모두 놀랐다. 이튿날 적이 성을 공격함에 산숙은 기마대를 출격시켜 적을 격퇴하였다. 다음날 적이 진을 치니 산숙은 성 밖의 민가들을 다 철거시키고 적이 들어오면 불화살을 쏘게 하였다. 적이 공격하니 성안에서는 불과 화살, 돌 등을 일제히 내려 적을 물리쳤다. 적이 토산을 만들어 높은 데서 성을 공격하니 성안에서도 토산을 만들어 공격했다. 헤엄 잘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군과 관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적이 침범함에 여러 장병들이 죽기로 싸워 적을 반 이상 살상했다. 적들은 물러가지 않았고 비가 와서 성벽이 많이 허물어졌다. 산숙 이하 여러 장병들이 통곡하면서 죽기로 싸울 것을 각오했다.

6월 어느 저녁 비가 연속으로 내려 성벽이 많이 허물어져 왜병들이 개미같이 몰려들었다. 서북쪽 성벽이 허물어져 왜병이 들어와 수비군이 패했다. 활이 다하여 죽창과 나무로 싸웠으며 여러 장수들이 죽어갔다. 산숙은 천일을 부축하여 산위에 올라 북향 재배하고 남강에 몸을 던지려 하였다. 천일이 산숙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 강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살아서 후사를 도모하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권했다. 산숙이 울면서 “혼자 사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에 먼저 뛰어들어 죽으니 나이 33세였다. 천일 부자를 비롯하여 여러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 수가 6만에 달했다. 산숙의 형 산룡은 군량 때문에 밖에 있어 난을 면했다. 산숙의 시체를 찾지 못하여 옷으로 혼을 불러 장사를 지냈다. 산숙의 어머니 박씨와 산룡 등은 적을 피해 바다로 갔다가 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고, 산룡의 처 유씨와 여동생까지도 모두 죽었다.

3) 의미

‘양산숙전’에서는 양산숙이라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이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의 영웅적 면모를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여운과 감동,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조선후기의 문신이 김조순이 지은 ‘양산숙전’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 무명장수의 일대기적 형식을 취하는데 이 형식에 작자의 주관적 판단이 동반되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자의 주관적 판단이 그리는 허구화된 표현은 양산숙전에 골고루 나타나는데 이것은 작자가 양산숙의 의로운 행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으로 최후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산숙전은 분명 비극적 영웅서사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동시에 傳문학을 대표하여 단편적인 사실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자의 창의력에 의해서 하나의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엮어져 있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9. 조선 최고의 정원사

■ 소쇄원(瀟灑園)을 만든 양산보(梁山甫)

양산보는 은사 조광조(趙光祖)가 남곤(南袞) 등의 훈구파에게 몰려 전라남도 화순 능주로 유배되자, 세상의 뜻을 버리고 낙향하여 향리인 지석마을에 숨어 살면서 계곡을 중심으로 원림(園林)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소쇄원(瀟灑園)이다. 양산보(梁山甫)의 은둔생활(隱遁生活) 기간 중인 1520년부터 1557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다.

소쇄원의 '소쇄'는 본래 공덕장(孔德璋)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나오는 말로서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양산보는 이러한 명칭을 붙인 정원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자신의 호를 소쇄옹(瀟灑翁)이라 하였다.

소쇄원의 조성사상을 보면 주자(朱子)가 중국(中國) 승안현(崇安縣) 무이산(武夷山) 계곡의 경승지인 무이구곡(武夷九曲)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현실(現實)을 도피하여 은둔하는 행동양식이 깔려 있다. 당시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80년쯤 전에 중수하여 현재 2동이 남아 있다.

한편, 소쇄원에는 김인후(金麟厚)가 1548년(명종 3)에 지은 오언절구(五言絕句)의 48영(詠) 시(詩)가 남아 있다. 그리고 고경명(高敬命)이 1574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광주목사(光州牧使) 임훈(林薰)과 함께 광주 무등산(無等山)을 유락(遊樂)하면서 4월 23일 소쇄원에 들러서 보



았던 계원(溪園)의 사실적 묘사가 「유서석록(遊瑞石錄)」에 남아 있다. 또 소쇄원의 배치를 목판(木板)으로 새긴 「소쇄원도(瀟灑園圖)」가 남아 있다. 이 목판은 가로가 35cm, 세로가 25cm로 양각으로 판각되었는데 1755년 4월 하순(송정기원후 삼을해년청화 하완간(崇禎紀元後 三乙亥年淸和下浣刊))에 제작했다는 판각기가 새겨있어 소쇄원의 원형(原形)을 상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목판에는 위쪽에 김인후의 소쇄원 48제영(瀟灑園 48題詠)이 새겨있고 오른쪽 외곽에는 「창암촌 고암동 소쇄원 제월당 광풍각 오곡문 애양단 대봉대 응정봉 황금정 유 우암선생필(蒼巖村 鼓巖洞 瀟灑園 齊月堂 光風閣 五曲門 愛陽壇 待鳳臺 瓮井峰 黃金亭 有 尤菴先生筆)」이라 새겨 있다. 우암(尤菴)은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호이다. 이 소쇄원도(瀟灑園圖)에는 건물의 명칭 식물의 명칭, 지당(池塘) 계류의 조담(槽潭)이나 바위 다리 물레방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입구 담벽에는 원래 김인후의 소쇄원 48영(詠) 수제(手題)가 편액으로 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쇄원은 무등산의 북쪽 기슭에 있는 광주호의 상류에 위치하여 무등산을 정남쪽에 대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까치봉과 장원봉(壯元峰)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동서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또, 뒷산과 까치봉 사이의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계류를 중심으로 하여 산기슭에 터를 잡은 소쇄원의 바로 앞에는 증암천이 동서방향으로 흘러 광주호에 들어가고 있다.

정원의 평면적인 모습은 계류를 중심축으로 하는 사다리꼴 형태이며, 흙으로 새 메움을 한 기와지붕의 직선적인 흙돌담이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계곡의 굴곡진 경사면들을 계단상으로 처리한 노단식 정원의 일종이지만, 구성면에서는 비대칭적인 산수원림(山水園林)이다.

소쇄원은 기능과 공간의 특색에 따라 애양단구역(愛陽壇區域)·오곡문구역(五曲門區域)·제월당구역(霽月堂區域)·광풍각구역(光風閣區域)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애양단 구역은 이 원림의 입구임과 동시에 계류쪽의 자연과 인공물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애양단이란 김인후(金麟厚)가 지은 「소쇄원사팔영(瀟灑園四八詠)」 가운데 있는 '양단동오(陽壇冬午)'라는 시제를 따서 송시열(宋時烈)이 붙인 이름이다.

왕대나무숲속에 뚫린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입구 왼편 계류쪽에 약 18m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방지(方池)가 만들어져 있고, 과거에는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다.

이것은 장식용으로 오곡문 옆 계곡물이 흙대를 타고 내려와 위쪽 못을 채우고, 그 넘친 물이 도랑을 타고 내려와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어 있어, 이것이 돌 때 물방울을 튀기며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물의 약동을 건너편 광풍각에서 감상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위쪽 옆에는 계류 쪽으로 튀어나온 대봉대(待鳳臺)라는 조그마한 축대 위에 샷갓지붕의 작은 모정(茅亭)이 있는데, 이것은 근래에 복원한 것이다.

오곡문구역은 오곡문 옆의 담밑 구멍으로 흘러 들어오는 계류와 그 주변의 넓은 암반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계류의 물이 들어오는 수문 구실을 하는 담 아래의

구멍은 돌을 괴어 만든 높이 1.5m, 너비 1.8m와 1.5m의 크기를 가지는 두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낭만적인 멋은 계류공간의 생김새와 잘 어울린다. 이와 비슷한 기법은 1100년대(숙종연간)의 이실충(李實忠)이 만든 경기도 부천의 척서정(滌暑亭)에서 볼 수 있다.

오곡문의 ‘오곡’이란 주변의 암반 위에 계류가 Z자모양으로 다섯 번을 돌아 흘러 내려간다는 뜻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이 부근의 암반은 반반하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즐기기에 넉넉한데, 「소쇄원도」에는 한편에서는 바둑을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야금을 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제월당 구역은 오곡문에서 남서방향으로 놓여 있는 직선도로의 위쪽 부분을 말하는데, 주인을 위한 사적(私的) 공간이다. 제월당 앞의 마당은 보통의 농가처럼 비워져 있으며, 오곡문과의 사이에 만들어진 매대(梅臺)에는 여러 가지 꽃과 나무들을 심어 놓았다.

광풍각 구역은 제월당 구역의 아래쪽에 있는 광풍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방 기능의 공간이다. 광풍각 옆의 암반에는 석가산(石假山)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경방법은 고려시대의 정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광풍각의 뒤쪽에 있는 동산을 복사동산이라 하여 도잠(陶潛)의 무릉도원을 재현하려고 하였다.

제월당의 ‘제월’과 광풍각의 ‘광풍’은 송나라의 황정견(黃庭堅)이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사람됨을 평하여 ‘흉회쇄락여광풍제월(胸懷灑落如光風霽月)’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소쇄원의 조경식물로는 소나무 · 단풍나무 · 버드나무 · 참등나무 · 대나무 · 매화나무 · 복사나무

· 살구나무 · 벽오동나무 · 배롱나무 · 회화나무 · 치자나무 · 사계화나무 · 국화 · 파초 · 연꽃 · 철쭉 · 동백 · 난 · 측백나무 등을 심었다.

이들 가운데 소나무 · 매화나무 · 대나무는 국화와 함께 사절우(四節友)라 하여 선비들이 즐겨 심었던 것이며, 측백나무는 주나라 때 왕자의 기념식수로, 회화나무는 고관들의 기념식수로 쓰이던 나무들로, 그 풍습에 따라 자손이 성공하기를 비는 뜻으로 심었다. 현재는 당시에 심은 나무들 가운데 소나무 · 측백나무 · 배롱나무 몇 그루가 남아 있을 뿐이다.

소쇄원은 계류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의 언덕에 복사나무 · 배롱나무 등을 심어 철따라 꽃을 피우게 하였으며, 광풍각 앞을 흘러내리는 계류와 자연폭포, 그리고 물레방아에서 쏟아지는 인공폭포 등 자연과 인공이 오묘하게 조화되어 속세를 벗어난 신선의 경지를 방불하게 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시인 · 묵객 · 문사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던 곳이었으며, 그들이 남긴 시들이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다.

소쇄원은 보길도의 부용동원림과 더불어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별서(別墅: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 정원이다.

10. 중국 대륙의 양씨

중국의 양씨는 잉씨 후임이다. 동이소호부에서 기원하고 백이후대라고 할수 있다. 백익의 35세 대락(大駱)의 아들 비자(非子) 5세 후대 진중의 작은아들 강이 하양 양산(현재 섬서성한성남)이 양국을 건립하였다. 기원전 641년 진모공(秦穆公)이 병사를 파견하여 양나라를 침략하였고 양지를 소양이라고 불렀다. 그후 대부분 양씨 후손들은 진나라로 도망하였고 양씨를 사용하였다.

발원지를 보면 중국 섬서이고 대표인물은 양계초, 양실추, 양사성이 있으며 성씨에서는 제20위이며 군망당호를 보면 안정군, 의국당이다.

■ 기원

1) 양씨는 잉(嬴)씨와 요(姚)씨로부터 시작되었다. 성씨점범 '성전'의 기록에 의하면 진씨는 顓頊帝(전욱제) 고양씨의 직속후대이다. 진씨는 잉씨와 요씨의 후대이며 순제이후 백익은 우(禹)를 많이 도왔고 순(舜)을 위하여 조수(鸛雉)를 순복하여 순이 백을 잉(嬴)씨를 선물했다. 순은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잉씨 후임은 14개 성씨를 가졌으며 서주때 그들의 후손중 진중이 서영(西戎)을 공격하는데 공을 세워 주선왕이 진중 둘째 아들 강을 하양양산(현재 중국 섬서지역)에 보냈으며 양국을 건립하였고 그가 양강백(梁康伯)이다. 기원전 641년 진무공(秦穆公)이 양나라를 점령하고 양백의 후임들은 나라의 호 양을 성씨로 임하였고 강백이 양씨의 조상으로 되었다.

2) 희(姬)씨로 시작 되었다. 동주시기 주평왕(周平王) 아들 당(唐)이 남양(南梁)에 파견되었다. 사서기재에 의하면 동주초기 주평왕 희이구(姬宜臼)가 아들 희당(姬唐)을 남양(현재 중국 하남성 여주)에 봉하였는데 초나라에 병하였고 그의 자손이 양씨로 성을 하였고 안정양씨(安定梁氏)는 이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하남성의 양씨이다.

3) 회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왕이 선물한 성씨이다. 회족 양씨는 송신종(宋神宗), 조항(趙項)이 집정시기 선물한 성씨이다. 북송신종희녕년간(熙寧年間)(1068~1077년)에

외과의사가 이란에서 중국으로 왔는데 조정에서 그를 호의라 봉하고 송신종이 그를 한족명 양주(梁柱)라고 하였고 그의 후대들은 양씨라고 불렀다.

4) 선비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서 '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북위시기 선비족에 한 부락이 있었는데 북위효문제는 그들을 양씨로 고쳐주었다.

5) 직업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양주(两州)시기 어민으로부터 다리의 기둥을 양(梁)이라고 하였다. 하여 생성된 양씨이다. 고대의 하(河), 호(湖), 만(灣)지역에 사는 어민들이 양씨를 자신의 성씨로 사용하였다.

6) 흉노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6국시기 후진장령(后秦将领) 양국아(梁国儿)부터 시작되었고 제왕이 성씨를 선물한 것으로 본다.

7) 창족[羌族] : 중국 56개 민족중 하나의 시조이다. 남북조시기의 양레[梁勒]이다. 사서 '주서(周书)'의 기재에 의하면 감숙성 천수일대의 양희(梁熙)형제는 소수민족이지만 한족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였고 재능이 있는 명사로 되었다.

8) 저족(氐族)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조시기 탕창강(宕昌羌)으로부터 출시되었고 한화로 인한 성씨를 개변한 것으로 본다. 저족은 서이민족(西夷民族)의 일종이다.

9) 몽골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남성 여양현(河南省 汝阳县)의 도태보(陶台堡)란 곳에 생활하고 있는 양씨는 그들의 후임이다. 이 양씨의 선조는 쿠빌라이[忽必烈]의 5번째 아들이고 한족이름은 사언창(史彦昌)이다. 그의 아들은 원조(1280년)에 부친의 봉호를 가지고 운남왕으로 되었고 후에 영왕으로 불리웠고 그의 딸을 고려의 심왕(沈王)한테 시집보냈다. 여양몽골족 양씨의 제1선조는 양표(梁彪)이다.

10) 조선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토 성씨로부터 개변되었다. 제주시조는 양을나(良乙那)인데 후에 성씨를 양씨로 바꾸었다. 한국의 양씨는 주요하게 제주, 남원 두파로 나뉜다.

■ 분포

양씨 인구는 1,100만을 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20순위로 큰 성씨이며 전국인구의 0.93%를 차지한다. 분포를 보면 주요하게 광서 광동에 많으며 광서성에는 양씨 인구가 제일 많다(총 양씨

인구의 28.5%). 광둥성과 광서성을 합하면 53%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하남, 사천, 허북, 산둥성에 17%가 집결하였다.

■ 역대 인물

양홍(梁鴻) : 동한시인

양혹(梁鶴) : 동한 서법가

양기(梁冀) : 동한 장군 외척

양령찬(梁令瓚) : 당조화가, 천문의기제조가

양홍옥(梁紅玉) : 남송여장군

양호(梁灝) : 북송장원

양고(梁固) : 북송장원, 양호의 아들

양해(梁楷) : 남송화가, 감필인물로 유명하다.

양저(梁儲) : 명조 예부상서, 화개전(華蓋殿)대학사

양찬(梁贊) : 명조무술가, 용춘권왕(咏春拳王)

양계초(梁啟超) : 자산계급개양주의자 청조말기 무술변법리더.

■ 현대 인물

양수명(梁漱溟) : 현대사상가, 철학자, 교육가, 현대유가학의 대표인물 사회활동가, 애국민주인사

양실추(梁實秋) : 중국산문작가, 학자. 문학비평가, 번역가

양문도(梁文道) : 홍콩작가

양지산(梁芷珊) : 홍콩작가

양소빈(梁小斌) : 현대시인

양망봉(梁望峰) : 홍콩작가

제주도 양씨유적 순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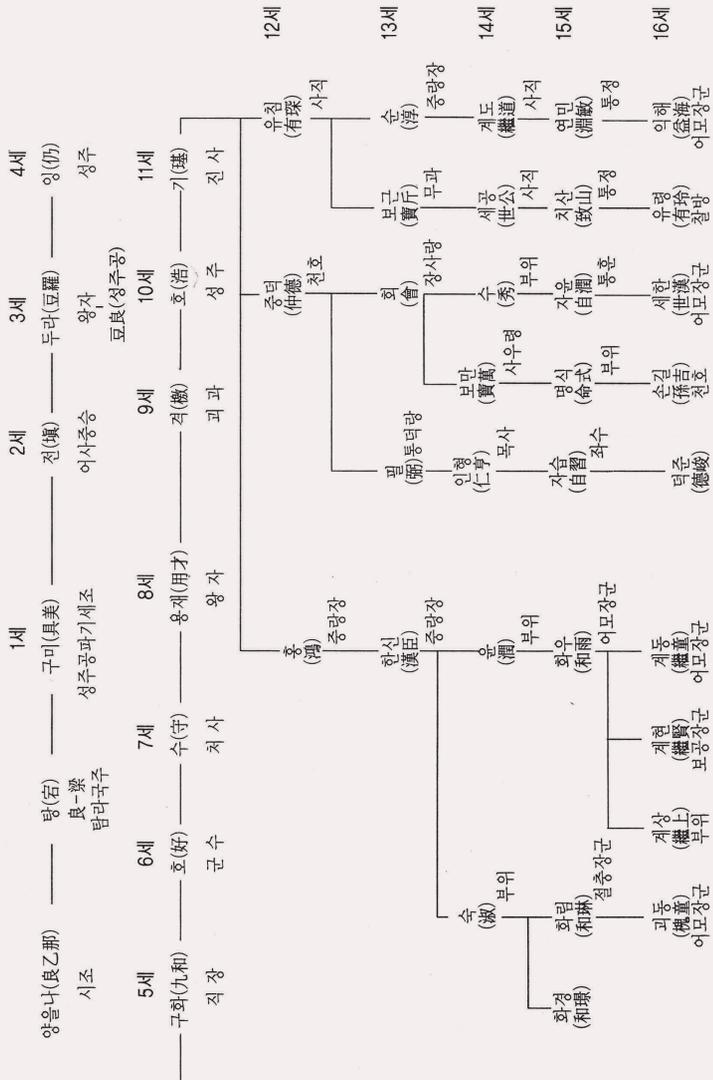
향후 '제주양씨유적 순례코스'를 만들어 답사 및 기행을 통해 문중의 행사와 교육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종친들의 관광코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1) 삼성혈(일도일동) : 삼성신화, 삼성사, 양세현 목사, 양현수 목사, 양성연 이야기
- 2)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일도이동) : 양현수 목사 비석, 훈민편 이야기
- 3) 혼인지(성삼읍 온평리) : 삼성신화 이야기, 신방굴 이야기
- 4) 제주항일기념관(조천) : 양씨 애국선열 이야기
- 5) 진드르(신촌) : 왕자 양호 이야기
- 6) 삼사석(화북) : 삼성신화 이야기
- 7) 제주목관아지(관덕정) : 양씨 제주목사 이야기
- 8) 양판사 옛집(일도일동) : 양씨종친회 탄생 이야기
- 9) 가령로(연삼로, 동광로) : 가령 양장의 현감 이야기
- 10) 양제해의 묘(오등동) : 양제해 난 이야기
- 11) 양씨 열녀비(아라동) : 열녀비, 열녀길 이야기
- 12) 양유성의 묘(검은오름 남동쪽) : 제주4절 양유성 이야기
- 13) 탐라왕자묘(서귀포시 하원동) : 탐라왕자 이야기, 왕자 양호 이야기
- 14) 양중해기념관, 카멜리아힐(안덕면) : 양씨 문인 및 사업가이야기
- 15) 건승원(유수암) : 양씨종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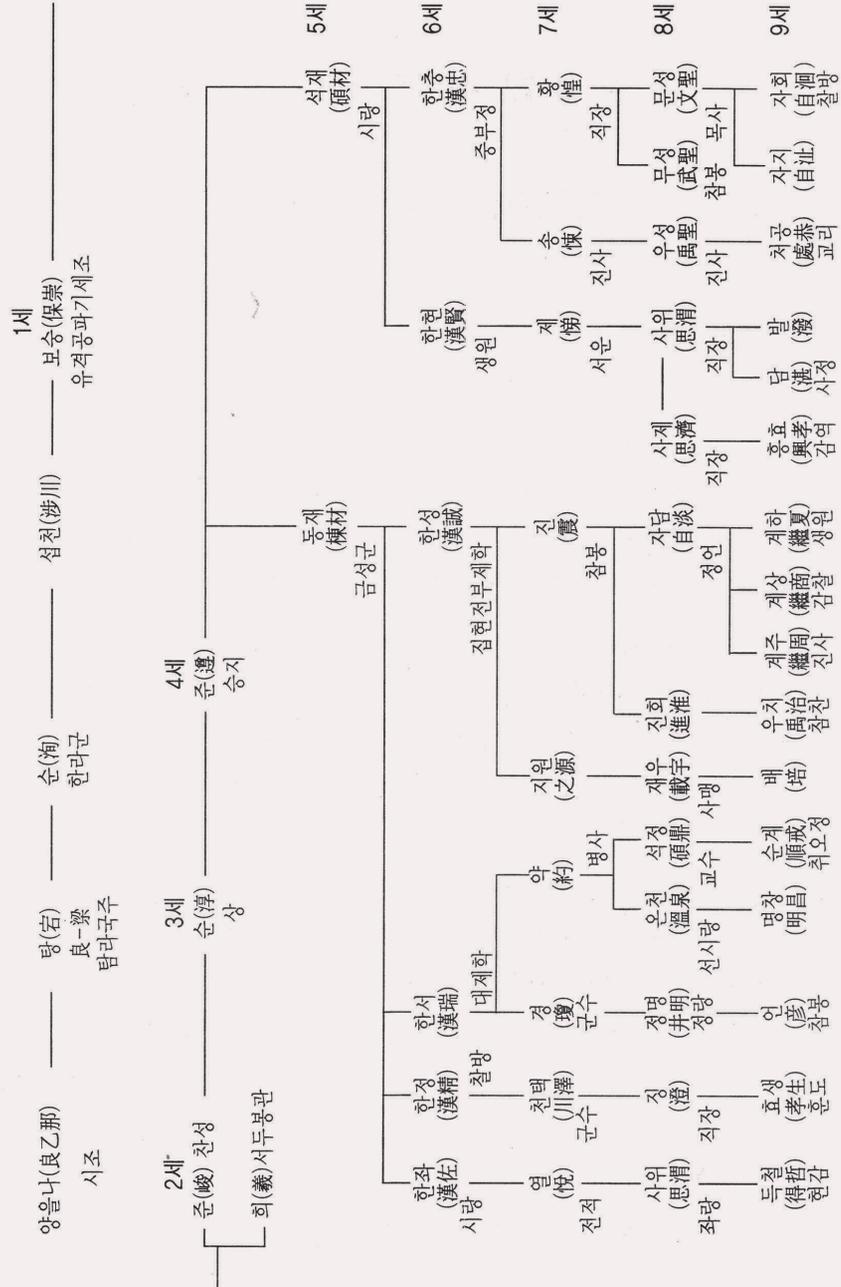


양(梁)씨 세계도(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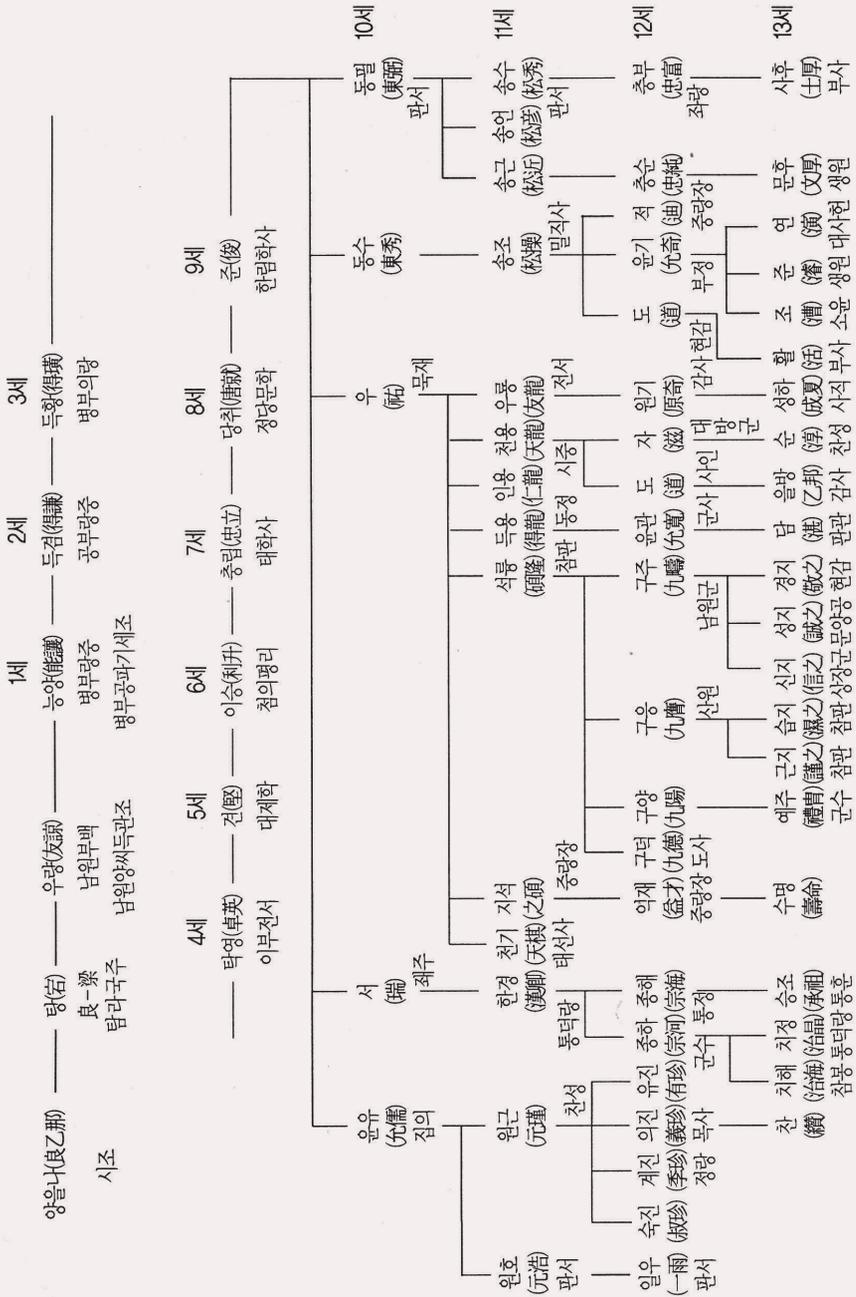
1. 제주양씨 성주공파 세계도(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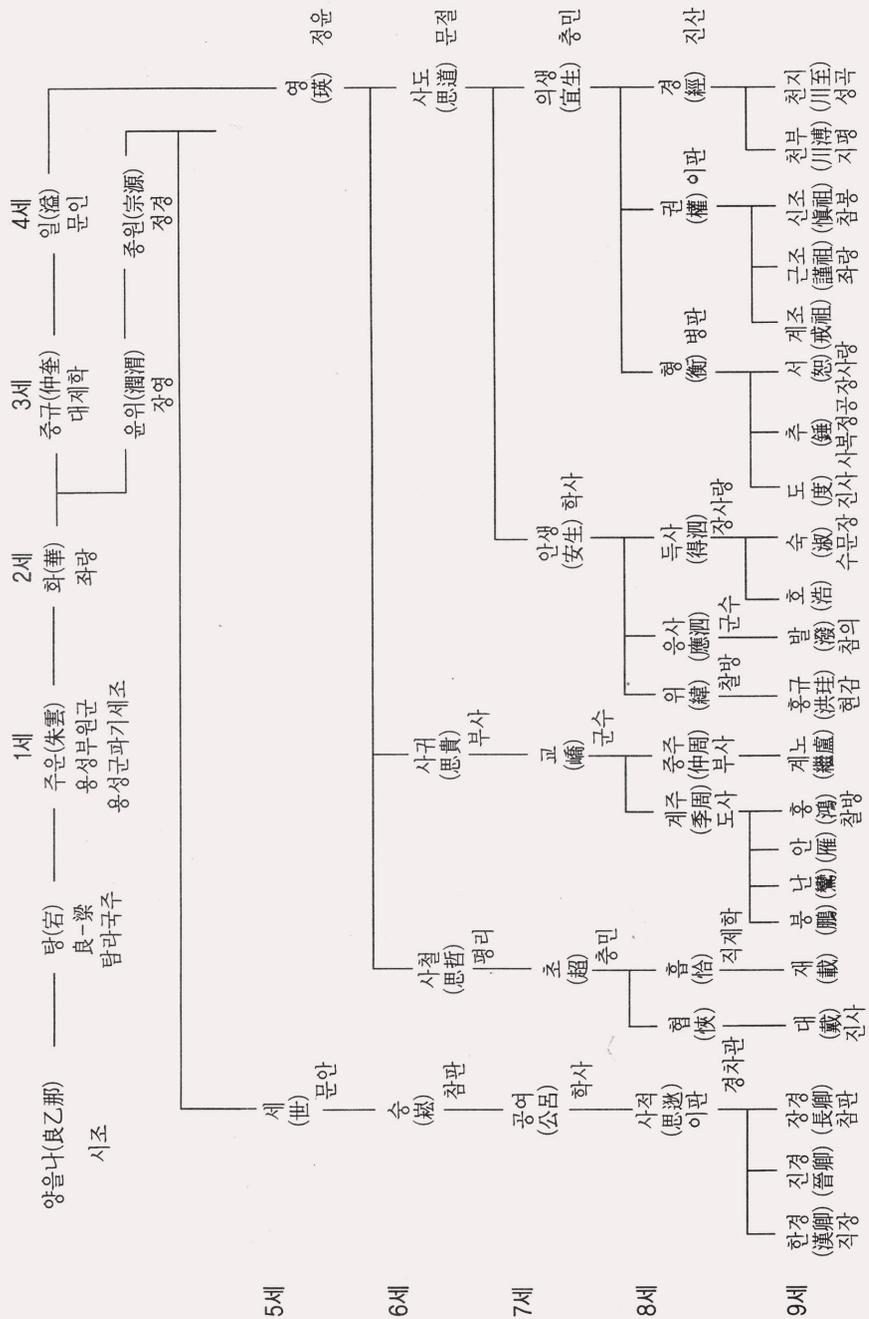
2. 제주양씨 하리군 파 세계도(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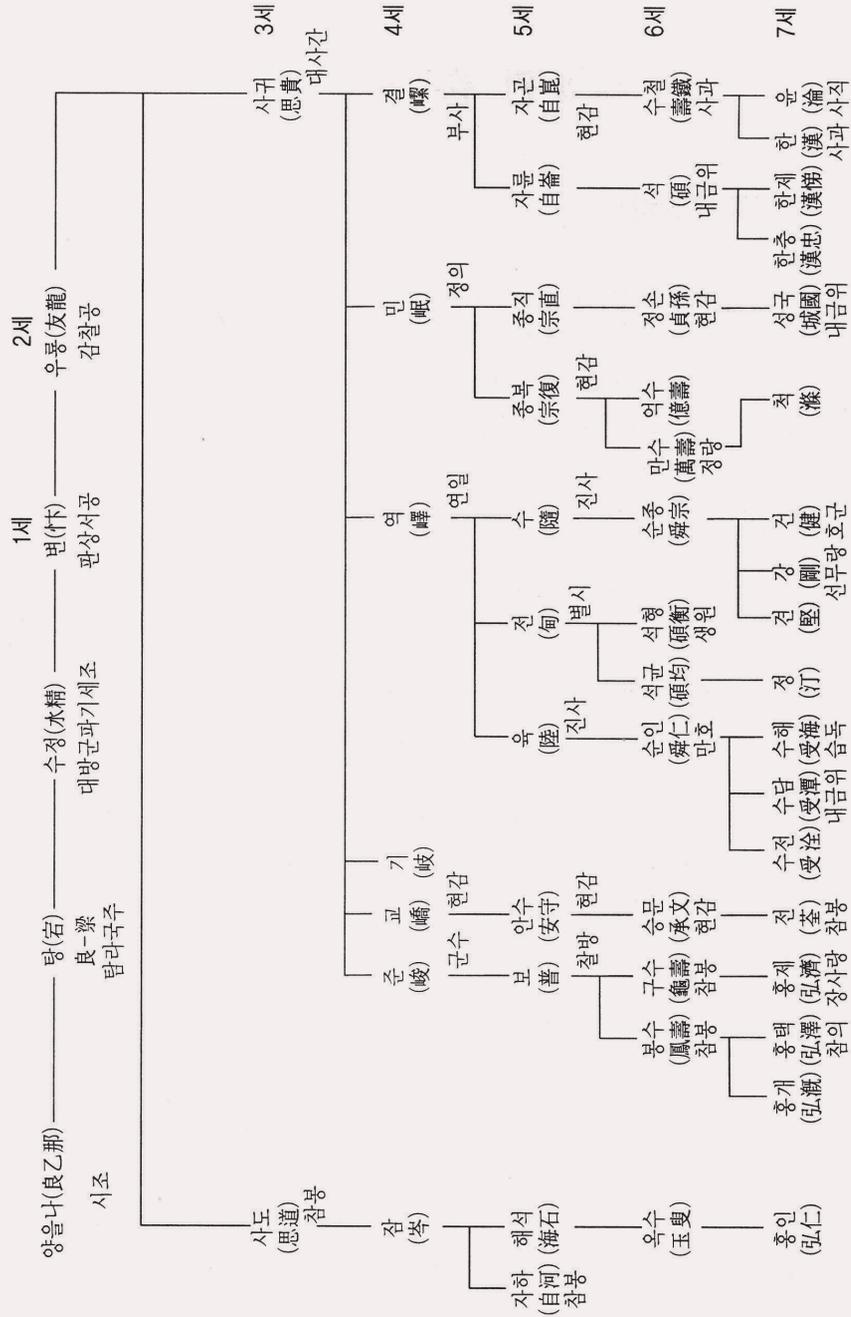
3. 남원양씨 병부공파(兵部公派) 세계도(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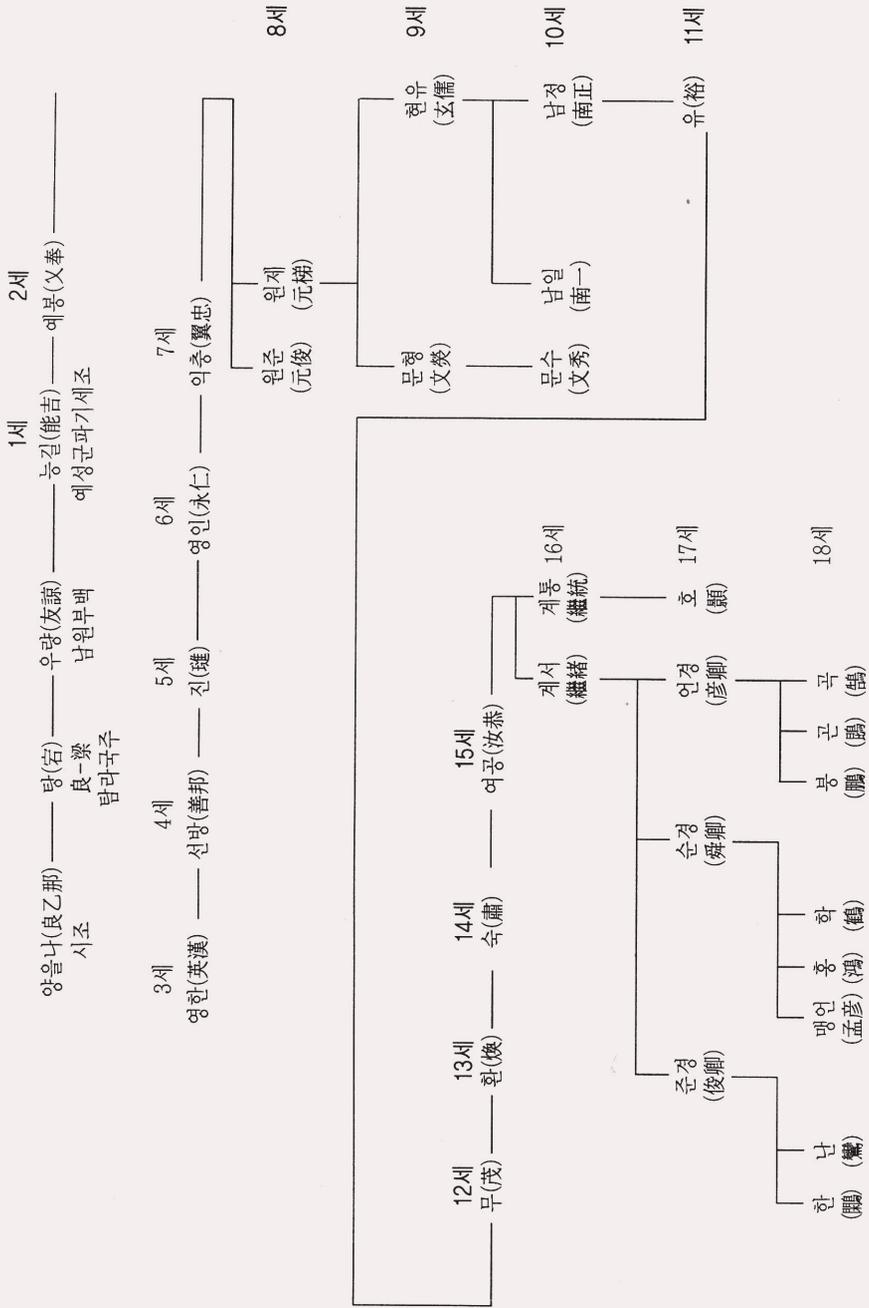
4. 남원양씨 용성부원군파(龍城府院君派) 세계도(世系圖)



5. 남원양씨 대방부원군파(帶方府院君派) 세계도(世系圖)



6. 충주양씨 예성부원군과 세계도(世系圖)



□ 승선의 길

광덕전 대제, 영경사 제례 홀기

□ 廣德殿 大祭 笏記 (광덕전 대제 홀기)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알자인 축급제집사입취배위)

알자는 대축이하 집사를 인도하여 절할 위치로 나아가시오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사배, 축이하개사배, 극궁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대축이하 여러 집사는 네 번 절하시오 (찬자연창)

詣盥洗位南向立 (예관세위남향립)

손을 씻을 위치로 나가서 남쪽으로 서시오

盥手, 各就位 (관수, 각취위)

손을 씻고 각 위치로 나가시오

謁者引獻官入就拜位 (알자인 헌관입취배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절 할 위치로 나가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有司謹具請行事

(알자진 초헌관지좌, 백, 유사근구청행사)

알자는 초헌관 왼쪽으로 나가 서서 지금부터 “행사하려 합니다.” 라고 아뢰시오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사배, 헌관개사배, 극궁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사배, 헌관은 네 번 절하시오 (찬자연창)

行奠幣禮 (행전폐례) 전폐례를 행함.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南向立 (알자인 초헌관 예관세위, 남향입)

알자는 초헌관을 손을 씻을 위치로 인도하고 초헌관은 남쪽으로 서시오

搯笏, 盥手, 執笏 (진홀, 관수, 집홀)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은 다음 홀을 바로 잡으시오

引詣耽羅國主神位前 (인예 탐라국주신위전)

탐라국주신위 앞으로 나가시오

南向立, 跪 (남향입, 궤)

남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搯笏, 三上香, 獻幣 (진홀, 삼상향, 헌폐)

홀을 가다듬고 세 번 향을 사르고 폐백을 드리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집홀,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홀을 바로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돌아 가시오

行初獻禮 (행초헌례) 초헌례를 행함.

謁者引初獻官詣樽所, 南向立 (알자인 초헌관예준소, 남향입)

알자는 초헌관을 술동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며작주)

집사는 술을 잔에 채우시오

引詣耽羅國主神位前 (인예 탐라국주신위전)

탐라국주신위 앞으로 나가시오

南向立, 跪 (남향입, 궤)

남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小退跪

(진홀, 헌작, 집홀, 부복, 흥, 소퇴궤)

홀을 가다듬고 잔을 드린 다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讀祝 (독축)

대축은 축문을 읽으시오

興, 平身, 引降復位 (흥, 평신, 인강복위)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行亞獻禮 (행아헌례) 아헌례를 행함.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 南向立 (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 남향입)
알자는 아헌관을 손을 씻을 위치로 인도하여 남쪽으로 돌아 서시오
搯笏, 盥手, 執笏 (진홀, 관수, 집홀)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은 다음 홀을 바로 잡으시오
引詣樽所, 南向立 (인예준소, 남향입)
술동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떡작주)
집사는 술을 잔에 채우시오
引詣耽羅國主神位前 (인예담라국주신위전)
담라국주신위 앞으로 나가시오
南向立, 跪 (남향입, 께)
남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搯笏, 獻爵 (진홀, 헌작)
홀을 가다듬고 술잔을 드리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집홀,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홀을 바로 잡고 부복하였다가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돌아 가시오

行終獻禮 (행종헌례) 종헌례를 행함.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 南向立 (알자인종헌관예관세위, 남향입)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을 위치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서시오
搯笏, 盥手, 執笏 (진홀, 관수, 집홀)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은 다음 홀을 바로 잡으시오
引詣樽所, 南向立 (인예준소, 남향입)
술동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서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떡작주)
집사는 술을 잔에 채우시오
引詣耽羅國主神位前 (인예담라국주신위전)
담라국주신위 앞으로 나가시오
南向立, 跪 (남향입, 께)
남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搯笏, 獻爵 (진홀, 헌작)

홀을 가다듬고 술잔을 드리시오

執筯,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집 홀,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홀을 바로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飲福受胙 (음복수조) 복주(福酒)를 마시고 조육(俎肉)을 받음.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알자인 초헌관에 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가시오

東向立, 跪, 搢筯 (동향입, 꿇, 진홀)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으시오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受爵, 飲啐爵,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집사자이자수헌관, 헌관수작, 음취작, 이수집사자, 집사자수허작)

집사는 헌관에게 잔을 드리면 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고 나서 집사자에게 빈 잔을 돌려주면

집사는 빈초잔을 받으시오

執事者以胙授獻官, 獻官授胙,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胙

(집사자이자수헌관, 헌관수조, 이수집사자, 집사자수허조)

집사는 헌관에게 조육대를 드리면 조육을 받아 먹은 다음 빈조육대를 집사자에게 돌려주면

집사자는 빈 조육대를 받으시오

執筯,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집 홀,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홀을 바로 잡은 후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제자리로 나가시오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사배, 헌관개사배, 극궁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사배, 헌관은 네 번 절을 하시오 (찬자연창)

撤饗豆, (철번두) 번과 두를 거두시오.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헌관개사배, 극궁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헌관은 네 번 절하시오 (찬자연창)

望燎 (망료) 폐백과 축문을 불사름.

謁者引初獻官望燎位 (알자인 초헌관망료위)

알자는 초헌관을 망료 위치로 인도하여 나가시오

西向立, 焚祝, 焚幣, 蓋燎, 引降復位

(서향입, 분축, 분폐, 개료, 인강복위)

서쪽을 향하여 서서 폐백과 축문을 불사르시오

謁者進, 初獻官之左, 白, 禮畢出 (알자진, 초헌관지좌, 백, 예필출)

알자는 초헌관 왼쪽으로 나가서 행사가 끝났음을 아뢰시오

初獻官以下次次出 (초헌관이하차차출)

초헌관이하 차례로 나가시오

以下參禮者入就拜位, 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이하참례자입취배위, 사배, 국궁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참례자는 절할 위치로 나가시오 참례자는 네 번 절하십시오

諸執事俱復拜位 (제집사구복배위)

집사는 모두 절할 위치로 나가시오

四拜, 國弓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次次出

(사배, 국궁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차차출)

집사는 네 번 절하십시오 (찬자연창), 집사는 차례로 나가시오

□ 永慶祠 祭禮 笏記(영경사 제례 홀기)

謁者引祝及諸執事詣盥洗位 (알자인 축급제집사에 관세위)

알자는 제집사를 손을 씻을 위치로 인도하여 나가시오

西向立, 盥手, 入就拜位 (서향입, 관수, 입취배위)

서쪽을 향하여 바로서서 손을 씻고 절 할 위치로 나아가시오

再拜, 大祝以下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대축이하개재배, 극궁배, 흥, 배, 흥, 평신)

대축이하 여러 집사는 두 번 절하시오 (찬자연창)

各就位 (각취위)

집사는 제자리로 가서 서시오

謁者引獻官詣盥洗位, 西向立 (알자인 헌관예관세위, 서향입)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 위치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바로 서시오

搢笏, 盥手, 執笏 (진홀, 관수, 집홀)

홀을 가다듬고 손을 씻은 다음 홀을 바로 잡으시오

引詣耽羅星主公神位前入就拜位 (인예 탐라성주공신위전입취배위)

헌관은 탐라성주공 신위 앞으로 나아가 절 할 위치로 서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謹行祭禮 (알자진 초헌관지좌, 백, 근행제례)

알자는 초헌관 앞으로 나가 제례를 시작하겠다고 사퇴시오

再拜, 獻官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헌관개재배, 극궁배, 흥, 배, 흥, 평신)

헌관은 두 번 절 하시오 (찬자연창)

行降神禮 (행강신례) 강신례를 행함.

謁者引初獻官詣耽羅星主公神位及從享諸神位前, 西向跪

(알자인 초헌관에 탐라성주공신위 급종향제신위전, 서향께)

알자는 초헌관을 탐라성주공 및 여러 신위 앞으로 인도하고 초헌관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搢笏, 三上香, 茅沙三祭 (진흙, 삼상향, 모사삼제)

흙을 가다듬고 향을 세 번 사르고 모사에 잔을 세 번 따르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집흙, 부복, 흥, 평신)

흙을 바로잡고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 서시오

再拜, 獻官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헌관개재배, 국궁배, 흥, 배, 흥, 평신)

헌관은 두 번 절 하시오 (찬자연창)

行初獻禮 (행초헌례) 초헌례를 행함.

謁者引初獻官詣神位前 (알자인 초헌관에 신위전)

알자 초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시오

西向跪, 搢笏 (서향께, 진흙)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먹작주)

집사는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獻爵 (헌작)

잔을 드리시오

執事者啓飯蓋正箸 (집사자계반개정저)

집사는 메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놓으시오

執笏, 初獻官小退跪 (집흙, 초헌관소퇴께)

초헌관을 흙을 바로잡고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執事者跪 (집사자께)

여러 집사도 꿇어 앉으시오

大祝進初獻官之左跪, (대축진초헌관지좌께)

대축을 초헌관 좌측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讀祝, 讀祝畢 (독축, 독축필)

축문을 읽으시오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모두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再拜, 初獻官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초헌관재배, 극궁배, 흥, 배, 흥, 평신)

초헌관은 두 번 절하고 몸을 바로 서시오 (찬자연창)

執事者撤盞返于 (집사자철잔반우)

집사는 술잔을 내리고 제자리에 놓으시오

行亞獻禮 (행아헌례) 아헌례를 행함.

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 (알자인아헌관에신위전)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西向跪, 搢笏 (서향궐, 진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으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떡작주)

집사는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獻爵 (헌작)

술잔을 드리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집홀, 부복, 흥, 평신)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再拜, 亞獻官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아헌관재배, 극궁배, 흥, 배, 흥, 평신)

아헌관은 두 번 절하시오 (찬잔 연창)

執事者撤盞返于 (집사자철잔반우)

집사는 술잔을 내리고 제자리에 놓으시오

行終獻禮 (행종헌례) 종헌례를 행함.

謁者引終獻官詣神位前 (알자인종헌관에신위전)

알자는 종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搢笏 (서향궐, 진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으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떡작주)

집사자는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獻爵 (헌작)

즐 잔을 드리시오

執事者飯插匙 (집사자반삽시)

집사는 메에 숟가락을 놓으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집홀, 부복, 흥, 평신)

홀을 잡고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終獻官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종헌관재배 국궁배, 흥, 배, 흥, 평신)

종헌관은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찬자연창)

行添酌禮 (행첨작례) 첨작례를 행함.

謁者引初獻官詣神位前 (알자인초헌관에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시오

西向跪, 搢笏 (서향궐, 진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가다듬으시오

執樽者舉罍酌酒 (집준자거떡작주)

집사는 술잔에 술을 따르시오

獻爵, 執事者添酌 (헌작, 집사자첨작)

잔을 드리면 집사는 잔을 받아 술잔에 세 번 따르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집홀, 부복, 흥, 평신)

홀을 바로잡고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再拜獻官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헌관개재배 국궁배, 흥, 배, 흥, 평신)

헌관은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찬자연창)

行侑食禮 (행유식례) 유식례을 행함

執事者撤羹, 獻熟冷, 三抄飯閉, 飯蓋, 掛匙, 下箸

(집사자철갱, 헌숙냉, 삼초반폐, 반개, 괘시, 하저)

집사는 갱을 내리고 승능을 올리고 배를 세 번 친후 뚜껑을 닫고 숟가락을 걸치고 젓가락을 내리시오

獻官及參禮者, 皆, 揖, 興, 平身 (헌관급참례자, 개, 읊, 흥, 평신)

헌관과 참례자 모두 잠시 묵념을 하시오

行飲福禮 (행음복례) 복주와 조육을 받아먹음.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알자인 초헌관에 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搢笏, 執事者以爵授, 獻官受爵, 飲啐爵, 以授, 執事者受虛爵

(서향궐, 진홀, 집사자이작수, 헌관수작, 음취작, 이수, 집사자수허작)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홀을 기다덤으면 집사는 헌관에게 술잔을 드리면 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고 나서 집사자에게 빈 잔을 돌려주면 집사는 빈 잔을 받으시오

執事者以俎授獻官, 受俎, 以授, 執事者受虛俎

(집사자이조수헌관, 수조, 이수, 집사자수허조)

집사는 헌관에게 조육대를 드리면 조육을 받아 먹은 다음 빈조육대를 집사자에게 돌려주면 집사자는 빈조육대를 받으시오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집홀,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홀을 바로잡고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자리로 가서 바로 서시오

行撤籩豆 (행철변두) 철변을 행함.

執事者撤籩豆, (집사자철변두)

집사는 변과 두를 거두시오

再拜, 獻官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헌관개재배, 구궁배, 흥, 배, 흥, 평신)

헌관은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찬자연참)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禮畢 (알자진 초헌관지좌, 백, 예필)

알자는 초헌관 좌측으로 나가 행사가 끝났음을 사퇴시오

獻官以下次出 (헌관이 하차차출)

헌관은 차례로 나가시오

參禮者入就拜位, 參禮者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참례자입취배위, 참례자재배, 국궁배, 흥, 배, 흥, 평신)

참례자는 절 할 위치로 나가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찬자연창)

執事者俱復拜位 (집사자구복배위)

집사는 절 할 위치로 나가시오

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재배, 국궁배, 흥, 배, 흥, 평신)

집사는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以下次次出 (이하차차출)

차례로 나가시오



□ 승선의 길

(재)고·양·부 삼성사재단 소개

□ 재단설립 : 1921년 11월 10일

□ 초대 삼성 대표 : 양상룡(梁翔龍), 고석중(高碩鐘), 부성찬(夫聖贊)

- 목 적 :
- 삼을나 시조의 존숭봉사
 - 삼성혈과 관련유적지의 성역화
 - 문화창달 및 육성사업
 -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 영위

□ 조 직

임 원		직 원	
계	12명	계	13명
이사(이사장 포함)	9명	사무국장	1명
감사	3명	관 리 부	5명
		업 무 부	7명

□ 제 향

구 분	제 향 일	장 소	현 관
춘기대제	4월 10일	삼성혈 삼성전	삼성 윤번제
삼을나비벽랑국 삼공주추원제	6월 10일	혼인지 추원사	재단 임원 윤번제
추기대제	10월 10일	삼성혈 삼성전	삼성 윤번제
건시대제	12월 10일	삼성혈 혈단	초헌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종헌관 : 기관장, 지방유지
탐라개벽신위제	탐라문화제 기간	삼성혈 혈단	초헌관 : 재단 임원 아·종헌관 : 탐라문화제 관계자
성화채화 제례	도민체전 기간	삼성혈 혈단	초헌관 : 재단 임원 아·종헌관 : 도민체전 관계자

▣ 삼성혈소개

1.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34호
2. 지정일 : 1964년 6월 10일
3. 면 적 : 33,833㎡ (지정구역 23,461㎡, 보호구역 10,372㎡)
4. 삼신인이 이곳에서 용출하여 수렵 생활을 하다가 오곡의 종자와 가축을 가지고 온 벽랑국(碧浪國) 삼공주를 맞이하면서부터 농경 생활이 비롯되었으며, 탐라왕국으로 발전한 성스러운 장소이다. 1526년(중종 21) 목사 이수동이 처음 표단과 홍문을 세우고 담장을 쌓아 춘·추 봉제(春·秋奉祭)를 시작한 이래 역대 목사에 의하여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매년 춘·추대제(春·秋大祭) 및 건시대제(乾始大祭)를 지내고 있다.

▣ 삼성혈 관련 유적 소개

1. 연혼포(延婚浦)
 - 소재지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변
 - 동해의 벽랑국에서 오곡의 종자와 가축을 가지고 온 삼공주를 맞이 했던 해변.
2. 혼인지(婚姻址:池)
 -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7호 (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693번지
 - 삼신인이 연혼포에서 벽랑국 삼공주를 맞아 각각 배필로 정하고 혼례를 올린 곳이며 이때 혼례를 위하여 목욕하였던 연못과 신방을 꾸몄다는 동굴이 있음.
3. 사시장울악(射矢長兀岳)
 - 소재지 : 제주시 봉개동, 용강동 한라산 북측 산록
 - 삼신인이 도읍(주거지)을 정하려고 활을 쏘 봉우리.
4. 삼사석(三射石)
 -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4호 (1971년 8월 26일 지정)
 - 소재지 : 제주시 화북1동 1380-1번지
 - 삼신인이 삼공주와 혼례를 올린 후 도읍을 정할 때 쏘 화살이 박혔던 돌

▣ 양씨 역대 삼성사 이사장

代	성명	재임기간	비고
初代	양상룡(梁翔龍)	1921. 12. 02.~1924. 12. 09.	고석중, 부성찬 공동대표
2代	양상룡(梁翔龍)	1924. 12. 10.~1927. 12. 09.	고석중, 부원병 공동대표
3代	양봉상(梁鳳祥)	1927. 12. 10.~1929. 12. 09.	고성후, 부자휴 공동대표
4代	양봉상(梁鳳祥)	1929. 12. 10.~1933. 12. 09.	고인도, 부자휴 공동대표
5代	양봉상(梁鳳祥)	1933. 12. 10.~1936. 12. 09.	고인도, 부자휴 공동대표
6代	양봉상(梁鳳祥)	1936. 12. 10.~1938. 12. 09.	고인도, 부자휴 공동대표
7代	양상룡(梁翔龍)	1938. 12. 10.~1940. 12. 09.	부우기, 고인도 공동대표
8代	양상룡(梁翔龍)	1940. 12. 10.~1943. 12. 09.	부우기, 고인도 공동대표
9代	양한중(梁漢鐘)	1943. 12. 10.~1945. 12. 09.	부원병, 고인도 공동대표
10代	양상룡(梁翔龍)	1945. 12. 10.~1947. 12. 09.	고인도, 부항석 공동대표
11代	양기은(梁基殷)	1947. 12. 10.~1949. 12. 09.	고인도, 부항석 공동대표
12代	양기은(梁基殷)	1949. 12. 10.~1951. 12. 09.	고인도, 부항석 공동대표
13代	양홍기(梁洪基)	1951. 12. 10.~1954. 12. 09.	고인도, 부항석 공동대표
14代	양홍기(梁洪基)	1954. 12. 10.~1957. 12. 09.	고인도, 부항석 공동대표
15代	양남전(梁南躋)	1957. 12. 10.~1960. 12. 09.	고담룡, 부원석 공동대표
16代	양남전(梁南躋)	1960. 12. 10.~1963. 05. 31.	고순식, 부영중 공동대표
18代	양부창(梁富昌)	1966. 07. 11.~1969. 07. 10.	
19代	양부창(梁富昌)	1969. 07. 11.~1972. 07. 10.	유임
23代	양태일(梁太一)	1980. 12. 10.~1983. 07. 09.	
26代	양명현(梁明鉉)	1987. 07. 11.~1989. 01. 09.	
29代	양태일(梁太一)	1993. 01. 12.~1995. 07. 10.	
32代	양상린(梁相麟)	1999. 07. 11.~2001. 01. 11.	
35代	양중해(梁重海)	2005. 01. 11.~2007. 01. 10.	
38代	양봉해(梁鳳海)	2011. 01. 11.~2013. 01. 10.	

회무보고

□ 2014년도

일시	장소	주요내용
14. 01. 03.	혼인지, 삼성전	• 2014년도 삼성사재단 신년참배 참석
14. 01. 23.	총회본부	• 제1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함.
14. 02. 08.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	• 2014년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함. • (재)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음.
14. 02. 27.	신제주 하와이호텔	• 청년회총본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14. 03. 13.	총회총본부	•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양씨건승원대제 봉향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14. 04. 01.	총회총본부	• 2014년도 건승원대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음.
14. 04. 10.	삼성혈	• 삼성사 춘기대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4. 04. 11.	건승원	• 건승원대제에 종친 300여명이 참례하였음.
14. 06. 10.	혼인지	• 벽랑국 삼공주 추원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4. 06. 18.	제주도청 민원실	• 비영리법인 (재)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함
14. 07. 08.	제주도청	• (재)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음.
14. 07. 29.	제주지방법원	• (재)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 등기를 접수하였음.
14. 10. 10.	삼성혈	• 삼성사 추기대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4. 10. 10.	총회총본부	• (재)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현판식 및 제1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였음.
14. 12. 05.	총회총본부	• 제2차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14. 12. 10.	삼성혈	• 삼성사 건시대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4. 12. 10.	총회총본부	• 제2차 재단 이사회의를 개최하였음.

▣ 2015년도

일시	장소	주요내용
15. 01. 03.	혼인지, 삼성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삼성사 신년참배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회, 이사회의 날짜 및 차기회장 선출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외 7인
15. 01. 12.	총회총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정보 부회장 외 4인 • 2014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양씨총회보 발간계획을 설명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외 26인
15. 01.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외 24인
15. 01. 30.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월읍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외 2인
15. 02. 12.	총회총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직공파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15. 02. 13.	삼성혈 송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우철 회장 외 2인
15. 02. 21.	하니 크라운호텔 별관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함. • 양정보 회장을 선출함. - 참석 : 양우철 회장 외 150여 명
15. 02. 24.	흑우명품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정보회장 외 1인
15. 0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읍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팔진 부회장 • 천호공파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정보 회장
15. 03. 01.	동명리민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림읍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구하 부회장 외 2인
15. 03. 08.	총회총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총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 2015년도

일시	장소	주요내용
15. 03. 10.	총회총본부	• 총회총본부 사무인계인수를 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2인
15. 03. 10.	삼성혈	• 2015년도 삼성사춘기대제 제관추대회의에 참석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15. 03. 16.	위미 대유가든	• 남원읍종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15. 03. 20.	제주 상공회의소	• 양조훈부회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15. 03. 21.	총회총본부	• 제2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신입 임원 상견례를 개최 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37인
15. 03. 22.	신촌가든	• 조천읍종친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15. 03. 29.	건승원	• 탐라양씨건승원 표지석을 건립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종친 다수
	건승원	• 건승원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15. 04. 02.		• 건승원대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 건승원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
15. 04. 05.	와룡원	• 사직공파종친회 시제에 참여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15. 04. 09.	민오름	• 천호공파종친회 시제에 참여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1인
15. 04. 10.	삼성혈	• 2015년도 삼성사 춘기대제 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5. 04. 10.	건승원	• 탐라양씨건승원 표지석 제막식에 종친 다수가 참석하였음.
15. 04. 11.	건승원	• 건승원대제에 종친 300여 명이 참례하였음.

일시	장소	주요내용
15. 04. 26.	송조추모원	• 중량장공파종친회에서 정기총회 및 시제를 봉행하였음. - 참석 : 양구하 회장 외 1인
15. 05. 01.	중앙종친회	• 중앙종친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출장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15. 05. 15.	종회총본부	• 제3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건승원대제 봉행 결과를 보고함. - 참석 : 양정보 회장
15. 06. 10.	혼인지	• 벽랑국 삼공주 추원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5. 06. 23.	어부도	• 삼중문화장 및 재단 이사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22인
15. 07. 18.	건승원	• 애월읍종친회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3인
15. 07. 19.	신례리 토종닭	• 남원읍청년회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구하 부회장 외 1인
15. 08. 21.	종회총본부	• 양씨종회보 편집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7인
15. 08. 25.	”	• 양씨종회보 편집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진건 교수 외 3인
15. 09. 09.	”	• 제3차 재단이사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이사장
15. 10. 10.	삼성혈	• 삼성사 추기대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15. 10. 11.	건승원	• 천호공파종친회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15. 10. 27.	종회총본부	• 양씨종회보 편집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 : 양정보 회장 외 6인
15. 11. 09.	”	• 역대회장 액자를 연결작업 및 시공하였음. - 시공업체 : 화인아트
15. 12. 10.	삼성혈	• 삼성사건시대제에 종친 다수가 참례하였음.

□ 집성촌 탐방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양 동 현

1276년(충렬왕 2) 사직공(司直公) 양기(梁琪), 양유침(梁有琛) 부자
제주시 가락천 동쪽 가락촌에서 이주하면서 설촌 유래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상가리(上加里)는 북쪽으로 애월리, 고내리, 하가리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용흥리와 소길리, 서쪽으로는 남읍리와 경계를 두고 있는 마을이다.

고려말기는 몽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탐라사회 역시 격동기였으며 당시 일본정벌을 계획하고 있었던 몽고는

탐라를 병참기지로 삼아서 병선 조달등의 협조를 탐라성주인 양호(梁浩, 양유침의 조부)에게 요구하였는데 성주인 양호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때마침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삼별초가 탐라로 입거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삼별초 토벌의 명분으로 여몽연합군이 탐라를 침공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반몽의 처지에 있던 성주 양호는 자국에서 일어난 내란(삼별초의 난)을 외세(몽고)를 끌어들이어 토핑하려고 한 고려조정의 처사에 협조를 거부하고 성주작위를 버리면서 촌야로 은폐하게 된다.(양공유침추원비문, 탁라우사) 그 은거지가 어디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양호의 향몽의지가 삼별초와 상통하였음을 생각할 때 그 곳은 삼별초의 거점지인 향파토성과 멀지않은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씨 사직공계파 시조인 양유침의 후손이 현재 24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제주양씨성주공파대동보)로부터 역산해 보면 양유침 선조는 지금으로부터 약 750여 년 전(1250년경)의 인물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상가리는 양유침 선조의 일가가 삼별초의 난 진압(고려 충렬왕 2년, 1276년)을 전후하여 이주하면서 설촌하였고 그 후 양씨 집성촌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가리의 옛 지명은 17세기 말 편찬 추정된 제주 옛지도에 가락촌(加樂村)을 비롯해 1702년(숙종 28년) 제작된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수록 화폭 한라장축에 가락(加樂)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7세기말 이전부터 가락촌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양유침 부자가 제주시



가락천변 가락촌(嘉樂村)에서 이주하면서 전 주거지명인 가락과 같은 음인 가락(加樂)으로 사용하였으며 더럭이라는 표기는 우리말을 이두(吏讀)식으로 발음하여 가(加)를 '더'로 락(樂)은 '럭'으로 변화하여 더럭으로 통용되어 왔음을 추정해 본다.

상가리는 주 작물인 감귤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마을 안에는 제주도 최고령목으로 1982년 '제주도의 나무'로 지정된 수령 1000년이 넘는 팽나무와



▲수령 1000년이 넘는 팽나무

역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380년 된 산물낭(진굴)이 마을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330여 세대에 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약 30% 이상인 250여 명의 양씨 후손들이 700여 년 동안 옛 선조의 유덕을 이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 특집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

경과보고, 설립취지문, 모금운동

발기인 대표 양 우 철

▣ 경과보고서

승조 근본의 孝의 실천적 도장으로 50만 梁門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양문의 빛나는 혈맥과 전통을 과시하는 건승원을 창건한지 15년이 지나가려는 해 2013. 2. 26. 양씨종회총본부 정기총회 때 본인이 회장에 추대되고 회장 취임 인사말씀 중에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의 포부와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본인은 50만 양문의 자존과 유덕을 지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을 것을 목표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역사적 자료수집과 사계의 권위자에게서 많은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무관청에서는 지방문화재는 커녕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우선 재단법인 설립부터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기록에 의하면

2004. 10. 중앙종친회가 주축이 되어 발기인이 선정되고 6파대종회가 중심으로 한 설립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고, 2006년에 들어가서는 아마도 누군가가 주무관청에 가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을 얻어 보기도 했었는데 당시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의 왈 '종친회 자체가 재단화한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립목적 시설물이 문화재로서의 등록이 있어야 재단법인 설립허가 대상'이라는 유권적 답변을 듣고서 재단법인 설립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 때 저에게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된다고 즉, 설립허가가 안 나온다고 강조한 분이 이런 주무관청의 답변을 듣고서 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2003. 5. 6. 7월, 2004. 10월, 2005. 4월, 2006. 3. 4월, 2007년여까지 설립추진위원회, 이사회의 등 연차적으로 회의를 열면서 설립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온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종회총본부 감사(태조, 경수, 판우)님께 설립추진을 따져라 했습니다.
감사 때 감사에게 건승원 창건한지 15년이 되는데도 재단법인 설립을 왜 안 하느냐? 지적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13년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정관 초안을 틈틈이 혼자 작성해 왔습니다. 정관 초안이 거의 작성이 되고 양진건 교수에게 재단법인 설립 취지문 작성을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재단법인 설립요건인 일정한 재산출연이 있어야 함으로 양씨건승원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15억1000만 원의 감정가격을 얻어 냈습니다.

이에 박차를 가해서

2014. 2. 8. 양씨종회총본부 정기총회를 성대히 마치고 비로서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설립 준비하는데 많은 협력을 해 주신 발기인들로 구성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예산 즉,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본인, 성범 총무이사가 작성한 것 가지고는 주무관청에서 인정을 못받아 결국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예산도 없는 사업계획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설립허가가 날 때까지 사업계획서 4번씩이나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고 예산없는 사업은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출연재산 중 부동산만 있고 동산(보통재산)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과 수 없이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6파대중회에서 각각 1억5000만 원씩 출연한다는 각서를 받아서 내밀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우철이를 믿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1년여 준비 끝에 결국 천신만고 끝에 금년 6월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제주도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일정한 재산(부동산 및 동산)의 출연 및 서면에 의한 정관 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민법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登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제주도청 소관 부서에서 강도 높은 심의를 거쳐 비로소 접수 1개월여만인 2014. 7. 8.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2014. 7. 16.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공증합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이어서, 양씨종회총본부란 명의 변경절차를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 등기를 마치고, 제주시청에 가서 양씨종회총본부 명의 등록 변경절차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4. 7. 23.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 등기를 제주지법에 접수시켰습니다.

2014. 7. 29. 이사 17명(정관에는 19명이지만 양씨건승원 부지 헌납한(故)성후 후손에게 이사 1인, 공로자 1인, 2석을 공석으로 함.)으로 된 정식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등기를 즉, 등기내용은

- 등기번호: 000704
- 등록번호: 220122-0007044
- 명 칭: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 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86-1
- 목 적: 정관 제4조 (사업목적) -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 자산의 총액 : 15억 1000만 원
- 출자의 방법 : 1. 보조금
2. 현성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으로 한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설립허가연월일 : 2014. 7. 7.
- 법인설립연월일 : 2014. 7. 29

2014. 8. 제주도내 우수한 3대신문 제주, 제민, 한라일보에 설립공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이란 재단법인이 탄생하여 오늘 여러 종친님들과 함께 역사적인 현판식을 가지고 이에 제1차 이사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건승원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지만 이제 막상 법인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더욱 고민에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이제부터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설립 허가 조건인 재단 운영재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운영재원(참고로 법인설립허가 조건 낭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건승원재단의 근본인 건승원을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어렵고 많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 후 1개월 내에 출연재산(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등기비용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 4. 11. 양씨건승원대제 때 높이 3m 가량의 제주 자연석으로 된 웅장한 간판을 양씨건승원 입구에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 현판식을 가지려 합니다.

그 동안 우리 50만 양문의 숙원이던 이 법인이 탄생하기까지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컸고 특히, 성주공 팔진, 영조, 정보 3계파 회장님, 원찬 박사, 중앙총친회 석승 회장, 종구 6파대 총회장, 조훈 이사, 만식 이사, 상택 청년회장 등의 협력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면에서 성범 총무이사, 영심 사무장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수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영심 사무장은 내가 이 사무실로 나오기만 하면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 후 오늘 이 행사 재단 운영 기초작업에 수고를 많이 한 재홍 사무처장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로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설립취지문

존경하는 양씨 종친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신라 373년 양(梁)씨 성을 비로써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첫 조상이 되신 양을 나의 후예로서 탐라국왕 탕(宕) 선조의 덕을 기리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7년의 노력 끝에 1999년 10월 11일 비로소 건승원(乾承原)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제 이 건승원에는 매년 4월 11일이면 국내외의 종친들이 모여 선조의 제사를 엄숙히 지내고 유지를 기림으로써 화합과 우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문(梁門)의 후예들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건승원을 유지하고 관리함은 물론 건립의 의미를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으나 무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건승원이 설립된 지 16년이 된 지금, 수익성 자산이나 보유 자금이 전무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자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승원문화재단 설립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승원문화재단은 건승원 제향(祭享)이나 보호유지에 관한 일은 물론이며 시급한 양씨종사(宗史)연구나 관련 문헌발간에 관한 사업과 함께 탐라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전승사업, 사회복지 증진사업 및 장학사업, 충효 및 전통예절교육, 제주도의 전통문화사업의 창달과 전승 등 다양한 일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나아가 다양한 국책사업도 유치할 수 있으며, 민과 관의 지원도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승원이 차체(車體)라면 문화재단은 엔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 양문이 먼 곳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차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차례 무위에 그쳤던 건승원문화재단 설립을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하오니 여러 종친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부디 양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감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양문의 가정에 선조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빕니다.

▣ 건승원 보수 공사비 모금운동

이사장 양 정 보

존경하는 양씨 종친 여러분.

우리는 첫 조상이 되신 양을나의 후예로서 탐라국왕 탕(宕) 선조의 덕을 기리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7년의 노력 끝에 1999년 10월 11일 비로소 건승원(乾承原)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제 이 건승원에는 매년 4월 11일이면 국내외의 종친들이 모여 선조의 제사를 엄숙히 지내고 유지를 기림으로써 화합과 우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문(梁門)의 후예들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건승원을 유지하고 관리함은 물론 건립의 의미를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4. 2. 8. 창립총회를 거쳐 문화재단으로 설립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건승원문화재단은 건승원 제향(祭享)이나 보호유지에 관한 일은 물론이며 시급한 양씨종사(宗史)연구나 관련 문헌발간에 관한 사업과 함께 탐라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전승사업, 사회복지 증진사업 및 장학사업, 충효 및 전통예절교육, 제주도의 전통문화사업의 창달과 전승 등 다양한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승원이 준공 된지 16년이 된 지금, 매년 간간히 부분적인 수리를 하여 왔으나 기와의 동결파손, 창호의 부식, 단청의 빛바램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시급히 대대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된 지 오래지 않아 공사비 3억3천5백만 원이라는 기금이 전무한 현실로 부득이 모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친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부디 양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감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양문의 가정에 선조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설립 헌성금 모금 현황

헌성자	금 액
양 정보 회장	10,000,000
양 구 하 상임이사	10,000,000
양 원 찬 이사	10,000,000
양 화 경 이사	10,000,000
양 영 조 이사	3,000,000
양 용 만 이사	3,000,000
양 팔 진 이사	2,000,000
양 동 진 고문	2,000,000
양 창 현 이사	2,000,000
양 봉 진 이사	1,000,000
양 종 구 이사	1,000,000
양 조 훈 이사	1,000,000
양 송 남 이사	1,000,000
양 태 조 감사	500,000
총 계	56,500,000

입금 계좌번호 : 제주은행 03-01-111432 재)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아름다운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은 건승원 제향이나 보호유지, 양씨종사연구, 사회복지 및 장학사업, 충효 및 전통예절교육, 전통문화사업 등 다양한 일을 하고자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양씨유적지순례 등 여러가지 일들을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건승원 재단의 기본자산 조성을 위한 뜻있는 분들의 아름다운 기부를 기대합니다.

- 문의 :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064-751-0811)
- 입금 : 03-01-111432(제주은행)

*기부금에 대해선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梁門을 빛낸 인물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마이클 양(梁民正)

양민정은 1961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1976년 14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Silicon Valley, San Jose)로 이민을 간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민정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컴퓨터 산업 부문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여 콜롬비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 했고 버클리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회사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고, 1998년 당시 인터넷쇼핑이 활성화 되면서, 각 쇼핑몰들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윤여결(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출신, 와이즈넷 창업자)과 함께 2만5천 불로 37세의 나이에 세계 최초의 가격 비교사



▲왼쪽부터 이수동 STG 회장, 마이클 양 비컴닷컴 이사회의장, 세라 페이지 스내페드 공동대표

이트 마이사이먼닷컴(Mysimon.com)을 창업하여 2년 만에 한 해 1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2000년에는 Mysimon.com을 Cnet에 7억 불에 매각하여, 실리콘밸리 IT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04년에는 온라인 쇼핑 검색엔진 기업인 비컴닷컴(Become.com)을 설립하고 이 분야의 명실공이 실력자로 자리 잡는다. 2010년 미주지역 한인 대표자회의(CKA) 회장으로 취임하여 백악관에서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한인 사회의 경제지표를 주제로 한 브리핑모임도 주재하는 등 다방면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수상하였다. "아이디어를 짜고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응용하는 창업은 언제나 흥미롭다."고 강조하는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칠십이 된 노로의 신사가 청바지 차림으로 젊은이들과 사업의견을 교환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경험과 패기 그리고 열정이 더하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 濟州가 낳은 천재 뮤지션 양방언(梁邦彦)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양방언(梁邦彦)은 일본 도쿄에서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출신의 아버지와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1960년 1월 1일에 출생하여 5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학생 시절의 밴드 활동에서 시작하여 일본 니혼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키보드 연주자, 작곡가, 사운드 프로듀서로서 1980년에서 1995년까지 많은 레코딩, 라이브에 참가했다. 락, 재즈, 클래식, 국악, 월드 뮤직 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96년 일본에서 첫 솔로 앨범인 'The Gate of Dreams'를 발매하였다. 이후 솔로 명의로 7장의 앨범을 출시했으며, 'Into The Light' 이후 런던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유명 관현악단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발매된 'Pan-O-Rama'는 한국에서 양방언 명의로 발매되어 좋은 평가를 얻었고, 앨범에 수록된 'Frontier!'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의 공식 주제가로 채택되었다. 또한 다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2010년 민선 5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2011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대사, 2014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평화 예술 홍보대사를 역임 했고, 2007년에는 제27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다.

▣ 나눔로또 대표이사 양원돈(梁元敦)

나눔로또 대표이사 양원돈(梁元敦·59)은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주세무서장, 여의도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등을 역임하여 22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이후 민간 기업으로 옮겨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사장과 하이마트 재경본부장(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3년에는 유진기업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양 대표는 2015년 10월 15일 역대 최대 규모인 '제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APLA) 총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나눔과 기부의 한국 복권문화를 해외복권기관에 알려 한국 복권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자체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T기술 및 인프라 등 세계정상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국산 온라인 복권 시스템의 해외수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7대 경기도 광명시 시장 양기대(梁基大)

양기대(梁基大·1962년 10월생)는 대한민국의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2010년 제5회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안병식을 누르고 제16대 광명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내 최다득표율 61.1%를 얻으며, 제17대 경기도 광명시 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전라북도 군산시가 고향이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출신이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달의 기자상'을 7번, '한국기자상'을 2번 수상했다. 2004년 처음 정치에 입문해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등을 거쳐 2010년 제16대 경기도 광명시 시장이 되었다. 2013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 분야'로 2회 연속 수상을 했고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혁신경영 부문'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양기대 시장의 저서로는 '희망은 힘이 세다', '양기대의 열정', '기대하시라, 광명' 등이 있다.

▣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양현석(梁鉉錫)



양현석(梁鉉錫·1970년 1월생)은 YG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이사이자, 前 래퍼이다. 댄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이미 수십억의 수익을 달성했던 양현석은 동생 양민석과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음반기획과 동시에 주식과 부동산 등에 꾸준히 투자를 하여 이미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써 연 100억대의 매출 규모의 음반 제작 이외에, 방송영상물, 음반제작사인 뽀엔터테인먼트의 신규상장으로 2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겼으며, 자회사인 YG엔터테인먼트 역시 2011년 말 우회상장이 아닌 직상장에 성공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게다가 상장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빅뱅과 2NE1에 치중된 매출비율을 싸이와 에픽하이 영입으로 해소하려 했는데, 싸이가 발표한 6집 앨범에 수록된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연예계 최고 주식부호가 되었다.

그는 2003년 《SBS 가요대전》 올해의 음반 프로듀서상, 2011년 제2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2013년 제2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프로듀서상, 2013년 한국뇌과학연구원 선정 '2013 한국 대표 파워브레인', 2014년 빌보드 매거진 선정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즈', 2014년 제3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프로듀서상 등을 수상했다.

▣ 배우 양미경(梁美京)



제주출신 양미경 (梁美京 · 1961년 7월생)은 1983년 KBS 공채 10기 탤런트로 데뷔하였다. 데뷔 후 2년간 단역에 출연하였고,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단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착한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연기했다. 2003년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극 중 장금 엄마의 절친한 친구이자, 장금의 스승인 한 상궁으로 열연, 그해 연기대상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후 '군세어라 금순아', '해를 품은 달' 등에서도 가슴 시린 모성에 연기를 선보였다. 현재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에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1985년 KBS 연기대상 신인상, 2000년 KBS 연기대상 조연상, 2003년 MBC 연기대상 연기자 부문 특별상 《대장금》, 2004년 제4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인기상 《대장금》, 2006년 제40회 납세의 날 국무총리표창, 2008년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 한류공로상, 2009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공로상, 2011년 제4회 한국나눔봉사대상 개인부문 대상, 2012년 MBC 연기대상 여자 황금연기상 《해를 품은 달》, 《메이퀸》 등을 수상했다.

▣ 목포 유달 '전국 국악대전' 대상 양지은

제주시 한림읍 출신 '미래 명창'인 양지은은 제5회 목포 유달 전국 국악대전 일반부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지은은 이번 목포 유달 전국 국악대전에서 「심청가」를 열창, 심사위원 전원의 만점을 받는 등 '신이 내린 목소리'란 극찬 속에 대상을 거머쥐었다. 지은은 그동안 국악 입문 이래 제10회 목사고을 나주 전국 국악 경연대회 대상, 제2회 목포판소리 학생전국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제12회 서울 전국 국악경연 우수상, 제4회 전국 국악대제전 장려상 등을 받았다.



부친은 前 북제주군의회 의장인 양보윤씨 이다.

▣ 육사 69기 수석 졸업 양주희



27일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69기 육사생도 졸업식에서 양주희 생도가 수석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제주 신성여고를 졸업한 양주희는 입학 당시엔 예비합격자 신분이었지만, 4년간 부단한 노력으로 수석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다. 양 생도는 학업성적·적성·체력·내무생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주희는 마라톤 풀 코스에 두 차례 도전해 한 차례 완주하는 강철 체력을 보이기도 했다.

(1990년 3월생, 제주시, 성주공32세, 제주시 신산로 83-2)

▣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梁珉種)

양현종(1988년 3월생)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현재 KBO 리그의 KIA 타이거즈에 투수로 소속되어 있다. 현종은 광주동성고등학교 재학중 2005년 제3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선발 투수였던 한기주에 이어서 구원 등판하여 승리 투수가 되었다. 동성고등학교 시절부터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로 프로 팀 스카우트의 주목을 받았고, 2007년 신인 지명에서 KIA 타이거즈의 2차 1위 지명을 받고 입단하였다. 2014년에도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켜내었으며 국내선수 중 다승 1위, 탈삼진 1위, FIP 1위, FWAR 1위의 호성적을 남겨 초대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제 51회 대중영화제 신임감독상 양우석



양우석(1969년 10월생)은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영화 '변호인'을 연출하여 2014년 제9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감독상, 2014년 제19회 춘사영화상 신인감독상, 2014년 제16회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2014년 제16회 우디네 극동영화제 블랙 드래곤 관객상, 2014년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감독상, 2014년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작품상, 2014년 제51회 대중영화제 신임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梁門 문학

바람의 땅에 서서



양영길

추사 선생님,

선생님의 숨결이 아직 식지 않은 단산(檀山)의 서당엔 한라산에서 유배온 산방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내시던 변방의 극지(極地)엔 낯선 바람이 밤마다 지게문을 흔들었겠지요.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던 어렸을 적 제 얼굴이 저의 시간을 몹시도 흔든답니다.

선생님을 뵈고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자주 찾던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바람도 파도소리도 물새소리도 모두 낮이 설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차게 저의 가슴을 두들겼고, 파도소리는 심장의 박동을 따라 밀려오고, 물새소리는 늘 그리움의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밝혀드는 집어등 불빛이 불면을 밝혀주는 그만큼의 거리에서...

추사 선생님,

낯선 바람이 한라산을 넘보면서 섬을 흔들었습니다. 산그림자가 휘청거렸고 바다는 밤새 울었습니다. 멀고 높은 수평선이 선생님과 저의 시간에 성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약력

시인, 문학평론가, 문학박사

시집 『바람의 땅에 서서』, 『가랑이 사이로 굽어보는 세상』

저서 『한국문학사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문학과 문학사 인식』

『이론을 뛰어넘는 문학 이야기』 등

장독

어렵사리 한 세상 겪고 가신 어머니
시름 한 가닥 남겨둔 곳 같은
낡은 장독
금 간 가슴에 물기가 배어나오네

어찌다 살펴보면 텅 빈 향아리
세상 다 비워버린 어머니 속 같아
그래도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쓰지는 않지만 물만 가끔 채워두는

이별처럼 텅 빈 가슴이지만
추억은 한 귀퉁이도 허물지 않았는 듯
넓게 열린 온전한 몸으로
무한한 하늘 다 받아들여더니

등허리를 따라 기어오르던 담쟁이가
장독 속에 고개 들이밀어
속내를 보이지 않던
어머니의 미련 하나쯤 보았는가
새 십 하나 더 *윤지게 내미는데

쉬지 않고 스며들던 세월이
오늘은 장독을 스치다가
메주를 담그던
어머니의 마른 손이 생각났는가
저리 서럽게 한참을 울고 있네

* 윤기가 있게

▶약력

한국현대시인협회, 제주문인협회 회원
제주문학상, 열린문학상, 한국자유시인상 수상
시집<동사형 그리움><허천바레당 푸더진다><도두봉 달꽃><나는 둘이다>외



양 전 형

폭 낭

제주도에서 큰길을 따라가면
마을 한가운데 폭낭¹⁾이 있다
커다란 몸통에서 뺨은 큰 가지마다
올레²⁾가 나뉘지고
잔가지 끝에는 무성한 초가들이 매달려있다
고만고만하게 하늘로 뺨은 가지들은
형클어지는 일 없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낸다
나무는 마르지 않고 사철 길을 만들어내지만
가까이 드러다 보면 고름이 흘러내린 자국들
개미들은 상처를 핥으며 종일 들락거린다
일 년에 두어 번 심한 비바람에
바다 위로 시체가 떠오르면
밤새 울음소리가 징징
마을 끝 수평선까지 달려 나갔다
징소리로 나무의 아픔을 달래고
떨어진 잎새 자리에
이름 석 자, 지전(紙錢), 물색(物色)³⁾ 걸어두면
나무 아래 채송화까지 붉어졌다
4·3 시절 밑동이 잘려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나무를 에워싼 돌담 덕분이었다
지금은 마을을 찾아오는 이정표
펄럭펄럭 관광객을 마중하는 깃발은
그리움으로 가장 먼저 손을 흔든다
올레를 돌고 도는 소문들이 모여 살고
둥근 파문을 제 몸속에 가라앉히는 나무
만장이 너풀거리는 기둥으로
수백 년 마을을 버티고 서 있는 나무
제주도에는 풍낭을 배경으로 마을이 살아간다



양 원 흥

▶약력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박사과정,
방송제작론 강사, 제주MBC TV제작부장,
편성제작국장 역임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2010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제주작가회의 회원, 한국시문학회 회원, 시현장 동인

1) 팽나무의 제주어
2) 큰 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
3) 종이돈과 색있는 옷감

세한도를 해체하다.

1) '다빈치의 꿈'
세한도를 해체했다
뿔조각과 세포조각
혈관의 조각들로 나뉘어져
단순한 역사의 흔적은 버렸다
왼쪽 오른쪽 대칭의 구조와
위로 아래로 여백의 비밀들이 한 겹씩 벗겨진다
부활한 디지털 세한도
날아다니는 비행기 간간이 들리는 새 소리
달이 흐르고 불빛이 흔들리며
현재의 나, 과거 속으로 끌어들인다
사각 디지털 프레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은
소통의 틀을 저울질 하며 흐르고 있다
부여된 코드에 따라 주어져 그 시간에 맞춰 흐르는
과거의 경계를 뛰어 새로운 울림으로 조립된
그들만의 언어, 신비롭다
해체되고 조립되고
다시 해체되고 다시 부활하는
생각의 과정을 통해 생명의 세례를 받을
다빈치의 꿈
잠금장치를 풀어헤치고 새로운 모습 꿈꾸며
프레임 밖으로 걸어 나간다
때론 살아있음을 자각한다

양민숙



1)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본 작품들의 테마

▶약력

2004년 <시사문단>으로 등단
제주문인협회 회원, 한수물문학회 회장,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관장
시집 <지문을 지우다>

느리게 산다는 것

▶약력

「문예사조」수필등단
제주일보 제주논단 집필위원
수필집 : 「행복의 미로」외



양길주

오늘의 삶은 속도의 현기증에 비틀거린다. 느린 것은 태만이고 무능이라는 듯 문명의 메커니즘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빠르게, 더 빠르게. 우리의 삶도 그것들의 속도에 맞추어 운행되어야 할 판. 그러니 생체리듬 따위는 아랑곳없음이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리듬의 규칙성은 느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연현상이나 생명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내포된 고유의 리듬, 밤과 낮의 변화, 계절의 순환, 조수의 간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소화가 이루어지고, 하루의 일정 부분은 휴식과 수면으로 채워져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들.

그걸 깨달았음인지 요즘 행복 찾기의 메가트렌드는 ‘느림’이다.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온 삶들, 어느 날 문득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낮섭이다. 내 정체성마저 가물거린다. 흔들리는 나를 바로 세우려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겠다며 산촌으로, 농촌으로 되돌아간다.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주말농장을 찾아 가족끼리 팜방울을 흘리거나 옥상 텃밭에서 초록의 생명을 키우며 가쁜 숨을 고르기도 하고. 그러다 오늘처럼 하늘이 고운 날은 홀로 아니면 짝 맞춰 올레길을 걸으며 처연하리만치 제 정체성에 충실 하는 자연 속으로 빠져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호젓한 올레길을 찾았다. 유명세를 타는, 그래서 사람들이 왓자지껄 모여드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나 홀로 자연의 미성微聲에 귀 기울이며 내 안의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한적한 숲길. 도심의 일상에서 사람에 치이며 기계문명에 얽매어 살았으면 되었지 이런 자연 속에서마저 사람들이 내뿜는 소음에 시달리기는 싫은 것이다.

한라산 줄기 따라 흐르는 생태 숲길. 아마 천상의 무릉도원이 이런 곳이라.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쭈쭈 솟아올라 하늘보기 하는 모습이며, 잎파랑이에서 내쏘는 반사광은 가히 황홀경이다. 간혹 오가는 이들의 기척에 숲의 고요도 한조각 파문을 그리며 여기가 현재

임을 일깨울 뿐. 도심에서는 살 비밀 듯 스쳐 지나도 본체만체 하던 사람들이 이 한적한 올레길에 서는 웃는 낯을 맞대며 인사말을 건넨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느림은 여유다. 그 여유가 삶에 쫓기는 생활인을 속박을 풀어헤친 느슨한 자연인으로 탈바꿈시킨다. 순박한 본성이 내 안에 차오르며 경박함을 밀어낸다. 주위가 선경仙境으로 다가오고 오가는 이들의 면면도 친숙함으로 내 안에 든다.

숯을 요리조리 엮어 이은 나뭇가지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사랑 놀음에 여념이 없다. 저들은 제 피붙이를 먹여 살릴 양식 쌓기에 어리석은 땀방울을 흘리지 않는다. 주린 배만 채워지면 오직 제 생에 충실할 따름이다. 그리고 보면 자연의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우매한 탐욕을 닮은 게 없다. 이곳에서는 그 무엇이 휘방하지 않은 한 모든 것들의 삶이 평형을 유지한다. 내 생생은 내 생이고, 네 생생은 네 생일뿐. 저마다 선택한 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서로가 방해하지도 방해받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어간다.

내가 사는 인간사회의 삶의 양태는 치열함을 넘어 으스스한 공포감마저 든다. 제 입신立身과 양명揚名을 위한 살벌한 투쟁, 자식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의 가학적加虐的 행태들, 대대손손 먹여 살릴 재물 쌓기에 이진투구다. 그런가 하면 하릴없는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이 사회를 갈라놓고 허망한 논쟁 끼리를 만들며 갈등 키우기에 골몰하고.

이런 수라장 같은 삶의 등지에 험벗고 굶주림, 눈꼴사나운 사치와 낭비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허나 기울기가 한계치를 넘어서면 평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오직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허기를 채우겠다는 아우성만 높아갈 뿐이니...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청량한 올레길이라도 느릿느릿 걸으며 제 안에 버겁게 품어 안은 욕망의 자루들을 하나 둘 비우고 가는 것도 좋을 듯싶다. 어느 스님의 말마따나 아등바등 사력을 다해 얻은 생의 부귀영화도 종국엔 유리창에 잠깐 서린 입김의 흔적에 지나지 않을 터이니.

□ 회칙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耽羅양씨건승원문화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탐라국왕(耽羅國王) 宥 先祖를 존승봉사(尊崇奉祀)하며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탐라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양씨 건승원 유지관리와 사회복지 및 탐라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시 중앙로 186-1 삼성회관 2층 (양씨종회총본부)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탐라역사와 文化의 발굴과 전승사업
2. 양씨건승원 祭享에 관한 사업
3. 양씨건승원 보호유지에 관한 사업
4. 梁氏 宗史연구, 文獻 발간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 증진사업 및 장학사업
6. 忠孝 및 전통 예절 교육
7. 제주도의 전통 文化사업의 창달과 전승
8. 기타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위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양씨종원 및 이 법인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전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재단에 입금된 헌성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한 이익배당이나 반환은 일체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2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8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보선은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양씨종회총본부 회장이 겸직하며 그 직무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수행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양씨중회총본부 회장 연임시 그 임기와 일치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대표가 되며 법인업무를 통할(統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 법인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16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취득 처분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 (회의록) 이사회회의 회의록은 참석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2인 이상 지명하여 서명날인토록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소유 부동산 및 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5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운영재원)

- ① 재단의 사업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 현성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 수입금 중 기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③ 기부금 모집단체에 가입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획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기 책임하에 금액의 모금을 하여 이 법인에 크게 기여하게 한 때에도 위 단서 조항에 준한다.

제 30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1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세계 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33조 (감사실시) 이 법인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를 실시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34조 (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소속직원을 둔다.

1. 사무처장 1인
2. 사무직원 약간명 (남, 여)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 (해산)

-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현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 개정된 정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14. 2. 8.
(재단법인허가 2014. 7. 7.)
개 정 2015. 2. 21.
개 정 2015. 4. 10.

재단법인 耽羅양씨건승원문화재단 정관 시행 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耽羅양씨건승원문화재단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 ① 탐라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전승사업은 전문학자 또는 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 ② 양씨건승원대제 봉향은 양씨건승원 현장에서 실시하며 명칭은 양씨건승원대제로 하고 봉향일은 매년 4월 11일로하며 식전, 후 행사와 진행절차는 내부규정에 의한다.
- ③ 양씨건승원 보호 유지 관리는 건물유지 관리 및 경내에 모든 시설관리를 한다.
- ④ 양씨종사연구, 문헌발간사업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문학식을 갖춘 학자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경로효친을 증진시키는 사업과 복지 문화에 연결되는 사업지원 및 장애인 돕기 사업 등을 포함한다.
- ⑥ 장학사업은 도내·외 고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재단법인 耽羅양씨건승원문화재단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⑦ 충효 및 전통예절 교육은 탐라의 전통성을 토대로 하며 국가에 공헌과 효친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과 홍보를 통하여 전파한다.
- ⑧ 제주도의 전통 문화발굴 사업은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시행할수 있다.
- ⑨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법인 공익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학교 및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 (홍보 소식지 발행) 이 법인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耽羅양씨건승원문화재단 소식지를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사회 또는 재단에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후보 추천)

① 이사 및 감사 후보는 양씨중앙총친회(6파대총회)와 양씨총회총본부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재단의 운영체계) 재단의 운영에 자문과 운영 및 지도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지도위원, 사료연구위원, 제례위원 등을 추대 및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양씨총회총본부 정기총회 및 이사회회의에 재단법인 이사회의 내용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재단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제9조 (상임이사)

① 정관 제11조 상임이사는 양씨총회총본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는 재단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이 법인의 운영에 특별한 사안이나 제2조 4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봉행위원회) 이 법인은 양씨건승원대제 행사 봉행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재정)

① 본 재단의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임원회비 및 총회총본부 보조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현성금 및 출연금은 금융자산으로 적립시키고 국고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시 자체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회비는 임기 기간 중 200만 원으로 하여 경상비로 사용한다.

제14조 (현성금)

- ① 재단법인의 사업추진 시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성금을 모금한 지역총친회, 계파총친회 및 재단이사는 현성금 모금실적에 따른 20%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종친 개인별로 독려하여 입금되는 경우는 10%의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실시기간) 매년 1회 1월 중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출연재산의 평가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 기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차입할 수 있다.

제18조 (세입 세출) 매 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하며 복식회계로 처리한다.

제19조 (재산의 취득) 이 법인이 재산을 취득시 이사회의 결의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로 가름한다.

제20조 (예산안의 편성)

-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무처에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받는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사업계획서에 기초하며 감독관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21조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법인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에 반영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후 의결을 받는다.

제22조 (예산성립 전 예산집행)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이 성립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의 전용)

- ① 예산 집행 중 과목상 과부족이 발생하였을시 또는 부득이한 추가 요인이 있을 경우는 이사회의 전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미한 사항 중 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경미한 사항 및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 (출납 및 출납원)

- ① 사무처장(출납관) 또는 직원에게 출납업무를 위임하여 수납, 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계관계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장부의 비치) 회계관계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1. 세입에 관한 장부
- 2. 세출에 관한 장부
- 3. 현금수납에 관한 장부
- 4. 세입 증빙서 (세입결의서)
- 5. 지출 증빙서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 6.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비치 보관

제27조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사항은 정부회계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8조 (물품관리)

- ① 모든 물품이 구입은 장부에 등재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비품관리 대장을 비치한다.
- ②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시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 (물품관리 책임) 고정자산 또는 물품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명한다.

제 4 장 사무 처

제30조 (처장 선임)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31조 (사무처 직원 보수)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양씨중회총본부 직원 보수에 준한다.

제 5 장 포 상

제32조 (포상) 이 재단에 유공 또는 협조한 자와 헌성금 출연자에게 특별히 포상 또는 축하광고를 할 수 있다.

제33조 (헌성금 출연자 기념비 건립) 이 재단의 유지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헌성금 기탁한 자에게 금액 순위에 따라 기념비를 건립할 수 있다.

1. 오천만 원 이상의 헌성금 출연자

① 성역내에 대리석으로 특수한 조형의 좌대 위에 조석으로 독비(와비)를 세워 전면에는 횡서로 “독지, 양 모 유공비”라고 각명하고, 후면에는 출생지, 주소지, 계파, 대손, 가족상황, 공적사항, 약력 등을 게재한다.

② 양씨중회보를 통하여 독지종친의 성심을 전 종문에 소개한다.

2. 일천만 원 이상의 헌성금 출연자

① 성역내에 대리석 좌대위에 조석으로 독비를 세워 전면에는 “독지, 양 모 유공비”라고 각명하고, 후면에는 출생지, 주소지, 계파, 대손, 가족상황, 공적사항, 약력 등을 게재한다.

② 양씨중회보를 통하여 독지종친의 성심을 전 종문에 소개한다.

3. 일백만 원 이상의 헌성금 출연자

① 대리석 좌대위에 조석으로 합비(와비)로 세워 전면 좌단에 “독지종친 헌성현창비”라고 각명하고, 이어서 헌성금액 순위에 따라 계파, 대손, 성명, 주소를 연기로 게재한다.

② 헌성록에 헌성액, 계파, 대손, 성명, 주소 등을 게재한다.

4. 오만 원 이상의 헌성금 출연자

① 전사청(그외 시설물 포함.) 내 현판에 헌성금 순위에 따라 계파, 대손,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게재한다.

② 헌성록에 헌성액, 계파, 대손, 성명, 주소 등을 게재한다.

5. 일억 원 이상의 현성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6 장 제향 및 경조

제34조 (제향 및 경조) 이 법인에 직·간접 유공자와 관련이 있는 회원에게 경조시에 축, 조의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시행) 이사회의 의결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2015. 9. 9. 이사회의 의결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회칙

양씨종회총본부 회칙

제 정	1972. 1. 30.
전문개정	2009. 2. 16.
일부개정	2012. 2. 03.
일부개정	2013. 2. 15.
일부개정	2014. 2. 08.
일부개정	2015. 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양씨종회총본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승선, 애족, 유후의 종헌정신을 함양하고 종문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는 탁라국시조 양을나의 후손을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는 제주시 중앙로 186-1 소재 삼성회관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임원 및 감사)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내외 (총무, 사업, 조직, 섭외, 의제, 홍보담당 부회장 각 1인 포함.)
4. 이사 40인 내외 (총무, 사업, 조직, 섭외, 의제, 홍보담당 이사 각 1인 포함.)

5. 감사 3인

제6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단, 청년회총본부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담당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⑤ 담당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전반을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담당부회장의 직무는 별표와 같다.

⑤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⑥ 담당이사는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직무는 별표1과 같다.

⑦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본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 및 감사는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보선 또는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9조 (고문) ① 본회에 고문 및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원로종친 중에서 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하되 회장을 역임한 종친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③ 회장은 고문 중에서 회무에 관하여 상시 자문할 수 있는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위원) 회장은 고문 외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특정회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회는 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2조 (회의 정족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총회는 출석인원을 개의 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되 신년하례회를 겸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기종료에 따른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집행사항 보고의 접수
5. 예산 및 결산보고의 접수
6. 임원회, 이사회에서 총회가 의결할 사항으로 제출된 의안의 처리

제14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임고문을 참석케 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단, 회무에서는 삼성사 제례 및 탁라종묘건승원 제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임원회가 의결할 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의 채택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임기 중 궐위시 보선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채택
6. 기타 이사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의 채택

제 5 장 사 업

제16조 (사업) 본회는 제2조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승조보본에 관한 사항
2. 종문의 번영과 공익을 위한 육영, 출판, 문화사업
3. 삼성사재단 운영참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4.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장 지역종친회 등

제17조 (지역종친회) 본회는 시·도 및 국외에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다. 단, 탁라국 발상지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시·읍·면별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인접 시·읍·면이 상호협의를 때는 2이상 시·읍·면이 통합하여 단일종친회로 조직할 수 있다.

제18조 (산하조직) 본회는 산하에 지역종친회와 별도로 계파별 종친회, 여성 종친회, 청년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지역종친회 및 산하조직의 인준) ① 지역종친회 및 산하조직이 조직된 때는 본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인준된 지역종친회 또는 산하조직이 정상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 (재정) 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임원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고·양·부 삼성사재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임원회비, 특별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범위를 정한다.

제21조 (회계의 설치) 본회는 일반회계 외에 승조사업 등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 외 지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한 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24조 (결산)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회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를 받은 결산서는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기구

제25조 (사무국) ① 본회 회무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국장 1인 외에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26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제의로 발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27조 (시행규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보충규정)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당시 임원, 이사 및 감사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회칙 시행전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②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당시 조직된 지역총친회와 산하조직은 이 회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인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개정 조항 시행은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5. 4. 10.)

▣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의 직무규정

직위, 직책	직 무
총무담당 부 회 장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회의 운영, 서무 등 사무전반 • 종회 재산, 회계, 기타 재무 관련업무
사업담당 부 회 장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조, 애족, 유후의 종헌정신의 함양을 위한 사업 • 승조보본에 관한 사업 • 육영, 출판, 문화사업 • 기타 관련사업
조직담당 부 회 장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종친회 조직 및 활성화 지원 • 청년, 부녀회 조직 및 활성화 지원 • 종회 활동촉구
섭외담당 부 회 장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독지종친 발굴 • 현성금 모금 • 기타 관련사업
의제담당 부 회 장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승원 제향의 기획 및 주관 • 삼성사 제향 헌관추대 • 기타 관련사업
홍보담당 부 회 장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회운영 및 활동상황의 홍보 • 기타 홍보관련 사업

▣ 제16조 3항 삼성사재단 참여세칙

- ① 삼성사재단 이·감사는 良乙那 始祖가 탄강하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양문의 후손으로 종문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높은 종친을 선발하여 종회총본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천한다.
- ② 삼성사재단 장학생 추천은 良乙那 始祖가 탄강하신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둔 양문의 학생으로 하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종문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개인별 신청을 받아 종회총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
- ③ 장학생 심사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3파회장(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 양씨종회총본부 임원 상조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양씨종회총본부 임원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총무 1인

단, 본회의 임원은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사무국장 또는 총무이사가 겸직 한다.

제4조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양씨종회총본부 임원의 임기에 한한다.

제5조 (상조 회원의 범위) 상조 회원의 범위는 상임고문, 회장단, 담당이사, 일반이사, 감사로 한다.

제6조 (상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조한다.

(1) 회원의 직계 존, 비속 및 처의 경조사와 자녀 결혼시에는 종친회 자금에서 100,000원과 참석회원 20,000원씩 각출하여 부조한다.

(2) 회원의 작고시는 종친회 자금에서 3단 조화와 참여하는 회원은 30,000원씩 부조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 본인 사망시 3단 조화를 헌화하고 참석자는 개별로 문상한다.

단, 부조대상 임원과의 “계파 종친회원” 또는 “개인 친목회원”으로서 별도 부조를 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조 (회비) 상조회비는 해당년도 양씨종회총본부 첫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양씨종회총본부 이사회에서 한다.

제9조 (시행) 본 상조회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三 姓 穴



삼성혈은 4300여 년 전에 三神人이 용출하여 耽羅國을 창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이다.
 조선조 중종 21년(1526)에 이수동 목사가 穴壇을 조성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어오는 탐라문화의 요람이며 우리의 聖域이다.


 財團 高 · 梁 · 夫 三 姓 祠 財 團
 法 人

이 사장 夫 萬 根

총무이사	梁 文 熙	재무이사	高 誠 七	사업이사	夫 性 鉀
이 사	夫 奉 河	이 사	梁 芳 旭	이 사	梁 龜 河
이 사	高 東 禧	이 사	高 興 秀	감 사	高 元 浩
감 사	梁 八 珍	감 사	夫 仁 碩	사무국장	高 泰 龍
관리부장	夫 炳 喆	업무부장	梁 棟 賢		



梁氏宗會總本部的發展을 祈願합니다.



會長 高時弘



고씨종문회총본부 탐라종묘 분향례를 마치고 (2015. 1. 5)

◎ 高氏宗門會 總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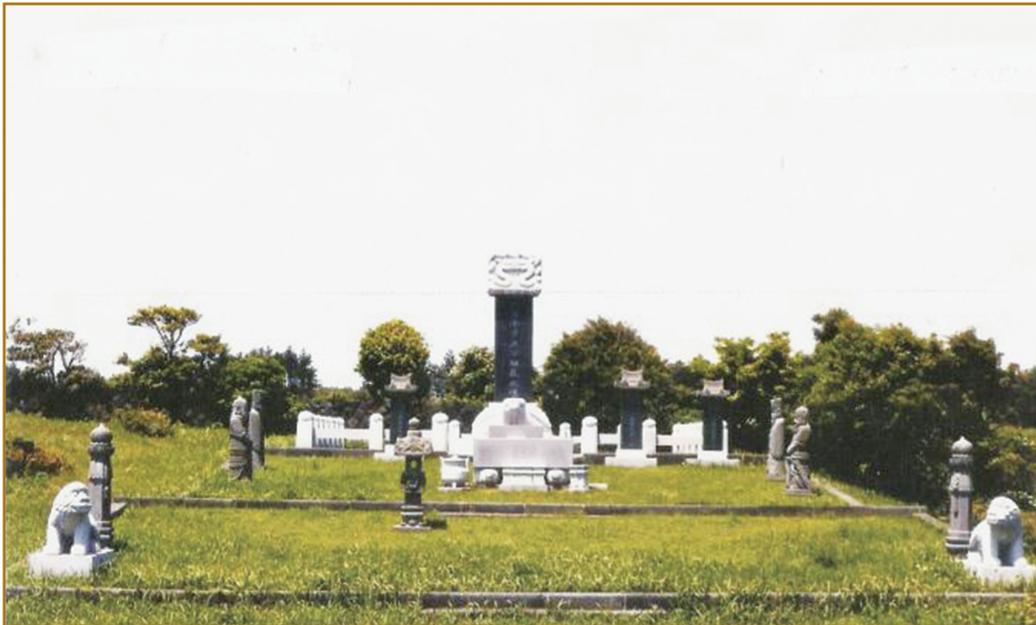
- 顧問：高泰孝, 奉湜, 玟洙, 聖順
- 指導委員：仲三, 文現, 致和, 昌富, 容河, 基元, 澤柱, 太和, 太昊, 斗衡, 聲華, 邦日, 應三, 尚現, 智鮮, 達翊, 祐錫, 昌浩, 成國, 喆洙, 在恒, 性洙, 治皓, 元澤, 鐘健, 致勛, 庸碩, 興權, 昌善, 漢球, 昌勳, 元峯, 昌實, 吉雄, 泰信, 甲鳳, 祈天, 明守, 富仁, 忠錫
- 會長：高時弘
- 常任副會長：高誠七
- 副會長：興秀, 東禧, 大權, 泰英, 治雄, 南壽, 龍海, 萬富, 憲典, 泰鮮, 永洙, 漢鍾, 幸善, 守彥, 錫根, 元浩, 漸裕, 友芳, 玟立, 相侯, 大益, 正彥, 武藏, 文敬, 桂秋, 有峰, 珍富, 允河, 南淑, 生孝, 容九, 瑞逢, 忠弘, 東麟, 喜範, 信官,
- 監事：仲休, 濟東,
- 常任理事：彰根, 昌富, 奉奎, 榮南, 官用, 制憲
- 理事：京憲, 隆吉, 英一, 三雄, 相彥, 昌吉, 性義, 平殷, 元讚, 正祖, 永宇, 源培, 斗昇, 成富, 舜澤, 運春, 成贊, 孜明, 承勛, 瑛彬, 東熹, 英鳳, 任柱, 斗培, 熙京, 石八, 靈杓, 誠璣, 奉植, 景和, 祥龍, 承萬, 龍昇, 太古, 亨洙, 哲龍, 聖翊, 京珍, 東煥, 哲柱, 瑩珍, 龍輔, 成南, 允權, 洪律, 漢哲, 祐成, 寬守, 梁樹, 昇立, 暎斗, 景律, 銀振, 豪晟, 承益, 泰英, 正植, 讚凡, 鍾洙, 讚凡, 鍾洙, 英鎬, 碩燦, 泰龍, 鳳株, 光秀, 東秀, 聖基, 碩相, 誠孝, 昌厚, 明淳, 昌浩, 東撤, 炳玉, 熏撤, 文和, 泰敏, 成俊, 弼秀, 庸文, 在文, 京實, 熙天

◎ (財)耽羅宗廟文化財團

- 理事長：高時弘 • 常任理事：高興秀, 東禧, 大權
- 理事：高南壽, 龍海, 明守, 萬富, 守彥, 錫根, 元浩, 漸裕, 友芳, 正彥, 相侯, 武藏, 文敬, 奉奎
- 監事：高漢鍾, 幸善

※ 고씨종문회총본부 및 (재)탐라종묘문화재단

• 사무국장 고석팔 • 사무과장 고은미 • 탐라원관리소장 고남지
(연락처 : 751-0711, 758-5355 fax 758-5421 탐라원 702-0711)



濟州夫氏 中始祖 追遠壇

濟州夫氏大宗會



會長 夫 三 煥

- 顧 問：昌玉, 午鉉, 昇培
- 會 長：三煥
- 副 會 長：奉龍, 斗星, 允喆, 性鉀
熙鐘, 榮三, 珣華, 清河(서울),
禎淑(釜山), 永祿(光州·全南)
敏元(在日本), 奉秋(東京)
- 總務理事：斗昕, 財務理事：榮柱
- 事業理事：仁碩, 弘報理事：庸均
監 事：昌殷, 圭眞

사무실 : 제주시 중앙로 186-1(이도1동) 삼성회관 3층
TEL: (064)751-0911, FAX: (064)751-0912



한라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방 규
 화진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혜 경
 신흥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봉 신
 동방산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방 규

- ◆ 사단법인 불다클럽 역대총회장
- ◆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 명예회장
- ◆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 제주지회장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자문위원
- ◆ 제주불교신문 감사
- ◆ 제민일보 자문위원
- ◆ 아시아장애인 불링연맹 부회장
- ◆ 현)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代表理事 梁 邦 圭
 (법명 : 도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95(동흥동)
 T. (064)763-6771 F. (064)763-6770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6층 (이도이동)
 T. (064)723-1253 F. (064)727-0108



더 큰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넘치는 사랑을 받아온 진영마트가
이제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회장
양 인 준

Mobile : 011-693-4880



| 서사라점 | 제주시 삼도1동 786-2 TEL : (064) 752-9701~3

| 외도점 | 제주시 외도1동 639-4 TEL : (064) 712-3233~5

| 용담점 | 제주시 용담2동 592-5 TEL : (064) 711-4880~1



양경필 · 문성영 치과의원

원장 양 경 필 · 문 성 영

父. 梁在植

전)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관(교장급)역임
전)양씨종회총본부 이사



제주시 삼도1동 553-4번지
(서광로 구, 신고입구 웰빌딩 4층)
TEL : (064)753-7769
FAX : (064)725-2833



하나로마트

신선한 농축산물 풍요로운 밥상
농업인의 정성을 느껴보세요.

도내최대
식재료전문매장



하나로마트 오라점

우리몸엔 우리 농산물이 좋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일도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1 하나로마트 오라점 747-6260

NH NongHyup

하나로유통센터

고객님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정직과 겸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을 팔다
안심을 사다



제주시농협

☎ 하나로유통센터 750-6500

□ 부록

편집후기

■ 종회보가 2016년에야 발간된다. 지난해 2015년에 발간되지 못한 여러 사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실려본 적이 없는 양씨 관련 여러 역사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양씨문중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드러낼수 있는 자료들을 집중, 발굴했다. 앞으로도 이런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종회보 편집을 도와주신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알찬 종회보, 모든 양씨문중이 원하는 종회보가 되도록 편집진 일동은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 이번 종회보를 내고 양씨문중 여러분들에게 평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 종회보를 발간하시고 더 나은 종회보 발간을 기대하시며 마음 졸이신 전임 양우철 회장님과 양조훈 종회보 발간위원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2016년 새해를 맞는 마음만큼이나 그 결과를 기다린다. 종회보 원고 정리 때 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양정보 회장님, 양구하 이사장님, 양태엽 총무이사님의 고마움을 이 지면에 표시하는 것도 당연한 예의일 듯 하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 양진건

주 간 : 양보현

간 사 : 양동현

위 원 : 양영길, 양영배, 양기훈, 양태엽